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를
Promo Plus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불법입국 망명 불허” 행정 명령

바이든, 중도층 표심 잡기 '대선 승부수'
트럼프 "수백만 이미 불법 입국" 평가절하

미국 멕시코 국경을 통해 몰려드는 불법 이민자 이슈가 올 대선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 확실시 되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4일 불법 이민자 문제 완화를 위해 당분간 남부 국경을 통해 불법 입국한 이민자에 대해 망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조 바이든 도널드 트럼프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행한 연설에서 "적절한 절차를 통해 입국한 뒤 신청한 망명 절차가 아닌, 불법적으로 남부 국경을 넘어온 사람은 망명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조치는 우리가 국경을 통제하고 질서를 회복하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불법 입국자 수가 우리 시스템이 실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어들 때까지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날 연설에서 '불법 입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데도 관심이 모아진다. 바이든 정부 인사들은 그동안 '불법 이민자'가 아닌 '서류 미비자(undocumented)'라는 완곡한 단어를 주로 써왔다.

발표된 시행안에 따르면 7일간 남부 국경에서 체포된 불법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2천500명을 넘을 때 조치는 시행된다. 불법 입국자 수가 하루 평균 1천 500명 아래 수준으로 떨어지면 2주 후 중단된다.

언론은 이미 남부 국경에서 불법 입국으로 체포되는 사람 수가 2천500명 수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즉각 시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재임 이후 불법 이민자들은 미국 남부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온 뒤 망명을 신청하면 허용 여부 결정까지 수년동안 미국내에서 생활이 가

능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불법 입국자들의 망명 신청은 불허되며 모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11월 대선에 앞서 오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을 앞두고 나온 이번 조치는 중도층 표심 얻기를 목표로 한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승부수로 분석된다.

이런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의 행정명령조치를 '정치 쇼'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바보같은 조 바이든은 우리의 남부 국경에 완전히 굴복했다"며 "그의 유약함과 극단주의는 전례없는 수준의 국경 침공을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나라들은 감옥과 정신 병원을 비워놓고 우리에게 마약상, 인신매매범, 테러리스트들을 보내고 있다"며 "수백만의 사람들이 우리 나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고 비난하며 "4년 가까운 실패 끝에 조 바이든은 마침내 국경 문제에 대해 무언가를 하려는 척하고 있다"며 "이것은 모두 쇼다. 그는 우리가 3주 후 토론하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세용 기자

문 정부 '나랏빛 왜곡' 전망치 반으로 줄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당시 청와대 "신경써 달라" 지시
홍남기 부총리 "두자릿수로 낮춰라"
실무진 반대에도 153%→81%로

문재인 정부가 미래 세대가 져야 하는 나랏빚을 추산하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수치를 최소 2분의 1 이상 축소·왜곡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4일 발표했다. 부동산·소득·고용 관련 통계 조작에 이어 국가장기 재정 전망에서도 의도적으로 비틀 정황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 과정을 주도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비위 내용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기획재정부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홍 전 부총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최선의 판단이었다"며 정책적 결정이었다는 취지의 반박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2020년 9월 기재부가 발표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 수치를 집중적으로 살펴봤다. 5년마다 발표하게 돼 있는 장기 재정 전망은 법적 의무사항이다. 당시 기재부는 "성장 시나리오에 따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4~81% 수준으로 관측된다"고 발표했다. 같은 달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158.7%와 두 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당시 야당 기획재정부위원회 위원 이었던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그해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기재부가 희한하게 마술을 부린다. 인위적으로 찌그러트려서 2060년 80% 가 나오게끔 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감사원 감사에서도 기재부가 국가채무 급증에 대한 외부의 비판을 우려해 채무비율 수치를 왜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인 기자

75세 이상 여성 43% 혼자 산다

센서스국 보고서 발표
남성 65세 이후 20%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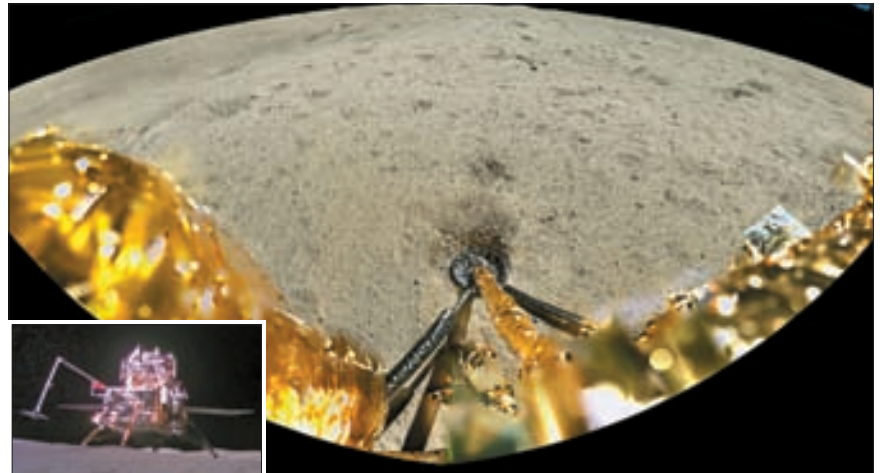
미국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통계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센서스국이 발표한 '연령대에 따른 다양한 생활 방식'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5세 이상 성인 10명 중 약 3명은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18~34세 청년 그룹의 경우 10명 중 1명이 가족이나 파트너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여성들의 수명이 남성보다 통상적으로 긴 탓에 나이가 들수록 여성이 혼자 사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65~74세 그룹의 경우 여성은 27%, 남성은 21%가 혼자 살고 있어 비슷한 비율을 기록한 반면, 75세 이상 그룹에선 혼자 사는 여성의 비율은 43%까지 높아졌다. 75세 이상 남성 중 혼자 거주하는 비율은 24%로 계속해서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센서스국은 "남성 시니어는 여성이 생존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파트너, 배우자 등과 같이 사는 비율이 여성보다 높은 편"이라며 "여성의 기대 수명이 길어졌음을 반영하는 결과"라고 전했다.

18~24세 젊은 층은 부모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18~24세 중 남성은 56%, 여성은 54%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자서 사는 경우는 각각 6%, 5%밖에 되지 않았다.

4면 '혼자'로 계속 김은별 기자



중국 "달 뒷면 샘플 채취 첫 성공" 중국의 무인 달탐사선 '창어 6호'가 촬영해 지구로 전송한 달 표면 사진. 중국은 지난 3일 인류 최초로 달 뒷면의 샘플을 채취하는 데 성공했다. 미국과 소련은 달 앞면에서만 샘플을 채취했다. 작은 사진은 샘플 채취 후 이륙 준비 중인 창어 6호. 중국의 달탐사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유인 우주선을 달에 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화=연합뉴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 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물품지킴이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43-759-9798

1석 5조 통합보험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5 in 1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ransamerica, 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Aetna, National Western Life, ISW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개인 건강보험 (Personal Health Ins.)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오바마케어 (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 (Medicare)

로리 문 | Cell. 703-895-7648 | send2lorimoon@gmail.com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액트지오 오너 오늘 방한... '영일만' 설명한다

(유전·가스전 분석업체)

세계 심해탐사 전문가 아브레우 정부 관계자 만나고 기자회견도

포항 영일만 일대에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을 제기한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박사가 이르면 5일 오전 11시 한국에 들어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추를 승인해 국민적 관심이 커진 가운데 분석을 진행한 전문가가 직접 방한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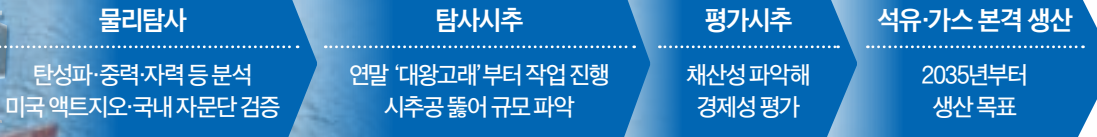
4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자원개발업계에 따르면 그는 이날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출발해 대만을 거쳐 입국한다. 정부 관계자와 유관기관을 만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영일만 광구 분석 결과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액트지오 소유주인 아브레우 박사는 현재 최고경영자(CEO)에서 사임하고 고문을 맡고 있다. 그는 미국 퇴직자 질량회(SEPM) 회장과 엑손모빌 지질 그룹장 등을 역임한 세계 심해지역 탐사 권위자다. 엑손모빌 재직 당시엔 가이나나 유전 탐사작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한국으로의 출국에 앞서 아브레우 박사는 "나는 심해탐사 프로젝트 경험이 풍부하고 액트지오의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문성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며 "포항의 석유·가스전은 매우 유망한 기회며, 이를 명확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한국행을 결정했다"고 말했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검증 결과에 대한 소모적인 논란이 이어지자 당사자를 초청해 과학적 기준과 근거를 설명해 신뢰성을 높이기 위



동해 석유·가스전 탐사개발 어떻게 진행되나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노르웨이 해양 시추업체인 시드릴로부터 빌릴 예정인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사진 삼성중공업]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석유공사는 이날 설명 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관련 논란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액트지오에 대한 전문성 의혹부터 해명했다. 액트지오는 2016년 설립 이래 가이나나·볼리비아·브라질·미얀마·카자흐스탄 등 다수의 주요 프로젝트 평가를 수행했다. 직원들도 엑손모빌·셀·BP 등 글로벌 메이저 석유개발 기업 출신으로 심해탐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직원 상주 근무 여부와 관련해선 "액트지오는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들이 아브레우 박사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공유되고 있는 액트지오 본사 사진은 의식한 듯한 설명으로 풀이된다. 휴스턴에 있는 액트지오 본사는 평범한 가정집 모습을 하고 있어 일각에서 '페이퍼컴퍼니'가 아니냐는 의혹이



아브레우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초빙교수는 "액트지오가 심해 전문 컨설팅 '부티크'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부티크에선 글로벌 대형 정유사에서 심해 지질 탐사를 해오던 전문가들이 소수로 모여 인터넷·화상회의 등을 통해 원격으로 일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2000조원대 가치로 추정되는 포항 영일만 앞바다(6-1광구·8광구)의 7개 유전·가스전 후보지 가운데 가장 유력한 곳을 '대왕고래'라 이름 짓고 우선 개발하기로 했다.

석유공사는 오는 12월께 대왕고래에 대한 탐사시추에 나설 예정이다. 사랍 뚫 안에 있는 중앙(석유 등)을 찾기 위해 X선이나 초음파검사를 하는 게 물리탐사라면, 뚫 안에 내시경을 넣어 조직검사를 하는 건 탐사 시추로 비유할 수 있다. 탐사시추를 하면 직접 땅을 파 실제로 석유 등이 있는지, 있다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노르웨이 해양시추 업체 시드릴(Seadrill)로부터 시추선인 '웨스트 카펠라'를 빌리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이 간조해 2008년 12월 시드릴에 인도한 것이다. 웨스트 카펠라는 대왕고래 위에서 약 40일간 머물며 탐사시추를 진행할 계획이다. 웨스트 카펠라는 수심 1만ft(약 3048m)에서의 작업이 가능하다. 최대 시추 깊이는 3만 7500ft(약 1만1430m)다.

계약 규모는 3200만 달러(약 440억 8000만원)며, 대여 비용은 하루 6억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 석유공사는 감독관, 무인 잠수정, 헬기 등도 조달 절차를 밟고 있다.

나선 3월께 대왕고래 탐사시추 결과가 나오면 추가해 탐사시추를 할지, 채산성 등을 따지는 평가시추로 넘어갈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평가시추까지 마쳐야 비로소 생산을 시작할 수 있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방송 인

터뷰에서 "대왕고래 탐사시추를 5회 이전에 성공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1회 탐사시추를 해 석유 등을 발견하고 규모를 파악할 가능성이 20% 가량인데, 신중을 기하면 충분히 5회 이내에 성공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대왕고래 개발이 본격에도 오른다면 석유공사는 6-1광구·8광구 내 다른 유전 등 후보지에 대한 탐사시추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매장량에 따라 (개발) 비용이 달라지는데 내부적으로는 개발 비용을 감안해 충분히 경제성이 있다고 본다"며 "인접한 한국·일본·중국 3국이 터미널·액화 설비 등 충분한 액화천연가스(LNG) 인프라를 가진 상황에서 추가 비용이 적은 것도 유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제주 인근 5광구도 탐사시추 후보지 가운데 하나다. 석유공사는 2022년 8월 5광구에 대한 물리탐사 자료를 확보했다. **세종=김민중·이우림 기자**

▶ '1면 나랏빛'에서 이어집니다

기준엔 정부의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는 방식이었다. 재량지출은 국방비나 사회간접자본 등 정부가 필요시 지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홍 전 부총리는 그 방식 대신 "총지출(의무지출+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100% 연동시키라"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지시했다.

이는 곧 특정 해의 경제가 3% 성장했다면, 그해 정부 지출 증가율도 3%의 캡을 씌운다는 의미다. 고령화에 따라 연금 지급 규모가 확대되는 등 시간이

지날수록 의무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점을 감안하면 캡을 씌운 상태에선 재량지출은 줄어드는 게 필연이다.

감사원은 이 경우 GDP 대비 재량지출은 2022년 16.3%에서 2060년 5.82%로 줄어 정부의 기본 기능도 어렵게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 계산 과정에서 재량지출이 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했다. 홍 전 부총리는 "전례가 없다"는 실무진 반대에도 "왜 불가능하나. 재량지출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갖고 할 수 있다"고 밀어붙였고, 결국 두 자릿수 수치가 발표됐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재무 증가) 등 외부 비판을 우려해 수치를 왜곡, 축소하며 객관성과 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당시 기재부의 전망치에 대해 "어느 정도 조정을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구체적인 외압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홍 전 부총리는 지난해 감사원 조사에서 국가채무비율을 낮추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한 적은 없다"

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에 게 직원남용 혐의 적용을 고려했지만, 정책 결정 사안인 점을 고려해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 혐의 통보로 마무리 지었다. 감사 결과 발표 후 홍 전 부총리는 "의견과 판단을 달리하는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발표 당시에 재정여건, 국가예산 편성, 국가채무 수준, 국제적 대외 관계 등을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하려고 노력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문재인 정부 때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사업이 150여

건으로 급증했고, 최소한의 검증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수천억~수조원대 사업에 대한 기재부 검토 기한이 1일 이내인 경우가 36건(60조7030억원)이었고, 사전용역을 하지 않은 사업도 29건(35조7867억원)에 달했다.

2020년 예타가 면제된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등 8개 사업(4조3000억원 소요)의 경우 국토교통부 등 7개 부처가 그해 6월 2일 오전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청했고, 기재부가 두 시간 뒤 관련 검토 안건을 평가위원회에 송부해 같은 날 저녁 6시에 예타 면제가 확정됐다.

워싱턴 날씨 (°F)

6일(목) 87~68	9일(일) 73~63
7일(금) 81~62	10일(월) 77~63
8일(토) 76~60	11일(화) 76~62

6월 5일(수) 83~72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C.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20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으로 여러분의 부동산을 잘 팔고 잘 사고 렌트도 잘 매니지먼트 해드립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한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데이빗막스

한국어 상담 환영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www.davidmarkslaw.com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유색인종이라서 집 안팔아”

아직도 유효한 VA 식 인종차별 주택 소유주는 ‘소송직면’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는 한 흑인 여성이 버지니아 비치의 콘도를 구입하려다가 유색인종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아직도 사라지지 않는 미국의 인종차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레이번 박스터 박사(30)는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거주하면서 뉴욕의 시나이 종합병원의 분자생물학자로 일하는 원격 근무자였다. 그는 연방항공국에서 이론 물리학자로 일하는 자신의 남자친구와 함께 버지니아 비치에 위치한 콘도를 7만9천달러에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버주어로 주택투어를 하고 비딩을 거쳐 계약이 성사됐으며 다운페이먼트를 보내고 에스스로 계정까지 만들었다. 그는 지난주 남자친구와 함께 자신이 구입한 주택의 실제 모습을 보려고 버지니아 비치를 방문했다가 처음으로 셀러 제인 위커(84세)를 보게 됐다.

그런데 위커는 자신의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이번 계약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어가 흑인이라서 주택을 팔고싶지 않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바이어의 에이전트는 박스터와 박스터의 에이전트에게 이러한 사실을 통보했다.

박스터는 자신의 SNS에 이같은 사실을 밝히고 즉각 버지니아 버지니아 공정주택국과 연방주택및도시개발부에 행정청원서를 접수시킴과 동시에 인권변호사를 고용했다.

연방공정주택법상 인종 등을 이유로 주택 매매와 렌트를 차별할 수 없으며 위반시 엄중한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셀러의 부동산 에이전트가 소속된 회사는 즉각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셀러도 맘을 다시 바꿔 주택매매 절차를 이어가고 있으나, 연방당국의 조사와 처벌이 불가피하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한국문화원 2024년 정기 전시 ‘횡단: 경계를 넘어’ 개최

7일부터 조각 등 작품 전시

워싱턴한국문화원(원장 김정훈, 이하 문화원)은 오는 7일(금)부터 8월 9일(금)까지 문화원 2층 전시장에서 2인 예술가 그룹 다발 김x성동훈이 참여하는 ‘횡단: 경계를 넘어’ 전시를 개최한다.

다발 김x성동훈 그룹 작가 2인은 수십 년 동안 예술가로서 협업해 온 전통과 현대, 신화와 역사, 매체 간 경계를 허무는 조각 및 대형 설치 작업을 선보인다. 두 작가는 현대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통과 현대, 신화와 역사, 여성성과 남성성 사이의 사회적, 문화적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가치를 혼합한 새로운 시각세계를 창조한다.

작품들을 통해 관객들은 서로 다른 문화, 매체, 시공간 사이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과정을 시각적으로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Dalbal Kim The Myth of Hermaphrodites performance still

문화원은 이번 전시와 함께 ‘아트 워크 듀퐁 (Art Walk Dupont)’ 등 워싱턴 DC내 지역의 여러 문화 기관과 연합해 전시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

전시 개관일 7일(금)에는 공연 예술가와 협업해 설치 작품 앞에서 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등 특별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화원 전시는 별도 예약 없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윤미 기자

세미나 ‘늘 은밀히 귀 기울이기’ 성료

워싱턴 가정상담소(이사장 조이 박)가 주관하는 강혜정 박사 초청 2024 봄 온라인 세미나가 오는 18일(화) 오후 7시 30분, ‘헛된 자기복구 시도:중독’을 주제로 열린다.

지난 4월 진행된 첫 강의에서 자신의 저서 『너를 들이쉬고 나를 내쉬다: 투사적 동일시』를 통해 강 박사는 철수와 영희의 부부 사례를 들어 ‘투사적 동

일시’를 설명한 바 있다. 5월 개최된 두 번째 강의 ‘늘 은밀히 귀 기울이기: 애착’이 6월 세 번째 강의로 준비되는 ‘헛된 자기복구 시도: 중독’에 대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강혜정 박사는 이화여대, 한신대,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학 교수를 역임하고 SMP(The Society of Modern Psychoanalysis)

오는 18일 3탄 ‘헛된 자기복구 시도:중독’

정신분석가로 활동하고 있다. 나무와 새 심리상담연구소 전문가 및 사례지도 감독으로 재직중이며 저서로는 <투사적 동일시:너를 들이쉬고 나를 내쉬다>가 있다.

세미나 등록비는 무료, 사전등록을 요한다. >문의: 703-761-2225/ counseling@fccgw.org 김윤미 기자

루디 줄리아니, DC 변호사 자격 박탈위기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 했다고 거액 추징금, 자격 박탈까지...

루디 줄리아니(사진) 전 뉴욕시장의 워싱턴DC 변호사 자격이 위태로워졌다.

워싱턴DC변호사협회 산하 윤리책임위원회는 줄리아니 전 시장이 자신의 의뢰인이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20년 펜실베이니아 주 대선에서 패배하자 이를 뒤집기 위해 각 주 법원에 선거가 조작됐으며 거짓 주장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적시하고 변호사 자격 정지 징계를 권고했다.



워싱턴DC변호사협회는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 사건을 계기로, 대선 음모론의 선봉에 선 줄리아니의 변호사 자격 박탈을 법원에 청원했다.

이 권고안은 워싱턴DC 항소법원에 계류된 자격박탈 위한 소송의 증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지난 2021년 뉴욕주 변호사 자격도 동일한 이유로 정지된 상태다.

줄리아니 전 시장이 작년 12월 DC

법원에서 열린 명예훼손 소송에서 1억 4800만달러 배상판결을 받고 파산을 신청한 상태다. 그는 대선패배 사실을 부인하고 개표 조작 주장으로 명예훼손으로 피소돼 거액 배상판결을 받은 것이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루비 프리먼 전 조지아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이다. 이들은 줄리아니 전 시장의 주장으로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수십건 이상의 살해협박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줄리아니 전 시장은 연방지방검찰청 검사장 출신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이끌었던 주역 중의 한명으로, 9.11테러 당시 뉴욕시장으로 재임하며 영웅 반열에 올랐던 인물이다. 김옥채 기자

한인사회 소득 격차 아시아 3번째

상위 10%·하위 10% 14.8배 중국계 19.2배로 최대 격차

한인사회의 소득 불균형이 아시아 커뮤니티에서 세 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퓨리서치가 2022년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임금 불균형이 가장 큰 그룹은 중국계로 상위 10% 평균과 하위 10% 평균의 차이가 무려 19.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은 3위로 14.8배를 보였다.

다시 말해 하위 소득 10%의 평균이 연봉 3만불이라면 상위 고소득 10%는 연 44만4000달러가 되는 셈이다.

2위에는 스라랑카인(15.5배), 4위에는 파키스탄인(13.5배), 5위에는 라오스인(11.5배) 그룹이 올랐으며 그 뒤를 이어 베트남인(11.2배), 태국인(10.6배), 방글라데시인(10배) 그룹이 자리했다. 퓨리서치는 소득 차이가 높을수록 이민 역사가 비교적 오래됐고 고학력

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고소득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큰 차이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중국은 1980년에 8.3배에서 2022년에 19.2배로 급격히 커진 수치를 보였으며, 한인도 9.9배에서 14.8배로 늘어났다. 흥미로운 것은 베트남계의 경우 1980년 무려 28.8배를 보였는데 지금은 11.2배로 오히려 줄었다. 이민 연차가 늘어나면서 임금 불균형이 일부 해소된 경우다.

현편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그룹은 인도인(22만2700달러), 스리랑카인(20만8600달러), 중국인(20만), 한인(16만9700달러) 그룹 순이었다. 한인 그룹은 하위 10%가 연평균 1만1500달러를 기록해 하위에 랭크됐으며 중간 소득으로는 6만100달러를 보여 인도, 중국, 일본, 필리핀의 뒤를 이어 5위에 자리했다. 최인성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OMNI!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옴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강고은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수교 142주년 보훈의 달 행사

한미수교, 한미동맹, 한인의 날을 기념하여 이민 1세대이신 70세, 80세, 90세, 100세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그리고 차세대들에게 호소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독거 노인 분들을 도와 주십시오. 부모 없는 자식들이 어디 있나요?
예수님, 하느님께서도 10계명을 통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한민족의 충효사상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행사: 어르신들께 점심 식사 대접

일시 2024년 6월 28일 (금) 정오 12시

장소 애난데일 꿀돼지 (Honey Pig BBQ)
7220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후원금 보내실 곳 Pay to the Order of : K.S.C.A.
주소 : 1609 Great Falls St., Suite 243, McLean, VA 22101

버지니아한인회 (VSOK) / 워싱턴 통합노인연합회 회장 우태창

상기 광고는 본지의 광고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정통 한식 기준 잡아야 고급화 전략 먹힌다

한식 세계화 15주년 진단⑤

모던 한식 '바루' 어광 셰프 퓨전도 한식을 표현하는 방식 젊은 셰프들 엄청난 속도 변화 지금 퓨전이 정통 한식 될 수도



바루의 어광 오너 겸 셰프 김상진 기자

올해 5월 기준 전 세계에 미술랭 스타 한식당은 25곳(2스타 5곳, 1스타 20곳)이다.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100개까지 늘리겠다고 지난 2월 2일 발표했다. 그런데 모던 한식 다이닝 바루(Baroo)의 어광 셰프가 한국인 스스로 한식을 얼마나 잘 아는지 물었다. 한식 고급화도 한식 세계화의 일부지만 업스케일링 이전에 우리부터 한식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게 그의 입장이다. 미국에서 10년째 모던 한식당을 운영 중인 그가 한식 고급화의 현주소를 전한다.

-한식 파인 다이닝이 대세다.

“한식 파인 다이닝은 이전에 없던 종류의 한식이다.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맞는 파인 다이닝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 우리한테 맞는 서양의 파인 다이닝이 무엇이고 어떻게 평행해서 갈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고 정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식 파인 다이닝 대부분 퓨전이다.

“당연히 정통으로 믿고 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정통이 과연 얼마나 정통한지 의문이다. 정통이 하나의 마케팅 수단일 수도 있다. 만약에 정통 한식이 그간 변화 없이 옛 맛을 유지해 왔다면 굉장히 평양냉면 같은 맛이 아닐까 싶다. 아직 미국에는 평양냉면 같은 맛이 없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도 많이 알려지지 않을 것 같다.”

-퓨전도 한식인가.

“우리가 여기는 퓨전 한식이 정통 한식으로 인식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지금 젊은 셰프들은 활발한 인터넷 소비로 외국 문화나 여러 분야를 접하고 있다.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받아들이고 이를 흡수한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방식으로 풀어간다. 게다가 젊은 셰프들을 보면 표현하는 방식도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 것 같다. 가까운 미래에 지금의 퓨전 한식이 정통 한식으로 인식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다.”

-퓨전에 대한 한국인들의 반감은.

“퓨전도 한식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이 세상에는 다양색의 의견이 존재한다. 모든 사람의 의견이나 선호도를 맞출 수는 없는 법이다. 나 역시 항상 한식을 한다고 말하지 않고 퓨전을 한다고 말했다.”

-LA엔 한식 파인 다이닝이 유독 없다.

“수요 차이가 가장 크지 않나 싶다. 뉴욕은 코스모 구성된 정찬 메뉴의 니즈가 높다. 또 뉴욕은 관광객이 식당에서 소비하는 수요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반면, LA는 특유의 분위기 때문에 파인 다이닝보다 캐주얼 다이닝의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 나 역시 LA에서 파인 다이닝은 위험 부담이 있겠다고 생각했다. 게다가 뉴욕과 다르게 LA는 관광객이 와서 식당에 소비하는 수요가 덜한 것 같다. 또한, 한인 분들의 소비 패턴을 분석해보면 한식 파인 다이닝 수요를 알 수 있다. LA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파인 다이닝 소비에 보

수적인 것 같다.”

-한국인만 가는 한식당, 타인종 섭렵 어떻게 하나.

“부모님 세대의 업주분들은 요즘 시대의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다. 그래도 조금만 눈을 돌려 마케팅적 요소를 강화한다면 매우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배달 플랫폼이 한식과 식당을 알리기 좋은 매체다. 배달 플랫폼은 다양한 사람들이 사용한다. 그만큼 배달 플랫폼이나 다양한 방법을 접목할수록 훨씬 더 다양한 소비층을 유치할 수 있다. 이제는 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고객 유치해 수요를 넓혀 식당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한식이 극복해야 할 한계는.

“지피자기다.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가 한식의 정통성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식을 업스케일링 하고 우리만의 한식 파인 다이닝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김경준 기자

AI·로봇이 요식업 전과정 뒤바꾼다

주문·결제·조리·서빙·배달까지 인건비 상승, 변화 가속 페달 푸드테크 약 4억불 시장 예상 패서디나에 AI 햄버거 매장도



요식업계에 푸드테크 트렌드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왼쪽은 몬테레이파크 커피숍의 바리스타 로봇 아담. [왼쪽 캡처, 오른쪽은 LA한인타운 한우K BBQ의 서빙 로봇 '포포'. 김상진 기자

와규 소고기를 블렌드에 갈아 패티를 굽고 감자튀김을 바삭바삭하게 만든다. 햄버거는 완전 자동화된 그릴 및 튀김 스테이션을 통해 완료된다. 햄버거 조리를 진두지휘하는 셰프는 로봇 요리사 플리피.

올해 초 패서디나에 문을 연 캘리포니아 스프레스바이플리피(CaliExpress by Flippy)는 인공지능(AI)이 운영하는 햄버거 매장이다. 세계 최초 AI 기반 로봇 튀김 스테이션인 미소 로보틱스, 생체 인식 기술 회사 팍ID의 합작품이다.

메뉴는 햄버거, 치즈버거, 양상추 랩, 감자튀김, 음료수. 고객이 키오스크로 주문하면 AI 안면 인식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고객의 음식 선택 및 결제를 완료한다. 햄버거 마지막 포장만 직원 1명이 하고 나머지는 모두 AI와 로봇이 마무리한다.

최근 LA동부 몬테레이파크 커피숍에는 바리스타 로봇 아담이 등장해 커피를 내리고 이탈리아 체인 식당 올리브가든에는 테이블용 키오스크를 통해 음식값을 결제할 수 있는 등 푸드테크가 요식업계의 가장 강력한 트렌드가 됐다. 요식업계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때문에 푸드테크 도입 속도를 올

리고 있다. 특히 전국 레스토랑에서는 베어 로보틱스가 개발한 서빙로봇 '서비'가 확대되는 추세다. 또 AI는 식당의 재고 관리, 재료 손질 등 주방 일을 대신한다.

LA한인타운에도 서빙 로봇과 배달 로봇을 쉽게 볼 수 있다.

지난달 LA한인타운에 신호 대기 중인 가필드 배달 로봇이 등장해 화제였다. 서버로보스틱스에서 제작한 배달 로봇은 우버이츠와 협력해 배달 로봇을 운영하고 있다. 한우K BBQ는 2년 전부터 서빙 로봇 '포포' 2대가 갈비탕과 반찬 등 주문 음식을 한 번에 테이블까지 서빙한다.

푸드테크가 요식업계를 잠식하며 시장 규모는 해마다 급성장 추세다. 딜로이트에 따르면 2022년 2억6663만 달러로 2028년에는 3억944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레스토랑박람회 핵심 트렌드 역시 푸드테크

였다. 푸드테크 특별관에서는 친환경 자동 튀김기부터 식물성 스테이크를 만드는 로봇 셰프에 이르기까지 테크놀로지와 AI를 이용한 다양한 푸드테크 제품들이 등장했다. 햄버거 품질을 모니터링하는 카메라, 송장 자동화 소프트웨어, 메뉴에 특정 식품 추가 앱 등 AI의 결정판이었다. 이번 행사에서 또 다른 뜨거운 감자는 바로 가주 패스트푸드 최저 임금 인상법이였다.

가주에서 패스트푸드 직원의 최저 임금을 20달러로 올리면서 셀프서비스 키오스크 도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키오스크 설치로 인건비 감소뿐만 아니라 고객들이 주문량을 늘릴 수 있어서 수익성을 올리는 데도 일조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로봇 도입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어 한인타운 식당으로 확대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영 기자

비용 상승에 짐싸는 뉴요커는다

6세 이하 자녀 있는 가정 이주 가능성 40% 높아

비싼 주택 가격과 감당하기 어려운 보육비로 뉴욕을 떠나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싱크탱크 재정정책연구소(Fiscal Policy Institute)가 3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6세 이하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은 2020년부터 2023년 사이 뉴욕을 떠날 전체 가구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뉴욕주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비슷하다. 분석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은 어린 자녀가 없는 가정보다 뉴욕을 떠날 확률이 40% 이상 높았다.

보고서는 뉴욕주의 인구 유출 원인으로 비싼 주택 가격과 급증하는 보육비를 꼽았다.

뉴욕주를 떠나는 가구의 36%는 ‘더 저렴한 주택을 찾기 위해’ 이주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코로나19 이전보다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한 수치다. 또 뉴욕주 인구 유출의 90%는 집값이 가장 비싼 뉴욕시에서 발생했다.

이주율에는 인종별 차이도 있었다. 팬데믹 이전에는 아시아인 흑인에 이어 뉴욕주를 가장 많이 떠나는 2위 인종이었다면, 팬데믹 이후에는 흑인과 히스패닉 가정의 이주율이 급증하고 이주율이 가장 낮았던 백인의 이주가 늘어나며 아시아인의 이주율은 전체 인종 중 가장 낮았다.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이상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가구는 그렇지 않은 가구보다 이주 가능성이 41% 더 높았다.

뉴욕을 떠난 뉴요커들이 가장 많이 이주하는 곳은 플로리다였다. 14.7%가 플로리다로, 13.8%가 뉴저지로 이주했으며 ▶펜실베이니아(9.5%) ▶캘리포니아(7.3%) 등이 뒤를 이었다.

윤지혜 기자

▶'1면' '혼자'에서 이어진다

특히 젊은 청년들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였다. 과거와 달리 여성이 대학에 가고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가 반영되면서 특히 여성 청년층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졌다.

1960년대에만 해도 18~24세 남성 52%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여성은 35%만 부모 집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

러나 최근에는 여성도 부모 집에 거주하는 비율이 50% 이상으로 높아졌다.

한편 25~34세 연령층에서는 남성(34%)보다 여성(43%)이 배우자와 함께 사는 비율이 높았다. 해당 연령층의 성인 남성과 여성의 각 17%가 미혼 파트너와 거주하고 있었다. 2022년 기준 미국에서 결혼한 가구 비율은 47%로, 1970년(71%) 대비 대폭 낮아졌다.

김은별 기자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Albert Kim 보험
albert@w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12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 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0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각종 악세사리 스카프, 모자, 신발, 가방, 마스크 등 판매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영아패션
T. 443-440-2000
3215 Corporate Ct., Ellicott City, MD 21042

Baltimore National Pike
M&T, 대장금, 미백, 웨일링, 노래방

40
300m
뉴타운

미라존 몰 대장금 식당 뒤쪽 길로 300m 정도 내려오시면 새로 지은 뉴타운을 맞으면 미국 성조기 달려있는 파킹장으로 들어오세요~

'LG 하이웨이' 옆에 배터리·세탁기 공장... 북미 공략의 침병

축구장 35배 '얼티엄셀즈 제2공장' 배터리 생산, 캐딜락 '리릭'에 탑재

지난달 30일 남동부 테네시주의 주도 내슈빌에서 차로 40분 정도를 달리자 거대한 공장이 눈에 들어왔다.

LG에너지솔루션과 미국의 GM이 50%씩 투자해 설립한 얼티엄셀즈의 제2공장이다.

축구장 크기의 35배에 달하는 24만 7000㎡ 부지에 들어선 공장에선 전기차용 배터리를 만들고 있다. 공장 내부는 미국 등 어느 나라 언론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 어떤 설비를 사용하고, 설비를 어떻게 배치하는지 등이 모두 기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LG의 장비와 설비 기술로 생산된 배터리는 GM의 프리미엄 브랜드 캐딜락의 첫 전기차 '리릭'에 탑재됐다. LG의 배터리를 탑재한 리릭은 1회 충전으로 465km(국내 기준)를 달린다. GM 측 최고책임자인 크리스 드소텔스 공장장은 1억원이 넘는 자사의 첫 고급 전기차에 LG의 배터리를 쓴 이유에 대해 "LG는 오랜 경험과 차별화된 기술을 갖춘 최고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얼티엄셀즈 제2공장의 연간 생산 목표는 50기가와트시(GWh)다. 3세대 배터리 60만대에 비해 2026년 양산을 시작해 2028년부터 고성능 배



1 미국 테네시주 얼티엄셀즈 제2공장 전경. LG에너지솔루션과 GM이 50%씩 투자해 설립한 이 공장에서 생산한 배터리는 GM 캐딜락의 전기차 '리릭' 등에 탑재된다. 2 미국 테네시주 정부는 2018년 LG전자 공장 인근에 'LG 하이웨이' 이름을 붙여줬다. [사진 LG에너지솔루션·LG전자]



고속도로다. 고속도로 끝에는 LG의 슬로건에서 따온 '라이프스 굿(Life's good)'이란 이름의 도로가 나왔고, 그 옆으로 125만㎡의 부지에 조성된 LG 전자의 세탁기 공장이 보였다.

2018년 가동을 시작한 세탁기 공장의 생산 라인엔 스스로 공정을 터득하는 '딥러닝' 기술이 적용된 로봇으로 가동되는 설비가 배치돼 있다. 그리고 설비 사이사이를 무인운반차(AGV) 170여대가 돌아다니며 필요한 자재와 부품들을 자동으로 공급하고 있었다.

LG전자의 테네시 공장은 2018년 1월 미국 가전사인 월풀이 삼성과 LG 전자에 급격하게 시장 점유율을 빼앗기자 트럼프 1기 행정부가 한국산 수입세탁기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데 대한 대응 성격으로 가동됐다.

이후 국내 업체들은 품질 경쟁력을 앞세워 지난해 2월 종료된 세이프가드 기간 동안 오히려 미국 내 점유율, 총매출, 고용 인원, 급여 등 주요 성과지표를 개선했다.

LG전자 테네시 공장의 손창우 법인장은 "통상 이슈가 생겨 또 다른 생산지를 마련해야 한다면 냉장고, TV 등 다른 제품도 이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장 법인장은 "최근 전기차가 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고 있지만, (전기차)침투율이 낮은 북미 시장은 장기적인 성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얼티엄셀즈 공장에서 북쪽으로 140km 떨어진 클라크스빌에서는 LG화학이 7만6000㎡의 부지에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양극재 공장을 짓고 있다.

LG화학은 이 공장에서 2026년 양산을 시작해 2028년부터 고성능 배

터리 60만대 생산에 필요한 6만톤의 NCM(니켈·코발트·망간) 양극재를 생산할 계획이다.

미국 내 최대 규모다. 이 공장은 인공지능(AI)이 접목된 스마트팩토리 기술이 활용되고 있다. 또 환경규제에 대비해 처음부터 100% 재생에너지로 공장을 가동할 계획이다.

LG화학 관계자는 테네시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집중한 배경에 대해

"테네시는 조지아, 앨라배마 등 글로벌 완성차 회사가 위치한 8개 주와 경계를 맞대고 있는 완성차 생산의 요충지"라며 "LG는 GM 외에도 글로벌 10대 완성차 업체 8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가 구축하고 있는 '배터리 벨트' 현장에서 다시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자 'LG 하이웨이'란 표지판이 나왔다. 테네시주 정부가 붙여준 5.5km

"아시아나 합병 10월 승인 예상"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대한항공 대표이사·사진)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조 회장은 2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한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오는 10월 말까지 미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기업결합의 마지막 관문으로 미국 경쟁 당국의 심사를 남겨놓고 있다.

당초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까지 미국의 심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 시기가 4달가량 밀린 것이다.

이는 미국 경쟁 당국이 기업결합의 전제로 진행 중인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부문 매각 상황 등



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심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라고 대한항공은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화물사업 매각 등의 선행 절차가 오는 10월까지 완전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요구한 모든 결 다 해 왔다"고 밝혔다.

미국 당국과 경쟁 제한성 해소 관련 조치에 관해 협의의를 이어가고 있다.

조 회장은 기업결합과 관련해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 매각 및 일부 장거리 여객 노선 조정 외에 더 이상의 양보는 필요하지 않다고 언급하면서 "우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요구한 모든 결 다 해 왔다"고 밝혔다.

음료·과자·아이스크림도 매운맛 인기

최근 매운맛 식품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3일 CNN에 따르면, 과자, 팝콘, 버거, 아이스크림, 음료까지 매운맛 제품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다.

매운맛 인기에 달고 매콤하단 뜻의 '스위시(스윗+스파이시)'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다.

시장조사기관 시카나에 따르면, 매운맛 식품의 매출은 지난 1년 동안 9% 증가했다. 주요 소비층은 25~34세다. 올 2월 코카콜라는 3년 만에 매운맛 코카콜라 '스파이시드'(사진)를 출시했다. 일반 콜라에 라즈베리 및 기타 향신료를 섞어 알싸한 맛을 강조



한 제품이다.

스타벅스도 지난 4월에 레모네이드 리프레셔에 칠리파우더를 첨가한 '스파이시 레모네이드 리프레셔' 3종을 한정 출시하기도 했다.

플레이밍 핫(매운맛) 과자를 생산하는 프리도레이 모회사 펍스코에 따르면 2023년 4억 명에 달하는 소비자가 플레이밍 핫 제품을 구입했다. 이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것이다.

네슬레USA도 스위시한 디지오르노 냉동 피자 핫 허니 크루아상 크리스트 피자 스파이시 나초 피자 등을 선보였다. 정하은 기자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형 자산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유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Nerve Control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세요.

소득 증가 정체에 보유 현금 바닥드러내

“소비지출 활력 잃어가는 중”
4월 임금 상승률 0.2% 불과
저축률 16개월 만에 최저치

놀라울 정도로 탄력적이었던 소비자 지출의 주요 동력들이 한꺼번에 힘을 잃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이 지난 1년간 소폭 상승하고,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쌓아뒀던 현금도 바닥을 드러내면서 저축률도 1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고용시장도 냉각되면서 4월 임금 상승률도 5개월 만에 가장 작은 상승 폭인 0.2% 오르는 데 그치면서 소비자들은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크레딧카드와 대출 등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 연방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4월 개인소비지출(PCE)이 전월 대비 0.2% 증가해 3월(0.7%)과 비교해 증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진 데다 최근 1분기 국내총생산(GDP) 추정치도 하향 조정되는 등



한 고객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로이터]

경제가 지난해의 깜짝 성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31일 글로벌회계법인 언스트앤드영(EY)의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 모델링 둔화는 계속해서 소득 성장을 제한하고 저축 감소와 부채 부담 증가 속에 소비를 자제하게 만들 것”이라며 “가격 민감도를 감안할 때 가계지출 모델링은 갈수록 냉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흐름은 최근 소비 강세로 인해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 통화정책이 예상했던 것만큼 경제를 억누르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쟁이 벌어지면서 당황했던 연준 인사들에게 안도감을 가져다줬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고착화로 연준이 고금리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경제가 마침내 둔화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도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기업 실적을 보면 소비자들이 재량소비재보다 생필품 위주로 소비하고 있으며, 고소득층마저 할인 상품을 찾으려는 월마트나 저가 할인점인 달러 제너럴의 매출이 증가했다. 이처럼 4월 소비지출 감소가 인플레이션 하락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는 동시에 경제 성장세가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연준과 시장은 오는 7일 연방 노동부가 발표하는 비농업부문 신규고용과 실업률 등 새 일자리 보고서가 향후 노동시장의 방향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돼 주목하고 있다.

씨티그룹의 앤드루 홀렌호스트와 베로나가 클라크 이코노미스트는 31일 PCE 보고서 발표 직후 “연준이 소비지출이 냉각되는 것으로 나타난 오늘 보고서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줄어든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것”이라며 “우리의 견해는 경제가 낙관적이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브리프

네이버웹툰, 나스닥 상장 준비

네이버웹툰이 나스닥 상장 절차에 착수했다. 1일 연방증권거래위원회(SEC)와 블룸버그 보도 등에 따르면 네이버웹툰의 본사이자 북미 소재 법인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31일 SEC에 기업공개(IPO)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증권신고서를 보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종목 코드 ‘WBNT’로 나스닥 상장을 신청했다.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JP모건, 에비코어가 주관사다. 발행 규모와 공모가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블룸버그는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기업가치는 30~40억 달러라고, 이번 상장으로 최대 5억 달러를 조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웹툰은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세로스크롤 방식으로 보는 온라인 만화다. 국내는 물론 북미, 일본, 유럽 등에서도 독자를 늘리고 있다.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억8270만 달러의 매출에 1억4480만 달러의 순손실을 냈다. EBITDA(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는 1170만 달러였다.

한국 아놀자, 현지법인 설립

나스닥 상장을 추진 중인 한국의 여가 플랫폼 기업인 아놀자가 국내에 현지 법인을 세웠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아놀자는 지난 2월 델라웨어주에 100% 출자법인 ‘아놀자 US LLC.’를 설립했다.

델라웨어는 기업 친화적인 회사법과 세제를 갖춰 많은 글로벌 기업이 본사를 두고 있는 곳이다. 뉴욕증시에 상장한 쿠팡 지주회사 쿠팡Inc도 델라웨어에 자리 잡고 있다. 업계는 이번 법인 설립으로 아놀자가 나스닥 상장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3월 아놀자는 북미 솔루션 사업 가속화를 위해 뉴욕 맨해튼에 ‘아놀자 US 오피스’를 오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아놀자는 2019년 싱가포르에 첫 해외 지사를 설립한 뒤 주요 거점 국가를 중심으로 현지 사무소를 확대해왔다. 아시아·유럽 등 27개국에 49개 해외 오피스를 운영 중으로, 뉴욕 맨해튼 지사를 포함하면 해외 지사가 총 50개로 늘어난다.

대형은행, 예상보다 상업용 부동산 노출 커

CRE 대출+리츠, 40%까지 ↑
위기 촉발 가능성 배제 못해

주요 대출기관이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새로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오픈 디지털 라이브러리 사회과학 연구 네트워크(SSRN)에 따르면 은행이 CRE 부문에 대한 간접 대출인 부동산 투자신탁(리츠, REITs)에도 신용을 제공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리츠는 CRE를 매입하고 운영하는 회사로, 오피스 투자를 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펀드를 판매한다.

이를 고려하면 CRE 대출에 대한 은행의 노출은 약 40%까지 증가한다.

최근 몇 년간 높은 금리와 수요 감소로 인해 시장의 부채 상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며 CRE의 시스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급격히 커졌다. 특히 지역은행이 CRE 대출의 최대 제공자라는 점에서 광범위한 부채가 은행 위기를 촉발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연구자들은 리츠 신용 한도와 기간 대출을 고려할 때 대형은행에도 이러한 우려가 적용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들은 “총체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CRE 리츠가 신용 한도를 집중적으로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출로 인한 대형은행의 담보 피해는 직접적인 CRE 노출로 인한 피해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리츠는 주로 부채에 의존하며 높은 이자율에 취약하다.

연구는 “이러한 투자 수단에 대한 상황 요청이 증가하면서 리츠가 은행에 더 많은 신용을 제공하도록 압박했다”며 “신용 한도는 다른 형태의 차입보다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위기가 닥칠 경우 대출 기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는 은행을 상당히 약화할



대형은행들이 상업용 부동산(CRE) 대출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중앙포토]

수 있으며 차입자로서 리츠의 고유한 특성을 무시하면 은행 시스템에 필요한 자본을 37%나 과소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식어가는 노동시장’에 비트코인 한때 7만1천달러도 넘어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4일 박스권을 벗어나 한때 7만1천 달러선을 회복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동부 시간 기준 이날 오후 2시 14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2.21% 오른 7만810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7만 달러선을 잠시 터치했다가 금방 하락했던 것과 달리 이날에는 7만 달러선에 안착하는 모습이다. 한때 7만 1천 달러선을 넘기도 했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6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



펀드(ETF) 상장을 승인할 당시 7만2천 달러선에 반짝 육박하기도 했지만, 최근 7만 달러 아래에 갇혀 있었다. 같은 시간 시총 2위 이더리움 가격은 1% 상

승한 3천817달러를 나타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미국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는 구인 규모가 4월 들어 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가 이날 공개한 구인·이직 보고서(JOLTS)에 따르면 4월 구인 건수는 805만9천건으로 전월 대비 29만6천건 줄었다. 이는 2021년 3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840만건)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날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연준

의 9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유럽중앙은행(ECB)이 이번 주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내릴 것이라는 전망도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ECB는 오는 6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정례 통화정책회의를 개최하는데, 시장은 ECB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는 “유럽중앙은행이 이번 주 금리를 내릴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금리인하로 유로화가 약해지고 유동성은 증가해 위험자산의 매력이크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 대원외교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4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입양, 가디언쉽
- 유언장, 상속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DAON GROUP LLC TAX & ACCOUNTING SERVICES

다운 회계법인



조동구 공인회계사
Eddie Cho, CPA

- 회계 업무
- 신규사업 등록
- 세무감사 대변
- 세무 보고
- Payroll Service

* Text, Fax, Email 로도 세금보고 접수를 받습니다.

VA Text / Phone : 703-637-2006
7535 Little River Tpke. #325B
Annandale, VA 22003

MD Text / Phone : 410-787-9077
8600 Snowden River Pkwy. #300
Columbia, MD 21045

Fax: 410-787-6686 Email: echo@daoncpas.com, eddiehocpa@gmail.com



VA 전화 TEXT: 703.593.9246
4115 Annandale Rd., Ste 301, Annandale, VA 22003

MD 전화 TEXT: 443.901.8693
3545 Ellicott Mills Dr., Ste 203, Ellicott City, MD 21043
mkim@prosperlawpllc.com

“트럼프에 징역 선고하면 권력남용”

공화 의원들, 판사 압박

공화당 일부 상원의원들이 유죄 판결에 따라 형량 선고를 앞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변호하고 사법부를 압박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혐의에 대해 지난달 30일 유죄 판결이 내려진 데 이어 뉴욕 맨해튼 지법 후안 마천 판사의 형량 선고 공판이 내달 11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자기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운동을 막는 판결을 내리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의회전문지 ‘더힐’에 따르면 상원 법사위원회의 존 코닌 의원(텍사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형 또는 가택 연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더 심한 권력 남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코닌 의원은 이어 “나는 ‘법원의 무기화’를 보는 것이 매우 괴롭다”며 “미국에는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법원 등 노골적인 당파적 정치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기관이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그것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테드 버드 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징역형이나 가택 연금형을 선고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며 중형 선고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하려는 미국인의 결의를 더 강하게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또 상원 법사위원인 톰 탈리스(노스캐롤라이나) 의원은 “비슷한 사건에서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들을 빨리 찾아내지 못한다면 징역형 선고는 브래그(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앨빈 브래그 맨해튼 지검장)의 정치적 결정이었다는 논란에 기름을 더 붓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방영된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자신이 수감 또는 가택 연금을 당하는 상황은 “대중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며 “한 계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있는데, 의원들이 바통을 이어받은 모양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톰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2016년 대선 직전에 당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결정됐다.

배심원단이 총 34건의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판결을 내렸기에 이론적으로는 각 혐의당 최대 4년의 징역형이 가능하지만, 법률 전문가들은 대부분 20년형 이상이 선고될 리는 없다고 본다. 그리고 동종 사건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가 드물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일부 뉴욕의 법률 전문가들은 마천 판사가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엄격하다는 평판을 받고 있다고 더힐은 소개했다.

한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루이지애나),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오하이오) 등 하원의 공화당 지도부는 입법부의 감독 권한을 활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검사들에 대해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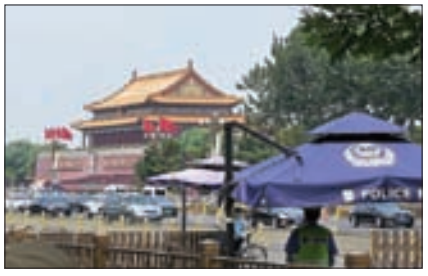
특히 조던 위원장은 브래그 검사장 등 트럼프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에게 의회 청문회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텐안먼사건 35주년에 “중국 인권침해에 대해 책임 물을 것”

미국은 중국 텐안먼 민주화 시위 35주년인 4일 “우리는 중국 안팎의 인권 침해와 관련해 중국에 책임을 묻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국제 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텐안먼 광장 학살의 35주년인 오늘 우리는 자유와 인권, 부패 척결을 위해 일어섰다가 잔인하게 공격당한 수만 명의 평화로운 친(親)민주 중국 시위대를 기억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신장, 티베트, 홍콩을



텐안먼 35주년, 텐안먼 성루 광장 출입 제한

비롯해 중국 전역에서 현재 침묵 당하고 있는 많은 목소리도 기린다”면서 “우리는 중국이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인정하고 존

중할 것을 촉구하는 용감한 텐안먼 시위대의 요구를 되풀이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중국이 자의적이고 부당하게 구금한 사람들을 무조건 석방하는 것을 포함해 올해 보편적 인권정책 검토(UPR)에서 제기된 많은 권고 사항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이 6월 4일의 기억을 억압하려는 시도에 맞서 미국은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위한 투쟁을 계속하려는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 공화당 사법당국 공세에 “근거없는 주장... 겁먹지 않아”

메릭 갈런드(사진) 법무장관은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비롯해 사법 절차에 대한 공화당의 지속된 비판 및 압박을 “극도로 위험한 행동”으로 강하게 규탄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 유죄 판결 이후 처음으로 의회에 출석한 갈런드 장관은 이날 하원 법사위에서 “나는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법무부도 겁먹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갈런드 장관은 “우리는 정치적 영향력에 무관하게 우리의 할 일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는 민주주의 수호에 있어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들은 성추문 입막음돈 의혹과 관련해 34개 혐의에 모두 유죄 결정을 내린 배심 판결을 조작된 재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모



두 4건의 형사 재판과 관련, 바이든 행정부가 사법부를 정치화하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마라라고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해 연방수사국(FBI)이 발포 준비를 마치고 있었다는 거짓 주장을 퍼트리는 상황이다.

공화당 하원은 이와 별도로 조 바이든 대통령의 특검 영상 제출 거부와 관련, 갈런드 장관을 의회 모독으로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갈런드 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행위는 “잘못되고 극도로 위험한 행위”라며 “일부 하원 의원들이 적법한 목적 없이 민감한 사법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의회 모독을 추진하

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뉴욕 재판과 관련, “주 재판의 배심원 판결을 연방 법무부가 통제하고 있다는 잘못된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음모론은 사법 절차 자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실’ 주장에 대해서도 “FBI의 법 집행과 관련해 극도로 위험하고 근거없는 잘못된 주장”이라며 “재판부에 제출된 문서는 수색과 관련해 요원들이 제공되는 표준 정책이며, 이는 심지어 바이든 대통령 사저 수색에도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공화당 소속인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은 청문회에서 “많은 미국인이 현재 우리 사법 시스템에는 이중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고 믿고 있다”며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것”이라고 말했다.

러 외무 “우크라이나 주둔 프랑스 교관도 합법적 표적”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파병된 프랑스군 교관도 러시아군의 합법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4일(현지시간) 경고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아프리카 순방 중인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콩고공화국에서 장-클로드 가코소 콩고 외무장관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프랑스군 일원이든 단순한 용병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명백히 우리 군의 합법적인 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교관 문제와 관련해 그들이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많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 외무장관과 장클로드 가코소 콩고 외무장관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군을 훈련하는 모든 교관은 프랑스인이든 아니든 면제받지 못할 것”이라며 프

랑스 교관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훈련 교관을 보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에 대해 논평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27일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프랑스군 교관의 우크라이나군 훈련소 방문을 허용하는 문서를 결재했다고 밝혔으나 이후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프랑스 및 기타 국가와 계속 논의 중”이라며 한발 물러섰다.



트럼프 지지연설하는 아빠 뒤에서 ‘메롱’ 존 로즈 미국 하원의원의 6살짜리 아들이 3일 아빠가 의회 연설을 하는 동안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장난치는 장면이 TV 중계 화면에 잡혔다. 트럼프 옹호 발언을 하는 심각한 아빠와 달리 시종 혀를 내밀고 익살스러운 퍼포먼스를 펼친 이 영상은 SNS를 타고 일파만파로 확산됐다. 로즈 의원은 자신의 SNS 계정에 “아들에게 동생을 위해 카메라를 보고 웃으라고 얘기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적었다. [AP=연합뉴스]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매칭,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RN 간호사 구함

이력서: carepeopleinfo@gmail.com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7/8 ~ 7/12 → 전화 예약 필수!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 버지니아와 남 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Centreville (Main Office)	Annandale (사랑방)	Annandale (V)	Richmond	Gaithersburg (MD)
				
14631 Route 29 (Lee Hwy) #401 Centreville, VA 20121	4306 Evergreen Ln. #104 Annandale, VA 22003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토요타 또 조작 스캔들 일본 경제 도미노 타격 입나

일 정부, 성능 시험 부정행위 적발
혼다·스즈키 등 4개사 조작도 확인
코롤라 등 6개 모델 생산·출하 금지
관련 일자리 550만개...“경제 부담”



일본 토요타자동차의 도요타 아키오 회장이 지난 3일 도쿄 본사에서 품질 인증 부정행위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세계 1위 완성차 기업 토요타자동차가 흔들리고 있다. 품질 인증과 관련한 대규모 부정이 발견되면서 일본 자동차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4일 아이치(愛知)현 토요타자동차 본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차량 양산에 필요한 품질 인증 취득을 위한 부정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사실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교통성은 지난 3일 토요타와 혼다·마쓰다·스즈키 등 5개 회사의 38개 차량 모델에 대한 성능 시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이들 5개 회사에서 현재 생산 중인 차량은 6개 모델이다.

토요타 크라운은 에어백을 타이머로 작동시키는 수법으로 충돌 시험 인

증을 통과했다. 렉서스의 렉서스RX는 엔진 출력 시험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했고, 보행자 보호 시험에선 허위 자료를 냈다. 국토교통성은 현재 생산 중인 차량에 대해 출하 중지를 지시했다. 토요타는 지난해 자회사에 이어 본사에서 인증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 도요다 아키오 회장은 지난 1월 말에 이어 4개월여 만에 또 한 번 90도로 머리

일본 인증 비리 차종·출하정지 모델

회사	차종수	출하정지 모델
토요타	7	코롤라필터, 코롤라시요, 아리스 크로스
마쓰다	5	로드스터 RF, 마쓰다2
아마하발동기	3	Y2F-R1 (이론차)
혼다	22	현행 차종 없음
스즈키	1	현행 차종 없음

숙여 사과했다. 완성차 업계는 토요타 특유의 효율 우선의 경영 방식이 데이터를 조작하는 부정 사고에 이른 원인으로 본다. 다른 수건도 쥐어짜는 비용 절감 경영으로 유명하다. 품질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원가를 절감해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에게 ‘가이젠(改善)’을 강조해 왔다.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

이라면 뭐든 하나라도 개선책을 내놓는 토요타식 제조 효율화다. 부품 재고를 쌓지 않고 필요한 만큼 그때그때 조달하는 ‘적시 생산’(Just in Time) 시스템도 효율 경영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 덕분에 토요타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2020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에 복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효율성 우선 문화는 품질을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나치게 짧은 개발 일정과 상사에게 무조건 복종하는 상명하복 문화와 결합하면서 데이터 조작이 본사와 자회사에서 폭넓게 일어났다는 분석이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선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자정 작용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아시아신문은 “현장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없었던 것이 이번 사건의 원인이었을 것”이라며 “일본 기업에 대한 신뢰가 최대 고비를 맞이했다”고 전했다.

이번 사태는 일본 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재무상은 기

사회권을 열고 잇따르는 자동차 회사들의 부정 문제에 대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우려를 표했다. 일본자동차공업회에 따르면 일본 제조업에서 자동차 산업 비중은 약 20%로, 관련 일자리만 550만 개 이상이다. 토요타와 거래하는 부품 회사는 3만9113곳으로, 거래 금액은 20조7138억 엔(약 181조원)에 이른다. 니혼게이치이신문은 “생산 및 출하 정지가 길어지면 완전한 회복을 이어가는 일본 경제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반복되는 인증 조작 사건으로 창업주 손자인 도요다 회장의 리더십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의회결론자문사인 ISS는 회장 연임에 반대를 권고했다. 또 다른 의회결론자문사인 글래스 루이스도 이사회가 독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연임에 반대할 것을 주주들에게 권고했다. 양대 의결권자문사가 한목소리로 도요다 회장 연임을 반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도쿄=김현에 특파원, 박영우 기자**

젠슨 황 “삼성 HBM 품질 인증 진행중... 테스트 아직 안 끝나”

대만 기자간담회서 사용 계획 밝혀
“삼성·SK·마이크론 모두 공급처”



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사진)가 4일 삼성전자의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자사 인공지능(AI) 반도체에 가능한 한 빨리 탑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타이베이 그랜드하이라이 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의 HBM 사용 계획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다.

황 CEO는 “SK하이닉스는 물론 마

삼성전자의 HBM이 성능 문제로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에서 떨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

도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만 “삼성과의 작업은 진행되고 있고 (테스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아직 엔비디아와 4세대 HBM3와 5세대 HBM3E 납품 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다.

황 CEO는 고향인 대만을 향한 애정을 아낌없이 드러냈다. “대만의 지정학적 위험이 신경 쓰이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대만에는 우리가 25년 넘게 협력해 왔던 TSMC를 비롯해 폭스콘·판타지아가이트 등 놀라운 기업들이 있다”

면서 “특히 TSMC와 엔비디아는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선 관계”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컴퓨텍스 개막식에서도 황 CEO는 대만의 AI 서버 제조사인 판타지아가이트의 전시 부스를 먼저 둘러봤다. 그는 “엔비디아는 대만의 공급망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협력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대만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도 밝혔다. 황 CEO는 전날 대만 매체들과의 별도 인터뷰에서 “5년 내로 대만에 대규모 연구개발·디자인(설계) 센터를 건

립해 최소 1000여 명의 엔지니어를 고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AI 시장에서 엔비디아와 경쟁 중인 테크 거물들은 ‘AI 하드웨어 제조의 중심’이 된 대만을 향해 구애에 나섰다. 팻 겔싱어 인텔 CEO는 전날 시내 한 호텔에서 대만 IT 업계 관계자들과 만찬을 했다. 대만 경제일보에 따르면 초청된 기업은 황 CEO가 부스를 방문한 판타지아가이트를 포함해 폭스콘의 모회사 훈하이, 아이폰 조립 업체 위스트론, 서버·PC 제조업체 인벤텍·에이수스·에이서·MSI 등이다. 대부분은 엔비디아의 주요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이다. **타이베이=이희권 기자, 심서현 기자**

R&D 예타 완전 폐지... 1000억 이상 사업만 사전 검토 받는다

국가연구개발사업 혁신안 의결

1000억 미만 R&D 일반 예산편성 사업 착수까지 2년 이상 단축할 듯

국가 예산 투입 이전에 경제성을 따져보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가 연구개발(R&D) 분야에서 폐지된다. 예타로 인해 의사결정 속도가 느려져 기술 개발과 연구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신 정부는 사업을 민간 전문가가 먼저 검토한 뒤 각 부처가 이를 토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체제로 바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 예타를 폐지하라”고 지시한 뒤 나온 후속 조치다.

예산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기획부서 사업 착수까지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인다. 구체적으로 1000억원 미만 모든 사업은 일반적인 예산 편성 과정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500억~1000억원 규모 신규 사업은 예타 폐지

정보보다 2년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검토 방향도 예타처럼 당락 결정이 아닌 기획 완성도를 높이는 방향이 될 거라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1000억원 이상의 연구형 R&D 사업은 ‘사전 전문검토’를 도입했다. 과학기술 이해도가 높은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해 사업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다.

연구시설 시설이나 위성, 우주 발사체 등 난도가 높은 체계개발사업은 두 단계에 걸쳐 심사한다. 심사 기간만 놓고 보면 1년 내로 마무리할 수 있어 예타 시행 때보다 의사결정 속도가 크게 빨

라질 수 있다. ‘기본계획심사’에선 사업 필요성을 검토하고, 실제 착수 여부와 예산 규모는 ‘추진계획심사’가 맡게 된다. 단순 연구 장비 도입, 공간 조성사업은 기본계획심사만 진행한다.

각 정부 부처는 매년 4월 말까지 R&D 우선순위를 자율적으로 정해 차년도 예산을 요구해야 한다. 부처마다 할당된 지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간 중요도 구분 없이 예산을 요구했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핵심은 부처의 자율성에 있다. 각 부처는 사업 기획이 무리되어야 예산을 요구하게 될 거고, (통과할) 자신 없으면 가지고 오

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학혁신본부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심의 단계부터 사업수행 건전성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사업 건전성이 미비한 문제 사업은 특정평가제도를 통해 진행 도중에 종료시키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예타 폐지는 과학계 숙원사업으로 꼽혀 왔다. 개발 속도와 창의성이 중요한 R&D 분야에서 경제성 기준을 간간하게 따지는 예타 제도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국가 미래 먹거리로 꼽히는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최첨단 기술에선 대규모 예산이 빠르게 투입돼야 하는데 예타 규정에 묶여 속도가 느려졌다는 지적이다. **김철웅 기자**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IRS 감사
세무상담
전문**

“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정승욱
연방세무사

김영선
연방세무사

부동산
최고의 권위!

대표 정희수
703.477.3114

현대 부동산

· 주택 매매(주거용, 투자용)
· 상업용 부동산 매매
· 법원 경매(Auction)

정성을 다하여 모십니다

- ★ 과거, 격주 수요일 AM 1310 기쁜소리방송 라디오 부동산 상담 (11:00am~11:30am)
- ★ 수년간 매주 토요일 WK-TV 부동산 하이웨이 진행함
- ★ 수많은 부동산 Seminar 개최

세리린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aquaviwater.com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1만 내시고 아쿠아비 정수기를 설치하세요!

건강한 물을 월 \$22에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1 첫 달

불만족시 30일 이내에 조건 없이 철회해 드립니다.

NO 디파짓·설치비·무상 필터교환·AS

*친구에게 추천해 주시면 비타민 샤워필터 3개(\$60 상당)를 드립니다 *

언더싱크형 정수기

미네랄수 \$22 월 (Tax 포함)

알칼리수 \$27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대리석 타공시 \$50 별도

냉·온 정수기

Refurbished

미네랄수 \$25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0 월 (Tax 포함)

NO 디파짓, 설치비, 등록비
*2년 의무 사용

New

미네랄수 \$28 월 (Tax 포함)

알칼리수 \$33 월 (Tax 포함)

등록비 \$50 별도
*3년 의무 사용



알칼리수

아쿠아비의 약알칼리 환원수 필터는 미네랄과 활성수소가 풍부한 물을 생성하여 노화 방지와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며 물맛이 좋습니다.

무료 설치
누구나 손쉬운 필터 교체
SAVE MONEY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49



미네랄수 \$179

알칼리수 \$219



미네랄수 \$199

알칼리수 \$239



미네랄수 \$279

알칼리수 \$319

아마존과 월마트 온라인에서 판매중 amazon Walmart

간편 설치 비타민 샤워필터



피부 미용을 위해
비타민으로
샤워하세요!
아토피, 녹물,
염소 제거에도
좋아요.

\$20

6,000여 가정, 사무실, 식당, 교회, 병원, 학교, 양로원, 데이케어 등에서 사용중

(Northside Hospital,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아틀란타 천주교회, 몽고메리 현대 중공업, 제주 사우나, 뉴저지 한인회, 뉴욕·뉴저지 전지역 파리바게트, 뉴욕중앙장로교회, 뉴욕 중앙일보 외)

AQUAVI
아쿠아비 정수기·공기청정기

워싱턴 디씨 (VA/MD)
571.677.2555
www.aquaviwater.com

뉴욕
뉴저지

201-258-3404 / 917-410-2030
776 Grand Ave., Ridgefield, NJ 07657

조지아
알라바마

404-496-6777
3741 Venture Dr., #310, Duluth, GA 30096

육·해·공 최전방 모든 훈련 재개... 이르면 이달 사격훈련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

MDL·서북도 일대 군사활동 복원

“지상 포병 사격은 곧바로 재개 가능”

대북 확성기는 추가 도발 때 재개

군 당국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이 ‘9·19 남북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안전을 재가함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의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전면 복원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당장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5km 내 육군의 포병 사격훈련과 서해북방한계선(NLL) 일대 서북도서해안포 사격훈련이 이르면 이달 중 재개될 전망이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9·19 군사합의의 전부 효력 정지 결정에 따라 그동안 제약받아 온 MDL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실장은 “북한은 지난해 11월 23일 9·19 군사합의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며 “북한은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



초소 진지 공사하는 북한군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를 의결한 4일 경기도 파주시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군인들이 초소 주변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군 당국은 MDL 5km 이내 공중 정찰, 일반전초(GOP)와 전투지역전단(FEBA) 등 최전방 지역을 아우르는 연대급 이상 부대 훈련과 포병 사격훈련, 서북도서 해상 사격훈련 등

을 진행키로 했다.

MDL 5km 이내에 위치해 그간 포병 사격훈련이 중단됐던 사격장은 육군 칠성사격장, 천미리사격장, 스토리사격장, 송지호사격장 등이다. 군 관계자는 “육군의 지상 포병 사격은 곧바로 재개가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해상에서는 그간 9·19 합의에 따라 서해와 동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

한 곳씩 지정됐던 함포 사격 공역으로의 사격이 중단됐지만, 앞으로는 가능해진다. 서해 접적 지역을 방어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는 6월 중·하순 해상 사격훈련을 계획 중이다. 서북도서에 배치된 해병대의 경우 그간 K-9 자주포 사격훈련을 위해 육상으로 자주포를 이동시켜 훈련했는데 이젠 현지에서 훈련할 수 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초 즉각 재개할 것으로 예상됐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 재개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든, 대북 전단 살포든 이제는 제약이 없고 방송은 언제든지 시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도 “(시기) 북의 상황에 따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고정식이든 이동식이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지시가 떨어지면 수시간 내에 바로 가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 김강일 국방성 부상은 지난 2일 담화에서 오물 풍선 살포의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남측에서 추가로 대북 전단을 살포할 경우 재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로선 남측 민간단체가 조만간 대북 전단 살포를 예고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북한의 대응을 지켜보면서 최종적으로 확성기 방송 재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군 당국은 아예 군 차원에서 대북 전단을 날려 보내는 심리전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이날 공개했다.

이관평·이유정 기자

IAEA “북강선 핵단지 별관 완공” 핵무기용 우라늄 증산 징후 포착

평양 남동쪽 외곽 비밀 핵시설

“영변 시설도 냉각수 배출 관측”

북한이 핵무기용 핵물질 생산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는 징후가 포착됐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정기이사회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월 말 시작된 강선단지의 별관 공사가 외

관상 완공된 모습”이라며 “시설 가용 면적이 크게 확장됐다”고 밝혔다.

그로시 총장이 언급한 강선단지는 북한 평양 남동쪽 외곽에 있는 비밀 핵시설이다. 그간 한·미 당국은 북한이 이곳에서 우라늄을 농축해 핵무기용 핵물질을 생산한 것으로 파악하고 추적·감시해 왔다.

이날 그로시 총장도 “강선단지는 영

변 우라늄 농축시설과 기반시설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에 따르면 강선단지에는 원심분리기 수천대가 있어 상당량의 핵무기급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상황에서 별관이 가동될 경우 핵물질 생산량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

단 우려가 나온다.

그로시 총장은 이와는 별도로 영변 핵시설에서도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영변 핵시설에선 실험용 경수로(LWR) 가동 정황을 보여주는 간헐적인 냉각수 배출이 관측되고 있고, 5MW급 원자로 및 원심분리기 농축 시설의 가동 징후도 지속해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 생산 확대”를 올해 주요 국방 목표로 제시한 만큼 북한이 핵무기용 핵물질 증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특별한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진 기자

전기차 호조로 한국차 실적 반등

3사 5월 판매보고서 발표

한국차가 전기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실적 반등에 성공했다.

지난 1일 발표된 한국차 3개 브랜드의 5월 판매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총 15만9558대를 판매해 전년 동기보다 8.5% 성장을 기록했다.

지난해 합산 165만여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던 한국차는 올해 들어 일본, 미국 브랜드의 인벤토리 회복으로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지난 2월을 제외하고 4월까지 3개월간 판매 감소세를 보였다.

3개 브랜드 모두 전기차를 포함한 전

환경 모델의 판매 증가가 두드러졌는데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무이자 판매, 7500달러 리스 캐시 등 공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것이 주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기차 판매가 42% 늘어난 현대차는 총 7만8485대를 판매하며 전년 동월보다 12.1% 증가한 덕분에 5개월 누적 판매에서도 전년보다 2% 늘었다.

모델별로는 아이오닉5와 쏠타페 하이브리드(HEV)가 각각 82%, 116% 급증하면서 역대 월간 판매 기록을 수립한 것을 비롯해 아이오닉6(+13%), 투싼 HEV(+54%), 팔리세이드(+45%), 쏘타



현대자동차의 대표적인 전기차 아이오닉5

크루즈(+2%) 등도 역대 5월 판매기록을 경신했다.

기아도 전기차 및 전체 판매의 80%를 차지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호조를 보여 총 7만5156대를 판매, 전년 동기보다 5.1% 증가하며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간 이어진 마이너스 성장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호평 속에 각종 어워드를 휩쓸고 있는 3월 전기 SUV EV9이 전월대비

39% 증가하며 월간 판매 신기록을 수립했다. 전체 전기차 판매도 총 7197대로 전년보다 127% 급증하며 역대 월간 최고 판매기록을 달성했다.

전 모델 가운데 가장 많이 판매된 스포티지도 역대 최고 월간 판매 기록을 경신했으며 텔루라이드와 카니발, EV6도 역대 5월 최고 판매기록을 세웠다.

기아미국판매법인도 지난달 30일부터 기아 조지아공장에서 EV9 현지 생산이 시작됨에 따라 판매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7개월 연속 전년 대비 성장세를 기록하다 지난달 주춤했던 제네시스 역시 전기차 판매 호조로 전년 동월보다 5.6%가 늘어난 5917대를 판매하며 역

대 5월 최고 실적을 일궈냈다.

특히 GV70EV가 전년 대비 291% 신장을 기록하는 등 전기차 판매량이 전체 판매의 17%에 해당하는 1005대를 나타내며 전기차 역대 월간 최고 판매 기록을 수립했다.

한편 북미 도요타는 지난달 총 21만 661대를 판매해 전년보다 15.7%가 증가했다. 혼다는 HEV 모델 판매 호조 덕분에 총 12만7129대를 판매해 전년 대비 11%가 증가했으나 렉서리 브랜드 애큐라는 1만2741대로 7% 감소했다.

스바루도 5만8356대로 전년 대비 7% 판매 신장을 기록하며 22개월 연속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마쓰다는 6.9% 증가한 3만5562대를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남희 기자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탑 프로듀서
▶ 질로우 프리미어 에이전트
▶ Top 15% Nationwide Agent by Homesnap

리스버그 싱글홈

\$1,110,000

방5, 화5, 차고2
5289 Sf
잘 관리한 집

레스틴 콘도

\$426,000

방2, 화2, 1076 Sf
굿 로케이션
넉넉한 주차공간

로턴 타운홈

\$580,000

방3, 화3.5, 차고1, End Unit
Walk Out, 1층 전체 마루
굿 로케이션

"고급가구 Moving Sale 합니다! 관심 있으신분 연락 바랍니다."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l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셔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교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and VA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VA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

전공의 사직 허용... 병원 돌아오면 이탈 책임 안묻는다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전문의 취득 지원 등 구제안도 검토

정부가 전공의와 수련 병원에 내렸던 행정명령을 철회해 전공의 사직서 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행정 처분을 내리지 않고 전문의 시험도 문제없이 치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넉 달 가까이 이어진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해 정부가 기존 기계적 법적 적용 원칙을 깨고 결단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4일 오후 ‘의료개혁 관련 현안’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는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설명하며, “각 병원장은 전공의 개별 의사



정부가 전공의와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업무개시 명령, 사직 금지 명령 등을 철회한 4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를 확인해 전공의들이 복귀하도록 상담,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을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연속 수련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중단’이란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복귀하면 처분을 내리지 않겠다는 의미다. 일부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려는 의

도로 풀이된다.

전문의 취득 구제책도 내놨다. 정부는 규정을 바꿔 수련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단 전문의 시험을 예정대로 치르고 나머지 수련 기간을 채우도록 하거나 추후 전문의 시험을 한 번 더 치를 수 있게 하는 등 구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복귀하면 장애를 없애주겠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고 했다. 미복귀 전공의는 정부가 제시한 행정 처분 중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규홍 장관은 “행정 처분이 아니더라도 수련 기회 제한 등(의 조치로) 복귀자와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 병원 운영, 수련 환경 전면 개편 등을 재차 약속했다. 조규홍 장관은 “제대로 수련받을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태 초기부터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를 강조해 온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은 최후의 복귀 호소이자, 진료 공백이 더 장기화해선 안 된다는 의료계 안팎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선 사실상 2025년도 의대 정원이 확정된 만큼, 정부가 수습 차원에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해 왔다. 의료계에선 사직서 수리 절차를 개시하면 3~4년 차 고연차는 최대 절반 정도, 저연차도 10%가량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의명을 원한 의료계 관계자는 “내과·산부인과·외과·소아과 등 필수과 전공의를 빼고 거의 다 들어올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복귀 시 처분 우려 때문에 민감했는데 정부가 처분을 중단한 다 했으니 한발 물러서 양보한 것”이라며 “병원장들이 적극 설득해서 수습할 시기”라고 했다.

정부가 퇴로를 열었지만, 의료계에선 총과업 카드를 여전히 놓지 않고 있다. 이날 오후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는 총회를 열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을 제외한 진료를 전면 중단하는 집단휴진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부터 7일까지 사흘간 14만 전체 의사의 의견을 듣는 투표를 한 뒤 9일 전국대표자회의를 열고 추가 대응 방안을 확정한다.

황수연 기자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 출범... 윤 대통령 “동반성장하자”

아프리카 48개국과 공동선언
공적개발원조 100억 달러로 확대
“아프리카와 역대 최대 외교 성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한국과 아프리카가 출범시키는 ‘핵심광물 대화’는 호혜적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안정을 꾀하면서 전 세계 광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하는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공동 주재한 뒤 이같은 내용의 공동언론발표를 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4개 국제기구 대표는 이날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한·아프리카 핵심광물 대화’를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전기차와 배터리, 신재생 에너지 등 미래 산업 발전을 위한 광물 자원의 중요성이 커지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행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국이 첨단 산업 분야 선도국이고, 아프리카가 핵심광물 보유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이라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 후 아프리카연합(AU) 의장인 모하메드 울드 셰이크 엘 가즈아니 모리타니아 대통령과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아프리카 48개국과 ‘핵심광물 대화’ 출범에 합의했다. [사진 대통령실]

고 말했다. 양측은 ‘동반성장’ ‘지속가능성’ ‘연대’를 협력 강화의 3대 축으로 제시했다.

동반성장 분야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무역투자촉진협약(TIPF) 체결을 통해 호혜적 교역과 투자 협력을 더욱 확대해 동반 성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중

과세방지 협정(DTAA), 투자보장협정(IPA)과 같은 경제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AfCFTA) 이행도 지원하기로 했다.

지속가능성 분야에서는 글로벌 과제에 대한 공동 해법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토지·산림 보호

와 해양 보전 및 생물다양성 보존 ▶아

프리카 수요에 부응하는 기후 금융구조 구축 등이 협력 강화의 대표적 과제로 제시됐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아프리카가 당면한 식량안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K라이스벨트와 같은 식량자급자족 역량 강화 사업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대 분야의 핵심은 평화·안보 협력, 인적교류 활성화다. 한국은 2030년

까지 아프리카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를 100억 달러까지 늘리고 140억 달러 규모의 수출 금융을 통해 한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또, 한·아프리카 경제협력장관회의(KOAFEC)와 농업 장관 회의를 강화하고 관세·통계 분야 등의 고위급 협의체를 구축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참석자들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사회의 모든 일원이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공동언론발표에 앞서 윤 대통령은 회의장 내 별도 공간에서 케냐·마다가스카르·라이베리아·가나 등 4개국 정상과 각각 양자 회담을 가졌다.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아프리카 국가 간 조약·협정 12건과 양해각서(MOU) 34건이 체결됐다.

핵심광물협력 MOU 2건, 무역투자 촉진프레임워크(TIPF) 6건, 인프라·모빌리티 협력 MOU 3건 등이 체결됐고, 경제동반자협정(EPA) 2건에 대한 협상 개시 선언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아프리카 국가를 상대로 거둔 역대 최대 외교 성과”라고 설명했다. 현일훈 기자

은퇴플랜 / 롱텀케어

은퇴 플랜에서 가장 중요한 두가지 요소: 평생 연금수입과 롱텀케어 보험

60세
\$194,055
Day1

3% 복리인상

85세
\$406,309
25년후

- 월 보험료 - \$316
- 불입기간 - Only 15년
- 사망보상금 보장

Ex)현 60세 남성 - Cash Indemnity 방식 (매월 은행 계좌로 정기간호 비용이 입금)

유니티 보험

상담 예약 및 문의 Tel: 703-200-1412

“나에게 꼭 맞는 플랜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편안한 은퇴를 하는 방법입니다.”

앤디킴의 재정USA
유튜브 채널
SCAN ME



앤디킴

VA Lic# 639047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희스프링 아동가족상담소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상담진료분야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VA 자격증 소유한
심리 치료사 구함 이종언/자 환영

예약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페어팩스시티 도서관 맞은편

3915 Old Lee Hwy,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703-259-5617, 410-241-2520

‘공천 쥐려 당헌개정’ 논란에, 이재명 직접 나서 “고민 많았다”

(2026년 지방선거)

‘대선 1년전 대표 사퇴’ 수정 추진에 당 지도부 “개헌·탄핵 염두에 둔 것”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당내 중진을 대상으로 당헌·당규 개정안 논란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향후 대선 변수가 거론됐다. 대표직 연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이 대표의 다음 임기, 그리고 21대 대선 일정을 둘러싼 여러 시나리오가 제1 야당의 당헌·당규 개정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3일 중진 의원들과 잇따라 오찬·만찬을 했는데, 최근 발표한 당헌·당규 개정안 중 ‘당 지도부가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즉 ‘대선 1년 전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예외를 두기로 한 부분에 대한 대화가 주로 오갔다고 한다.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연임하고 나서 지방선거(2026년 6월) 공천권까지 행사하려고 당헌을 고치는 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당헌·당규 개정 TF 단장인 장경태 최고위원이 ‘대선 1년 전 사퇴’ 규정에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덧붙이는 데 대해 “헌법 개정으로 인한 대통령 임기 단축 및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7년 3월이 아닌 2026년 등에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 대표가 연임 시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당헌을 개정한다는 논리였다.

한 참석자는 5일 통화에서 “지방선거 공천권이 아니라 탄핵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하에 (당헌 개정을) 한다면 어느 정도 납득이 됐다”고 전했다.

이 대표 역시 당헌·당규 개정안에 “고민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특히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뒤 강성당원의 반발을 언급하며 “이들을 탈당하지 않게 해야 하고, 당원이 힘 있게 밀어줘야 지방선거도, 대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당헌·당규 개정안엔 ▶국회의장 후보, 원내대표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20% 반영 ▶부정부패 행위 기소 당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 FC 뇌물'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 직무 자동 정지 조항 삭제 등이 대표의 강성 팬덤 ‘개팔’의 요구사항이 대거 담겼다.

다만 이런 지도부의 해명에도 당내 의구심은 여전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탄핵과 같은 격변 상황이 닥치면 당헌 위반 등을 논할 수 있겠나. 무조건 이 대표가 출마해야 한다는 주장이 터져 나올 것”이라며 “조기 대

선을 구실로 이 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도 온전히 쥐겠다는 뜻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그간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같은 별도 상황을 염두에 두고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한 게 아니라고 강조해 왔다. 장 최고위원은 지난달 30일 의원총회 후 개정에 조기 대선을 고려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 탄핵과 같은 별도 상황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헌·당규에 이를 적시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예외조항 신설을 두고 당 안팎에서 ‘이재명 사당화’라는 지적이 나오자 중진 의원들 앞에선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다. 당 관계자는 “당헌을 개정하는 명분이 공색하니 대통령 탄핵 가능성에 올라탄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미 민주당은 22대 개원과 동시에 각종 특검법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탄핵의 필요성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탄핵 열차 기적 소리가 울리고 있다”(정청래 의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를 보고 저는 ‘당장 탄핵하자’고 먼저 치고 나갈 것”(양문석 의원)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민주당은 오직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정당으로 변질했다”며 “탄핵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당헌을 고친다니, 실제 탄핵 분위기를 만들어 이 대표의 재판이 종료되기 전 대선을 치르려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김보현·김정재·전민구 기자

‘법 왜곡죄’ 만드는 민주당... 판결 마음에 안들면 판사 고발 가능

이화영 대북송금 선고 사흘 앞 추진 ‘술판회유’ 꺼내며 검경 무고죄 예고 여당 “이재명 방탄 위한 입법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과 법원을 겨냥한 ‘수사기관 무고죄’와 ‘법 왜곡죄’를 신설하겠다고 나섰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선고를 사흘 앞둔 시점이다.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이 만들어 4일 공동발의 서명 절차에 들어간 형법 개정안엔 수사기관이 사건을 조작한 경우 수사기

관 무고죄로 처벌하는 내용(제156조의 2 신설)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검찰과 경찰이 행한 수사내용을 보면 증거 조작은 물론 위증 강요도 손쉽게 발견할 수 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인 사례로 자신이 변호인으로 참여했던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과 이화영(사진)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 술자리 회유’ 의혹 후 건을 적시했다. ‘술판 회유’ 의혹은 ‘쌍방울 대북송금의

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이 전 부지사와 술자리를 갖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고 한 진술을 그의 변호인이 “술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술을 안 마셨다”고 뒤집고, 술을 마셨다는 장소도 “1313호 검사실 맞은편 창고”에서 “영상녹화실”로, 일기도 “작년 6월 30일 직후”에서 “6월 28일, 7월 3일, 7월 5일” 등으로 뒤바뀌면서 애초 주장의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또 법관이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건 당사자를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들면 ‘법 왜곡죄’(제123조의2)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또 다른 형법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이 지난해 1월 당론 지정을 검토했던 법안으로, 이대로 입법화하면 피의자가 재판에 불복해 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이 대표를 문제 삼는 판검사는 모조리 처벌하겠다는 ‘방탄 입법’ 폭주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전날 발의한 쌍방울 대북

송금 특검법을 두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특검법에 담긴 ‘수사 기간내 특검에 범죄를 자수·자백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제24조)는 조항에 대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폴리바게닝(위조 협상)을 허용하지 않는 현 사법체제와 충돌할 뿐 아니라 지나친 특혜까지 주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모두 중지되고 진행 중인 재판도 막대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정재 기자

한동훈 견제하려다 비운 모일라... 친윤 ‘당권 롤 개정 딜레마’

국민의힘 당헌·당규 개정 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첫 회의를 열고 ‘당원투표 100%’인 현행 당 대표 선출 규정을 고치기로 가닥을 잡았다. 특위 관계자는 “위원 다수가 ‘당심 대 민심’ 비중을 7대3, 또는 5대5로 하자는 의견을 냈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은 지난해 3·8 전 당대회를 앞두고 ‘김·장 연대’로 대표된 친윤계가 상대적으로 여론조사 지지율이 낮던 김기현 의원을 대표로 선출하기 위한 의도로 밀어붙인 결과였다.

나경원·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 등 잠재적 당권 주자들도 민심 반영에 긍정적이다. 다만, 이에 소극적인 친윤계 등 당 일각의 반발 가능성은 변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특위 논의와 별개로 기존 당원투표 100%를 비롯해 당심 대 민심 비중을 8대2, 7대3, 5대5로 하는 방안 등 총 네 가지 안에 대한 당 의원의 의견을 수렴해 특위에 전달할 계획이다.

지도체제 변경 여부도 핵심 사안이

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등은 흥행을 위해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잠재적 당권 주자 중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경우 다른 도전자 지레 출마를 포기할까 염려하는 것이다. 단일지도체제는 전당대회 1위가 당 대표를 맡고 나머지는 탈락하는 승자 독식 구조인 반면, 집단지도체제는 1위가 당 대표를 맡고 차점자들이

최고위원을 맡는 형식이다. 이 경우 1등을 하지 못해도 지도부에 입성할 수 있어 당내 중량급 인사가 대거 당권에 도전할 길을 열어주는 효과가 있다.

친윤계도 한 전 위원장이 당권을 차지할 경우 견제 카드로 집단지도체제 전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친윤계 인사를 최고위에 합류시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사이의 완충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친윤 인사 중 중량급 인사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 변수다. 외려 친윤계는 유승민 전 의원 등에게 지도부 입성의 길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친윤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누군가를 견제하기 위해 집단지도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 가자, 이렇게 들리는 순간 우리 제도는 형해화한다”며 지도체제 변경에 반대 목소리를 냈다.

특위는 지도체제 전환 여부도 검토한다. 또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한 논의 가능성도 열어놨다. 다만, 이 문제가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실제 개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김기정 기자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6월 HOT 리스팀

집 팔기 딱 좋은 계절이 왔습니다.

믿을 만한 부동산을 찾으십니까?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수리하시고 싶으신가요? 집값은 최고로 받고, 빨리 팔고 싶으신가요? 비키리 부동산에 지금 당장 전화!! Tel: 703.231.5572

 센터빌 타운홈 방3+화2/2+차고2 2004년집, 넓고 환한 엔드유닛 \$65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2+차고2 H마트 부근 \$560,000	 센터빌 타운홈 방3+화3,5 2,184sqft, 2000년 \$730,000	 센터빌 콘도 방2+화2+차고1 1,270sqft, 2002년 콘도비 \$463 \$430,000
---	--	---	---

힘든 세입자나, 밀린 렌트비로 고민중이시면 연락주세요.

부동산 매매, 임대주택 리스팀, 임대주택 관리

꼭,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부동산과 상의해 주십시오!!

전화 문자 703-231-5572

비키리 브로커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미국 이민법 전문

성공률 최고
만족도 최고
실력 최고

김웅용 변호사

미국 이민

이제 이민법 전문 김웅용 변호사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시민권 / 영주권

- 가족초청이민 - 종교이민 - 간호사(RN)
- 취업이민 - 투자이민 (EB-5) - NIW

비 이민비자

- 학생비자 (F-1) - 단기취업비자 (H-1B) - 종교비자 (R)
- 투자비자 (E-2) - 기타 조기 유학생 및 신분 변경



Joy Law Group, PLLC.

www.joylawgroup.com

703-246-9100 |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 3863 Plaza Drive, Fairfax, VA 22030

646-256-9156 (Kor) | 212-739-0843 (Eng)

17 State St., Suite 4000 New York, NY 10004

“30년전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저항 극심…YS 결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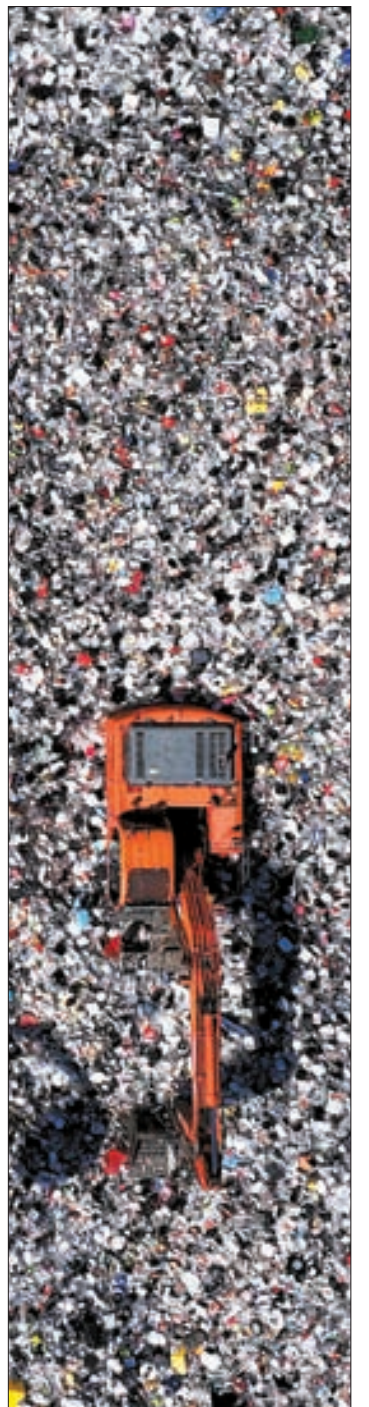
1994년 12월 전국적으로 쓰레기 버리기 대소동이 벌어졌다. 이듬해(1995년) 1월 1일 ‘쓰레기 종량제’(정책명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전국 시행을 앞두고서다. 버리는 만큼 돈을 내야 하자 전국이 쓰레기 무단투기로 몸살을 앓았다. 하지만 정책 시행 30년이 된 현재 종량제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공적인 환경 정책이다. 일본·대만도 이를 본떠 제도를 개선 또는 도입했다. ‘환경의 날’(6월 5일)을 앞두고 종량제 도입의 주역인 심재곤(사진) 환경인포럼 대표를 만났다. 당시 환경처 폐기물정책과장이었던 그는 “사생 결단으로 정책을 추진했

는데, 쓰레기 집하장에 득실대던 바퀴벌레나 쥐를 보기 어려울 만큼 환경이 개선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1990년대 초 쓰레기 문제는 심각했다.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연간 778kg(1991년 기준)이었다. 매립지와 소각장 부족은 만성 사회 문제였다. 종량제 도입 필요성이 나온 배경이다. 심 대표는 “당시 가구당 폐기물 수수료가 있었는데, 이를 내면 쓰레기를 마음껏 버릴 수 있어 정책 변화가 필요했다”며 “가정과 기업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어 정치적 부담이 큰 정책이었다”고 돌아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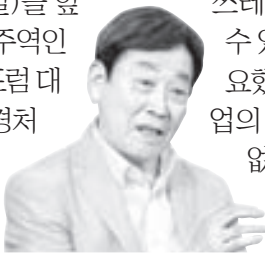
특히 내부(환경처) 반대가 극심했다. “잘 안 되면 어떻게 책 임질 거냐”는 말까지 나왔다. 여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시민단체는 “수수료만 올리고 또 다른 봉투 쓰레기를 양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환경운동연합 최열 사무국장(현 환경재단 이사장) 등 일부 환경단체와 학계 등의 “배출량에 비례하지 않으면 수수료는 올려도 소용없다”는 종량제 필요성 주장이 확산을 줬다. 심 대표는 “폐기물 업자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을 정도로 저항이 컸다”고 회상했다. 정책 시행의 결정적 배경은 김영삼(YS) 당시 대통령의 결단이었다. 심 대표는 사표를 안주머니에 품은

채 박윤환 당시 환경처 장관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을 설득해 장관의 대통령 면담을 추진했다. 그는 “당시는 생소했던 영상 슬라이드 보고를 준비했다”며 “YS께서 ‘이건 해야 하는 일’이라며 내무부(현 행정안전부)에 환경처를 도우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YS는 정책 재가로 그치지 않고, 종량제 시행에 맞춰 환경처를 환경부로 승격시켰다. 종량제 도입 과정에서 시민 혼란과 불편도 있었다. 폐기물 비용 부담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심 대표는 “시범 지구에서 먼저 성과를 확인하고, 시민 사회와 언론이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러면 사

회 분위기가 바뀌고 정책 수용성이 올라간다”고 강조했다. 한국보다 먼저 종량제를 실시했던 일본이 오히려 한국을 보고 배웠다. 심 대표는 “1999년 아사히TV에서 한국의 종량제 정책을 배우겠다고 찾아왔다”며 “마을 단위로 일본은 보도 이후 한국처럼 가구 단위로 제도를 바꿨다”고 전했다. 종량제 시행 후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은 연간 350~380kg 수준으로 줄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거치며 일회용품 등의 소비가 늘면서 446kg(2022년)으로 반등했다. 심 대표는 “종량제 시행 30년이 지난 만큼, 쓰레기 정책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오늘 환경의 날 ‘환경의 날’을 하루 앞둔 4일 수원시 자원순환센터에서 굴착기가 플라스틱 쓰레기 위에서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 담은 불교미술, 6만명 발길

4일 오전 10시 경기도 용인시 호암미술관 정문 앞에는 개관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들 중에는 승복을 입은 승려들도 보였다. 동아시아의 불교 미술을 조망하는 기획전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을 보기 위해 찾아온 이들이었다. 이번 기획전은 ‘여성’을 주제로 한국·일본·중국의 불교 미술을 조명한 세계 최초의 전시다. 지난 3월 27일 개막 이후 누적 6만여 명이 다녀갔다. 미술계에선 “어쩌면 우리 생애 한 번밖에

없을 특별한 기획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매번 다른 일행과 함께 다섯 번이나 전시회를 찾은 정도로 남다른 애정을 쏟았다고 한다. 전시관 안으로 들어서니 몽환적인 조형 아래 ‘백제의 미소’로 불리는 ‘금동 관음보살입상’이 눈에 띄었다. 높이 27cm의 이 불상은, 한국 미술사의 걸작으로 평가받는다. 국내에선 이번 기획전을 통해 일반에 최초로 공개됐다. 은은한 미소를 짓고 있는 금동 보살상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부드러운 곡선미가 돋보였다.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고서화 ‘수월 관음보살도’도 눈에 띄었다. 작품 보존을 위해 미국에서도 좀체 전시에 잘 나오지 않는 작품이다. 삼성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던 ‘감지금니 묘법연화경 권 1-7’ ‘아미타여래삼존도’ ‘아미타여래도’ ‘석가여래설법도’도 이번 기획전에서 일반 관람객들에게 최초 공개됐다. 호암미술관은 5년에 걸쳐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불교 미술 걸작품 92점을 모았는데 이중 47점은 한국에서 처음 공개되는 작



경기도 용인 호암미술관 ‘진흙에 물들지 않는 연꽃처럼’ 기획전에 전시된 백제 금동 관음보살입상.

품이다. 이번 기획전은 오는 16일 폐막을 앞두고 있다. 이번 기획전에는 삼성가(家)의 ‘문화 내리사랑’이 녹아 있다. 호암미술관은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회장이 30여년간 수집한

문화재 등 미술품 1167점을 기증해 세운 곳이다. 1982년 개관 당시 이 창업회장은 “문화재를 모으는 데 정성을 기울인 것은 그것이 민족문화의 유산을 지키고 민족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일조가 되리라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고 이병철 삼성 선대회장도 ‘큰돈을 들여서라도 최고의 작품을 사야 한다’는 신조로 예술가들의 작품 수집에 아낌없이 투자한 것으로 유명하다. 이재용 회장도 선대의 문화예술 철학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2021년 부친인 이 선대회장이 평생 모은 개인 소장품 2만3000여 점을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중앙박물관 등에 기증했다. 최현주 기자

“주인의식 강조한 동학, 항일운동 뿌리”

소설 『등대』 펴낸 김민환 교수
1909년 완도 ‘등대습격사건’ 바탕
“우리가 제국주의와 본격적으로 부딪힌 것이 개항이 시작된 1876년입니다. 이때 지식인들은 개화를 주장했고 민중세력은 반제국주의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핵심 세력이 동학도였죠. 우리나라가 근대로 가는 길목에 동학이 있었던 겁니다.” (김민환 고려대 명예교수)
최근 출간된 장편소설 『등대』(솔출판사)는 1894년에 동학 농민전쟁이 실패로 돌아간 이후 1910년 일제에 의한 국권침탈까지 십여년에 걸친 난세를



동학의 항일운동을 소재로 한 세번째 소설 『등대』를 출간한 김민환 교수. 권혁재 기자

파헤친 역사 소설이다. 구체적으로는 1909년 전남 완도군 좌지도에서 벌어진 등대 습격 사건을 바탕으로 했다. 일본이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 좌지도에 세

운 등대를 동학 신도들이 파괴하고 일본인 등대장을 죽인 사건이다. ‘등대 습격’을 계기로 인근 소안도에서는 항일 운동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당시 6000여 명의 주민 중 광복 후 서훈을 받은 독립 유공자가 22명 나왔고, 일제의 조선총독부에 의해 ‘불령선인’(식민 지배에 반대하는 조선인)으로 지목돼 감시를 받은 주민은 800명이나 됐다. 도대체 이 외딴 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 걸까. 지난달 28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사옥에서 저자 김민환(79)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났다. 늦깎이 소설가인 그는 2013년 장편소설 『담징』으로 오랜 시간 묵혀둔 문인의 꿈을 이뤘다. 장편 『

큰 새는 바람을 거슬러 난다』로 2021년 이병주 국제문학상, 노근리 평화상 문학상을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담. -등대 습격 사건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정년퇴직을 하고 전남 보길도에 내려가 살았다. 보길도는 전라남도 완도군 소안면에서 소안도, 좌지도(현재 당사도) 등과 함께 군도를 이루는 섬이다. 이곳 섬 소안도에 우연히 들렀다가 그곳이 우리나라 항일 운동 3대 성지 중 하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 작고 외딴 섬에서 어떻게 항일 운동이 그토록 격렬하게 일어났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역사를 공부하다 등대 습격 사건을 알게 됐다. 지금 생각해 보면 보길도에

터를 잡은 것이 운명으로 느껴진다. -왜 지금 동학에 주목해야 하나. 농민이 주도한 사회 혁명 중에서 동학의 ‘인내전’, ‘개벽 사상’ 같은 완성도 높은 이데올로기를 갖춘 사례가 세계 어디에도 없다. 당시 가톨릭도 모두가 평등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평등사상을 설파했지만 어디까지나 인간을 ‘종’으로 보는 입장이었다. 동학에서는 반대로 주인 의식을 강조한다. 한국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룬 꿈의 교본 같은 나라인데 사상적으로는 서구의 영향을 받았다. 이제는 우리 고유의 정신이 무엇인지, 그 뿌리가 무엇인지 살피려 때가 됐다. 홍지유 기자

www.GIANTREALTY.com
자이언트 부동산

자이언트 부동산

부동산 전문지식
협상능력
리스팅 전문 서비스

결과가 다릅니다!

자이언트 부동산 사장

Licensed in VA • MD • DC

703.975.4989

susanoh@giantrealty.com
office. 703.641.4989

VA FAIRFAX HQ Office 703.641.4989 Fax 703.641.0033
2751 Prosperity Ave., #580, Fairfax, VA 22031

MD ELLICOTT CITY Office 410.750.8040 Fax 410.750.3992
3277 Pine Orchard Ln., Suite 2, Ellicott City, MD 21042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유니티 보험

Uniti Global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598-3316

정문기

메디케어 헬스플랜 전문 에이전트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문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4년 현재 30년간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 SPECIAL**
-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우리말 바꾸기

‘바람’ 일까, ‘바람’ 일까?

“꼭 취업이 됐으면 하는 게 간절한 바람이다”와 같이 소망이나 희망 등을 이야기할 때 ‘바람’이라는 낱말을 많이 쓴다. 그러나 ‘바람’은 틀린 표현이며 ‘바라’이라고 해야 바르다.

생각이나 소망대로 어떤 일 또는 상태가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한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는 ‘바라다’가 아니라 ‘바라다’이며, ‘바라다’를 명사형으로 만들면 ‘바람’이 된다.

‘바람’은 ‘바라다’를 명사형으로 만든 형태다. ‘바라다’는 별이나 습기를 받아 색이 변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낱말이다. 따라서 ‘바람’은 “이 옷은 이미 색 바람이 심해져 더 이상은 못 입겠다” 등처럼 쓸 수 있다.

“나는 네가 행복해지길 바라”에서와 같이 ‘바라다’를 ‘바라’라고 활용해 쓰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역시 잘못된 표현으로 “행복해지길 바라”에서와 같이 ‘~길 바라’ 형태로 써야 한다.

‘바라다’의 어간 ‘바라-’에 어미 ‘-어/아’가 붙으면 ‘바라아’가 된다. 모음 ‘아, 이’로 끝난 어간에 ‘-아/-어, -았/-었-’이 어울릴 때에는 줄어든 대로 적는다는 맞춤법 규정에 따라 ‘바라아’는 줄어든 형태인 ‘바라’로 쓰인다. 정리하면 소망과 기원을 나타낼 때는 ‘바람’이 아니라 ‘바라’와 ‘바라’를 써야 한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자의 눈

고가 전략 ‘에러완’ 마켓의 성공 비결



정하은
경제부

인플레이션으로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계 재정 악화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들은 매출 하락과 이윤 감소 상황에 직면했다. 저가 판매 업체인 99센트온리스토어가 파산신청을 하는가 하면 다직, 월마트, 월그린 등은 매출 유지를 위해 가격을 내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급 유기농 제품 판매 업체 ‘에러완’의 영업 호조가 관심을 끈다. 에러완은 1966년 보스턴에서 출범했지만 현재는 베벌리 힐스, 샌타모니카, 베니스, 스튜디오시티 등 LA 지역에만 10개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에러완은 유기농 인증을 받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고급 육류와 해산물 등을 판매한다. 특히, 다른 소매업체에서는 구하기 힘든 대체 단백질, 비건 제품, 건강 관련 제품들이 다양하다.

얼마 전 찾았던 에러완 매장은 고객으로 북적였다. 넓은 주차장이 꽉 차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야만 했다. 매장에 들어서니 깔끔하게 정리된 과일, 야채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다. 매장 안에는 예상보다 더 많은 고객이 장을 보고 있었다. 주 고객층은 20~30대의 젊은층이었다.

고가 마켓으로 알려져 예상은 했지만 가격대는 그 이상이었다. 올리브유 한 병에 50달러, 오가닉 로스티드 치킨 한 마리가 23.75달러, 블루베리 한 팩에 13.99달러, 청포도 27.96달러, 닭가슴살 파운드당 12.49달러 등이었다. 대부분의 제품 가격이 다른 업체의 2배는 됐다. 목이 말라 유

명 인플루언서 켈달 제너의 스무디를 골랐더니 가격이 23달러나 한다. 심지어 물 한 병 가격도 3.99달러였다. 연간 멤버십 비용도 200달러로 코스트코의 60달러와 비교하면 3배 이상이다.

어떤 맛인지 궁금해 에러완 자체 제품인 ‘오가닉 치킨 베지터블 수프’와 스무디를 구입해 직접 먹어봤다. 그런데 가격보다 특별한 맛은 아니었다. 재료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건강한 느낌의 치킨 수프와 생과일 스무디였다.

인플레이션 상황에도 에러완이 매출 호조를 보이는 이유 중 하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다. 에러완은 켈달 제너, 헤일리 비버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과의 협업을 통해 마케팅에 성공했다. 에러완의 음료를 소개한 영상은 소셜미디어(SNS) 틱톡과 인스타그램에서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

그리고 음료를 맛본 사람들이 SNS에 후기를 공유하면서 한 잔에 17~23달러의 비싼 가격에도 소비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여기에서 에러완

에서 쇼핑하는 사람들은 ‘영앤리치(young and rich)’라는 이미지 프레임이 생기면서 공금증 탓에 찾는 소비자도 늘었다.

또 가격보다 서비스를 중시하는 젊은 세대의 특성을 고려 깔끔하고 세련된 매장 디자인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직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밖에 다양한 조리 음식과 간식 옵션 등이 소비자에게 특별함을 느끼게 함으로써 브랜드 충성도를 높이고 있다.

대체육과 비건·키토 푸드의 다양화도 인기에 한몫했다. 요즘 MZ세대 푸드 트렌드의 하나가 비건니즘이다.

더푸드인스티튜트에 따르면, 많은 MZ세대가 간헐적 채식을 한다. 이들의 72%가 향후 5년간 채식주의 계획을 밝혔고, 그중 52%는 ‘긴강상의 이집’을 이유로 꼽았다. 비건의 인기로 ‘비건노믹스(비건+이코노믹스)’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에러완은 젊은 세대의 이런 트렌드를 파악하고 이에 맞는 판매 전략을 도입해 꾸준한 성장을 이어나가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지나치게 비싼 가격이 걸림돌이다. 일각에서는 가격 대비 가치에 대한 비판도 내놓고 있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에러완 제품의 가격이 비슷한 품질의 다른 브랜드 제품보다 2~3배 이상 비싼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러완의 고품질·고가 전략이 언제까지 성공할지 주목된다.

J네트웍

질 바이든과 ‘3김 여사’



강태호
워싱턴 특파원

지난달 29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배우자인 질 바이든 여사가 스미소니언국립동물원이 게재한 영상에 등장해 “판다가 DC로 다시 돌아온다”며 함박웃음을 지었다.

판다는 미·중 외교의 상징이다. 중국은 1972년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앞두고 처음으로 미국에 판다를 보냈다. 현재 이 동물원의 판다 우리는 비어있다. 양국 관계가 얼어붙으며 지난해 11월 판다 세 마리가 중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질 바이든 여사의 판다 복귀 선언은 대(對) 중국 외교의 전면에 영부인이 직접 나섰음을 의미한다.

질 바이든 여사는 지난달 22일엔 백악관 브리핑을 했다. 국민방문하는 케냐 정상에 대한 영접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브리핑에선 “손님이 떠날 때 내가 케냐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것과 같이 따뜻함이 가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케냐를 단독 방문했다.

이번에 워싱턴에 도착한 윌리엄 루토 케냐 대

통령 부부를 공항에서 영접한 것도 질 바이든 여사의 몫이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대선 관련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는다. 그는 선거의 쟁점인 고령 리스크에 대해선 “트럼프가 78세고, 조는 81세다. 이번 선거는 나이가 아닌 성격에 관한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쟁점인 낙태권과 관련해선 “올해 여성의 권리가 위협에 처해 있다”며 “우리는 민주주의와 혼돈 중에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언론도 그의 적극적 행보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캠페인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평가한다. 종종 공개 행보를 거의 하

지 않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비교되기도 하지만, 두 영부인의 행적이 정치적 논란으로 확대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국에서도 전·현직 대통령과 유력한 차기 대선주자의 배우자들이 연일 주목 받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 같이 정치의 중심에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현 영부인은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진 뒤 5개월간 잠행했다가 최근 공개행보를 재개했고, 전 영부인은 옷값 논란과 인도 순방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거대 야당 대표의 배우자는 법카 유용과 관련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제 막 개원한 22대 국회의 첫번째 쟁점은 이들 ‘3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가 사활을 걸고 상대 진영의 ‘김 여사’를 공격하는 사이에도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의 리더십이 바뀔 수도 있다. 북한에선 언제든 화학무기로 대체될 수 있는 오물 풍선이 날아오고 있다.

독자에게 힘이 되어 드리는 신문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Health Through LoveSpine Chiropractic Extremity Specialist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Dr. 이형훈 (Mark H. Lee DC, CCEP, FIAMA)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재활/물리/운동 치료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운동상해/직장상해 ◆ 청소년 성장클리닉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필요하신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센터빌 / 챔플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윤 정부, 유조선에서 삼겹살 파티 중... 탄핵 있어선 안 돼”

정치 입문 13년 만에 극적인 역전승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준석 의원(39). 여전히 백팩 차림에 급배지도 “분실할 것 같아서” 착용하지 않는다. 의원이 됐지만, 승용차를 마다하고 경기도 동탄 자택에서 KTX 무궁화호 열차를 타고 영등포역에 내려 공유 자전거 ‘따릉이’로 출근할 것이라 한다. 어찌 보면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고, 어찌 보면 참으로 철두철미한 정치인이다.

이 의원을 만나 가장 묻고 싶었던 것 중 하나는 ‘엄석대’였다. 그는 21대 국회 마지막에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페이스북에 “그렇게 갈취당하고, 연어맛으면서도 엄석대의 질서 속에서 살겠다고 선언한 학생들”이란 짤막한 글을 남겼다. 엄석대는 이문열 작가의 소설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등장인물이다. 무기력한 담임교사의 복인하에 급우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군림하는 반장이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을 엄석대에, 국민의힘 의원들을 엄석대에게 짊어주는 학생들에 비유했다. 하지만 사실 금급했던 건 소설의 뒷부분이었다.

엄석대는 담임 교사가 바뀌면서 권력을 잃고 몰락의 길로 간다. 굴종하던 급우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엄석대의 악행을 폭로한다. 그러나 소설의 주인공인 전학생 한병태는 달랐다. 다른 급우들과 달리 처음에 꽤 엄석대에 저항했던 한병태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석대가 쓰러진 다음에야 등을 뺀 건 비열한 변절자”라며 엄석대를 챙긴다.

그렇다면 과연 현 정국에서 끝까지 엄석대를 지킬 한병태는 누구일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일까. 이 의원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이 의원은 자신을 한병태에 대해 생각해 생각하는 듯했다. “내가 윤 대통령 탄핵이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한병태와 같은 심리적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까지 했다. 의외였다. 자신은 저항을 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나중에 대통령을 배신할 윤핵관들의 비겁함을 질타할 것이라는 대목은 의미심장했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이 의원은 ‘열린 결말’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것일까. 이사로 분주한 여의도 의원회관 530호에서 100분 동안 이야기를 들었다.

윤 대통령 주변, 탄핵에 대한 ‘근자감’

-채 상병 특검 재의결에서 이탈표가 예상보다 적었는데.

“첫째, 실제 국회 이탈표가 적었을 수 있다. 둘째, 민주당 내에서 전략적 투표를 했을 수 있다. 역으로 향후 협상에서 다른 모든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구나 싶었다.”

-민주당이 그런 고도의 전략적 생각까지 한다는 것인가.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수 싸움을 그렇게 높게 평가한 적은 많지 않다. 하지만 최근 일련의 모습들, 즉 국민연금 개혁안 절충, 25만원 차등 지급 수용 등 모습을 보면 본질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에서 크게 후퇴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에게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된 지난달 30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회 본청 앞에서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임기단축 개헌안에 가장 당황할 이는 대통령 아닌 이재명 대표 나보고 싸가지 없다 하지만 명패 집어던진 사람도 대통령 됐다 이재명 중도·협치 이미지 구축 인상적... 대선 승자에 가장 근접”

‘이재명이 오히려 가운데(중도)로 오히려 한다’ ‘타협을 하려고 한다’는 이미지를 남기고 있다. 효율적인 협치 이미지 구축을 하고 있다. 좋은 참모와 소통을 하고 있거나, 심적 여유가 생겼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 본다. 이런 태세 전환은 인상적이다.”

-채 상병 사망 사건 관련 윤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세 차례 전화통화가 앞으로 스모킹건이 될 것으로 보나.

“윤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는 주역이었음에도 탄핵에 대해 연구를 잘 안 한 것 같다. 당시 국민들은 (논점이 맞지 않는 보도도) 기대감을 갖고 호응하며 받아줬다. 채 상병 관련도 마찬가지다. 여론은 이미 윤 대통령에게 심리적 탄핵을 진행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폰으로 통화했다는 것도 이례적인데.

“실은 대통령이 내가 국민의힘 대표일 때 그 번호로 전화했다. 하지만 당시는 취임 직후이고 익숙한 사람들과의 통화를 위해 그러나보다 했지만, 아직도 그걸 직접 쓰고 있을 줄은 몰랐다. 밖에 알려지면 안 될 일을 장관과 직접 소통하려 한 건지 모르겠다.”

-이른바 탄핵열차가 가속화됐다고 보나.

“탄핵은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불행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선례를 보고 ‘설마 형사적 판단이 안 끝난 사안에 탄핵이란 정치적 판단을 내리겠는가’라며 탄핵이란 엄청난 국가적 리스크를 정치적 반대의 기회로 쓰러 했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 주변 인사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들었다.”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는 말인가.

“유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 것(탄핵)에 대한 근자감(근거없는 자신감)이 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을 피하려면)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할 게 아니라 자신을 지지했던 사람들과의 관계부터 복원해야 한다. 나한테는 안 그래도 된다. 하지만 안철수 의원, 김기현 전 대표 등에게 ‘그때는 오해가 좀 있어 미안하다. 한 번 더 같이 이 정부의 성공을 위해 일해보자’고 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의 정무적 역할이다.”

-여전히 국회 의원들은 “무조건 총성”을 외치고, 대통령실도 위기의식이 보이지 않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다지 심하지 않은 인화성 물질(국정교과서 문제, 세월호 참사 대응 미흡 등) 옆에서 담배를 피웠다면 지금 윤 정부는 아예 유조선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고 있는 느낌이다.”

대통령제 보완할 그림자 내각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으로 보나.

“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전해 듣기로는 달리 할 게 없어서라고 하는데, 내가 그 위치에 있었다면 중소 지방 거주 체험 등 할 게 너무 많을 것 같다. 정치인은 부족한 걸 채워나가야 한다. 당장 선거도 없어 어디 가서 축사나 하는 당 대표가 왜 되려 하는지 모르겠다. 채 상병 특검에 대해 한마디도 못 하는 걸 보면 앞으로도 윤 대통령에 맞서는 목소리를 내지 못할 것 같다. (출마하면) 당선 가능성은 높긴 하겠지만 (다른 후보가) 치고 나올 공간이 충분하다. 한동훈은 사실 대안부재란

말 속에 올라오는 인물 아니냐. 솔직히 석달 전 자기들을 몰살시킨 장수를 다시 뽑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 아니냐?”

-보수층에선 이 의원을 향해 ‘싸가지가 없다’ ‘대통령 욕이나 한다’고 지적하는데.

“얼마 전 서울대 강연에서 대통령을 멍청한 사람(stupid person)이라고 했는데, 이를 두고 싸가지 없다고 평가하는 건 그 자체로 모순이다. 누군가를 싸가지 없다고 말할 자유가 있으면 누군가를 멍청하다고 말할 자유도 있어야 한다. 대통령은 하늘 같은 사람이나 그런 용어 쓰면 안 된다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명패 집어던지는 사람(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또 아무리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지만 동탄에선 흠이 안 돼 선택을 받은 것 아닌가.”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꾸는 게 좋나.

“옴 권력이 대통령이면 총리든, 아니면 그걸 둘로 나누든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수퍼맨은 없다고 본다. 난 오히려 대통령제를 보완할 방법으로 선거 과정에서 그림자 내각(새도 캐비닛)을 도입하면 좋다고 본다. 그런데 현재 어떤 공직을 약속하면 선거법 위반이 돼 버린다. 바뀌어야 한다. 같이 일할 사람을 미리 선명하게 보여주면 정책적, 도덕적 검증이 자연스럽게 이뤄져 청문회 부담도 많이 줄어든다.”

-윤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은 가능하다고 보나.

“임기 단축안을 던지면 가장 당황할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본다. 개헌 이니셔티브를 대통령이 가져가게 돼 (야당이) 못 받을 것으로 본다.”

-여의도 권력은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넘어갔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보이는 의석수 때문에 그런데, 여당이 한심해서 그런 거다.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다음 대선 승자에 가장 근접해 있는 건 이재명인가.

“지금으로선 그렇다.”

통 큰 군축, 핵 재처리 능력 필요

-여성징병제는 필요한가.

“통 큰 군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지금 걸어만 다니면 95%가량 다 징병한다. 하지만 여성(전원) 징병제는 오히려 현 상황에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점진적으로 소방·경찰 등 현장직 공무원에 임용되고 싶은 여성에게 의무 복무를 시켜 보는 건 어떨까 싶다. 아마 1년에 수요가 1만 명 정도 생길 것이다.”

-미국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우리가 전액 부담하더라도 잠재적 핵 능력을 확보하는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나.

“윤 대통령이 나와 대화할 때 그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다. 잠재적 핵 능력뿐 아니라 핵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핵 재처리 문제는 실질하다. 일본도 확보하고 있는 능력 아닌가. 우리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방위비) 분담금과 결부해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 물밑에서 몰래 하고 있어 성과가 안 보일 뿐이라 믿는다. ‘대통령이 설마 그것도 안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한다.”

김현기 논설위원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상업융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취업/가족초청이민
- 종교비자/이민
- E2 비자/투자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국제합작투자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사업체 매매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시 설

전공의 사직서 수리 결정, 복귀 여부 현명한 선택을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집단으로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 현안 브리핑에서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 명령, 업무개시 명령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서울 주요 대형병원 원장들이 전공의들에게 무작정 복귀만 요구할 게 아니라 퇴로를 열어 달라고 건의한 것을 정부가 받아들인 모양새다. 이미 사직서를 낸 전공의들 가운데 진짜 떠날 사람은 떠나게 하고 돌아올 사람은 돌아오게 하자는 취지다.

주요 종합병원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의료 현장을 떠

100일 넘어선 집단 사직 사태에 출구 전략 희망자 복귀 길 열려, 정부는 처우 개선해야

난 지도 100일이 넘었다. 그동안 정부는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즉각 업무에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각 병원에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반면에 전공의들은 사직서 수리 금지가 헌법이 보장한 강제노동의 금지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치라고 반발해 왔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빠진 의료 현장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심각했다. 언제까지나 이런 상태로 끌고 갈 수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입장 변화는 현실적으로 불가피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이번 정부 발표로 얼마나 많은 전공의가 의료 현장

으로 복귀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각 병원이 전공의들의 희망에 따라 사직서를 수리하면 이들이 다른 병원의 등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주변과 동료들의 눈치를 보느라 병원으로 돌아가길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있었다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복귀할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들의 장래가 걸린 사안인 만큼 주변만을 의식하지 말고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

역설적으로 이번 일은 지금까지 전공의들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수련을 받아 왔는지 사회적 관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 정부도 전공의들의 과중한 업무 시간을 줄이고 의료사고 가능성에 대한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처우 개선을 약속했던 배경이다.

조 장관은 “전공의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말로만 그치지 말고 현장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주의깊게 받아들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뤄내야 한다.

의사들도 이제는 의대 증원에 대한 원점 재검토 요구를 거둬들이고 정부와의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대한의사회가 ‘큰 싸움’을 언급하며 집단휴진 카드를 만지작거리다면 의료 현장의 정상화를 바라는 민심과는 계속 멀어져 갈 뿐이다. 의사들이 진정으로 한국의 의료의 미래를 걱정한다면 시급히 대화의 테이블로 돌아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

북이 자초한 9·19 효력 정지… 긴장 관리 대책도 고민해야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북한이 최근 오물 풍선 살포,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탄도미사일 18발 발사 등 집중 도발을 강행한 데 따른 맞대응 조치로 볼 수 있다. 9·19 군사합의의 전면적 효력 정지는 물론 북한이 자초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북한의 기습적·국지적 무력 도발 등에 만반의 대비책을 세워 국민을 안심시켜야 할 상황이기도 하다.

이번에 효력이 정지된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채택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다. 이 합의서는 남북의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문 정부는 항구적 평화가 온 것처럼 자신만만해 했다.

하지만 북한은 문 정부 시절부터 9·19 군사합의를 수차례 위반했고 다양한 도발 행태를 보여 왔다. 2020년 6월에는 개성공단에 있는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고, 최근에는 남북을 연결하는 주요 도로에 지뢰를 매설하며 적대감을 드러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수시로 발사해 유엔 결의를 보란 듯 위반했다. 9·19 군사합의는 문 정부 시절에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윤석

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일부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자 북한은 9·19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를 선언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이번에도 9·19 군사합의의 전면 폐기가 아니라 전체 효력 정지 카드를 뽑아 일말의 여지를 남겨 두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로 제약받았던 모든 군사 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조만간 군사분계선(MDL) 5km 이내에서 포병 훈련이 가능해졌고, 북방한계선(NLL) 인근 서북 도서에서 해상 사격 훈련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위한 준비도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에 반발해 북한이 기습적인 국지 도발 등을 감행할 우려가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2010년 3월의 천안함 폭침과 11월의 연평도 포격 도발 뿐 아니라 2015년 8월에는 목함지뢰 도발을 일으킨 전례가 있다. 특히 민간단체가 6일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하고 있어 조건부로 오물 풍선 살포를 중단한 북한이 조만간 또다시 살포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 정지 조치에 따른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비해 철통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 군사적 대비책만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이 마음 놓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궁극적 평화 정착을 위한 창의적 방안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할 시간이다.

“노동당, 따분하고 지루하다”



영국 노동당수인 키어 스타머 경(卿). 다음 달 4일 총선에서 노동당에 14년 만에 집권 기회를 안겨줄 가능성이 크다.

그는 여러모로 이례적 인물인데, 이름과 호칭에서도 드러난다. ‘경’과 ‘키어’가 그렇다. 키어는 1892년 노동당(엄밀하게 당까진 아니었다)을 표방하고 처음으로 당선된 키어 하디에게서 유래했다. 첫 등원 때 당시 정장인 프록코트와 실크 모자 대신 트윈드 재킷과 사냥 모자를 착용해 논란이 됐다. 작업복을 입은 셈이었다. “지붕에서 일하러 왔느냐”는 얘기를 들었다는데 “플로어(floor)에서 일한다”고 응수했다고 한다. 플로어엔 의원석이란 의미도 있으니 재치 있는 답변이긴 했다. 군주제를 공격한 적이 있는 급진적 사회주의자였다. 공구 제작자인 스타머의 아버지가 자신이 노동자 계급임을 자랑스러워하며 키어란 이름이름을 택했다.

반면에 ‘경’은 영국 지배층의 구동 원리와 닿아 있다. 재능 있는 이들을 끌어들이 체제의 안정을 꾀했는데, 서훈이 한 방법이었다. 그러므로 ‘키어’와 ‘경’은 다소 겹돈다. 정작 스타머는 개의치 않는다고 한다. 덕분에 근래 노동당수 중 가장 노동자 계급 출신이면서 최초로 ‘경’이란 접두사를 가진 이가 됐다.

그의 정치 이력도 이례적이다. 52세인 2015년에 처음으로 배지를 달았으니 영국 기준으로 많이 늦었다. 인권변호사를 거쳐 왕립기소청(CPS) 수장인 공공기소국장을 지낸 뒤였다. 처음엔 당권을 생각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극좌인 제러미 코빈이 극렬 지지자들과 함께 당을 사실상 집권 불가능한 왼쪽으로 끌고 가는 걸 보곤 생각이 달라졌다. 암암리에 대비하다 5년 만에 당수가 됐다. 이례적으로 빠른 비상이었다.

그는 당수로서 능력·전문성, 영국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다. 코빈이 반유대주의 논란에 휩싸이자 바로 축출했다. 곧 “극좌의 환상세계, 정체성 정치, 소셜미디어의 성급한 판단으로부터 노동당을 벗어나게 해야 한다. 화합만 강조하는 건 안만 보게 한다. 밖의 유권자를 만나러

면 내부투쟁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곤 실행에 옮겼다. 코빈 추종자들을 몰아내고 새 인물로 채웠다. “스타머가 노골적으로 정파적인 말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나 그 와중에 총알을 받고 있다”(정치평론가 헬렌 루이스)는 평이 나왔다.

정책적 대안도 정비했다. 노동당적이지만 노동당적이기만 한 건 아니었다. 적절한 증세와 국방도 강조했다. 가디언은 “합리적이며 부드러운 좌파”라거나 “전통적인 이념적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아 어디에 위치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어느덧 그는 무색무취하면서도 무자비하다는 평을 듣게 됐다. 언론인 톰 볼드윈은 『키어 스타머』에서 이렇게 썼다. “스타머는 본능적으로 조심스러워 보이지만 당을 변화시키기 위해 일련의 막대

내달 4일 영국 총선서 집권 가능성 정계입문 5년 만에 당수 된 스타머 극단세력 축출 후 대안 정비한 덕분

한 위험을 감수해 왔으며, 정치인이 되는 걸 불편해 하면서도 더 세련되고 ‘카리스마 넘치는’ 경쟁자들이 쓰러지는 사이 빠른 속도로 장안을 뛰어넘었다.”

그사이 보수당이 자멸했다. 유럽연합에 대한 입장 차에서 비롯된 보수당 내 반목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극심했다. 이 여파로 대중적 인기는 높으나 통치엔 진지하지 않았던 보리스 존슨, 양배추 유통기한(50일) 안에도 나라를 휘저거리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리즈 트러스가 연속으로 총리가 됐다.

이젠 노동당과 상극이었던 런던 금융가에서도 “노동당은 투자자들에게 핵심적인 따분하고(dull), 지루하고(boring), 예측 가능한 모습을 보인다. 빨간색 투표(노동당 상징색)를 해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경제평론가 빌 블레인)고 말한다.

그리고 보면 원래 따분하고 지루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가 정상일 수 있겠다 싶다. 영국은 10여 년의 혼란기를 통과했다. 여전히 상상 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우린 얼마나 걸릴까.

중앙SUNDAY 편집국장대리

중앙일보

<p>구독신청: 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fe.joongang.co.kr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기사제보 및 기사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사 인쇄: 1주 1회 발행 THE NEW YORK TIMES, THE WALL STREET JOURNAL, LOS ANGELES TIMES, NEWSWEEK, 영국의 FINANCIAL TIMES, 일본의 朝日新聞, 日本経済新聞</p>	<p>시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허경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7100195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작권 ©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p>
--	--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 보기

주 6일 발행되는 워싱턴 중앙일보 전자신문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 손안에 신문! 언제든 간편하게!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1996년부터 27년간 원칙있는 진료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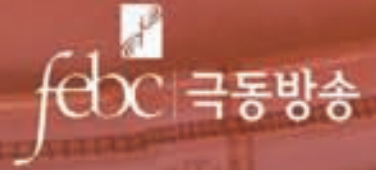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교통사고/직장사고/운동사고 Office Hours by Appointment



**FEBC-KOREA CHILDREN'S CHOIR
PATRIOTIC CONCERT**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나라사랑음악회

2024년 8월 23일(금) 오후 8시

**THE KENNEDY CENTER
CONCERT HALL**



문의

703-467-8100 617-678-5104

| 홍희경 장르 극동방송 미 동부 운영위원장 | 성보영 목사 나라사랑 음악회 준비위원

공연 안내

본 공연은 무료 공연으로 메일, 혹은 QR코드를 통해 무료 티켓 신청 가능합니다.

ticket@febc.net



QR CODE

Law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571.405.6540

건강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Wednesday, June 5, 2024 C

빙·난방 **제로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중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응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CSC Home Care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식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주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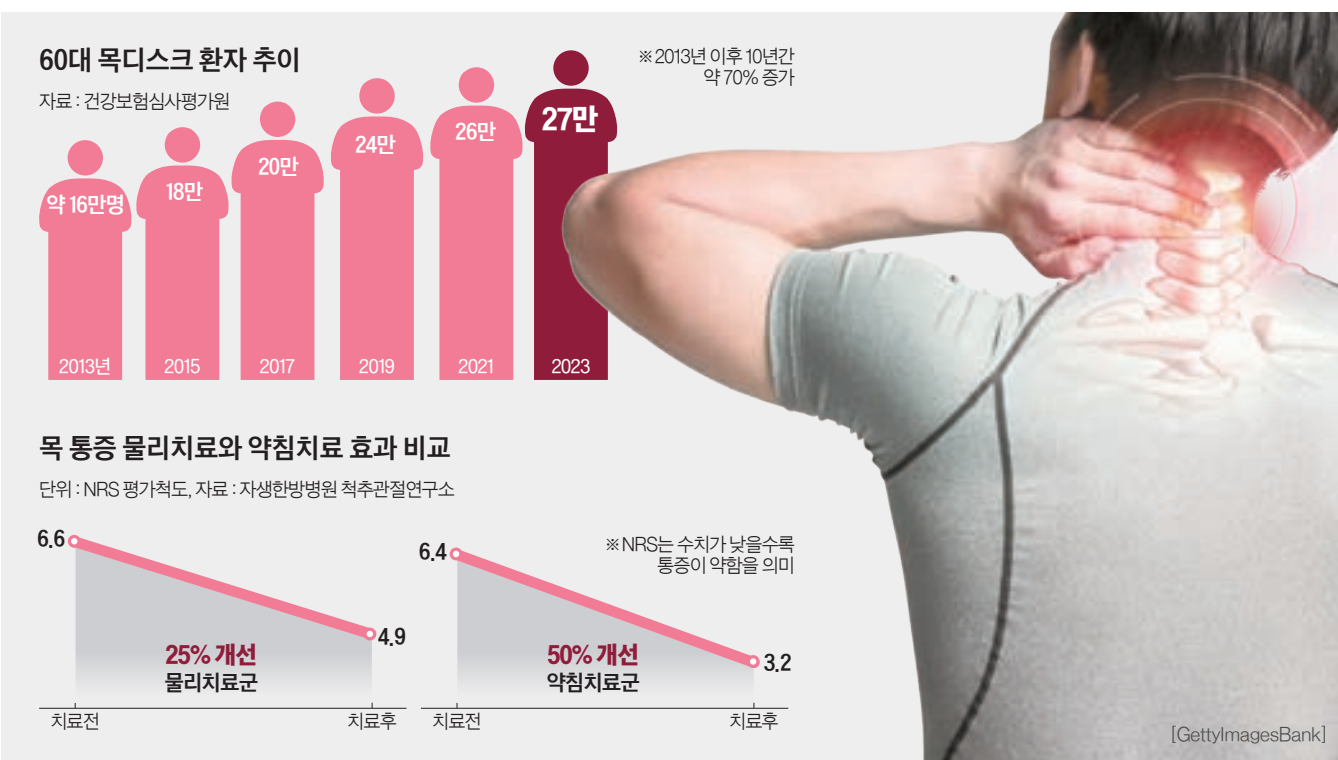
수족냉증 탓에 손 저림? 디스크가 목뼈 신경 눌렀을 수도

여름이 조금씩 가까워지면서 30도를 넘는 날들이 늘어나자 지하철과 버스, 사무실 등 에어컨 바람도 강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평소 손발이 저리고 찬 수족냉증 환자들에게는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마냥 반갑지만은 않다. 증상을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오랜 기간 손발이 차갑고 저려왔던 사람들은 여름철 에어컨 바람에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특별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무시코 넘기는 경우가 많다. 특히 노화로 인한 심혈관 기능 저하가 찾아오는 중장년층에서는 이를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수족냉증 탓으로 생각하기 쉽다.

환자 수 10년 이상 꾸준히 증가. 50대 70% 문제는 손 저림 증상이 수족냉증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수족냉증은 추위를 느끼지 않을 만한 온도에서 손이나 발에 지나칠 정도로 냉기를 느끼는 질환이다. 하지만 한쪽 손에만 저림 증상이 나타나거나 팔 저림, 목·어깨 통증까지 동반된다면 목디스크(경추추간판탈출증) 발생 가능성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목디스크는 목뼈(경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추간판)가 노화나 강한 외상 등으로 제자리를 벗어나는 질환을 의미한다. 이에 염증이 생기고 극심한 통증이 일어난다. 목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손과 팔 등 다른 부위에도 증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목뼈를 지나는 신경에 있다. 디스크가 신경을 누를 경우, 해당 신경이 작용하는 손과 팔이 저리게 된다. 또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오래 쐬는 것도 통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혈관과 근육이 수축하면서 목 주변 조직이 긴장하게 되는 탓이다. 이에 디스크 내부 압력이 높아지며 통증이 증가하고 유연성도 떨어져 질환 악화 위험도 커진다.



다양한 증상 유발하는 목디스크
뇌로 가는 혈관 압박엔 두통도 생겨
과도한 PC·스마트폰 사용 피해야
약침치료, 신경 재생에 효과 뛰어나

손 저림 외에 목디스크를 의심해볼 수 있는 또 다른 질환으로는 두통을 꼽을 수 있다. 보통 두통은 뇌 주변 혈관과 근육의 긴장으로 발생하는 긴장성 두통이 가장 흔하다. 일반적으로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충분한 휴식을 통해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디스크가 밀려 나와 뇌로 향하는 신경과 혈관을 압박해 나타나는 경추성 두통은 목 관리를 통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앞서 확인한 것처럼 목디스크는 단순 목 통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환자 수도 10년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약 16만 명이었던 목디스크 환자 수는 2023년 106만 명을 기록했다. 특히 50대 이상의 환자가 70%를 차지했으며 그중에서도 60대의 비중이 2013년 16만 명에서 2023년 27만 명으로 68.7% 늘어나 상승세를 주

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육 및 신경 재생 능력이 뛰어난 젊은이들과 달리 50대 이상의 환자들은 회복 능력이 더디기 때문에 질환이 악화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디스크가 증증으로 악화하면 마비 증상 등으로 거동조차 힘든 상황을 맞닥뜨릴 수 있다. 실제로 파워풀한 안무와 건강미로 유명했던 걸그룹 '씨스타'의 멤버 소유도 최근 유튜브에서 목디스크 때문에 집에서 누운 채로 꼼짝할 수 없어 무척 당혹스러웠다는 일화를 털어놓았다. 따라서 목디스크가 의심된다면 조속히 전문의를 찾아 진료를 받는 것이 현명하다.

다행히 목디스크는 비수술 보존치료로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 특히 보존 치료는 신체가 받는 부담이 적어 중장년층의 만족도가 높다.

왕오호 동독자생한방병원 병원장
▶ 4면 '목뼈 신경'으로 이어집니다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메존 앞 빌딩**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침·부황·뜸·한약 (치료제, 보약)

진료 과목

- 모든 통증치료 (두통, 목디스크통증, 요통, 오십견, 관절통, 손목통증, 무릎통증 등)
- 대사증후군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 비만
- 만성피로
- 소화장애, 순환장애
- 불면증, 어지럼증
- 불임, 생리통, 갱년기 증상
- 교통사고 후유증

원장 채여혜
- 북경중의약대학 중의과 졸업
- 중국국대사 연정화 교수님께 사사
- 상해중의약대학 중의약박사
- 임상 25년 경력

채여혜 한의원
Chai Oriental Medicine Clinic
571-587-4679 / 703-828-0056
4208 Evergreen Ln, Ste 221, Annandale, VA 22003
www.chaiorientalmedicine.com

진료 시간
● 평일: 9am-5pm ● 토요일: 9am-1pm
● 야간진료: 예약환자에 한함

감기만큼 흔한 여성 질환... 초경 빠르면 더 잘 생기고 난임 위험 높이기도

자궁근종 바로 알기 자궁에 생기는 양성 종양인 자궁근종은 감기만큼이나 흔한 여성 질환이다. 가임기 여성 10명 중 2~4명은 자궁근종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초기엔 별다른 증상이 없지만 커지고 개수가 많아지면서 임상적 양상이 돌변한다. 하혈이 잦아지고, 극심한 허리·골반 통증으로 일상이 괴로워진다. 자궁 안쪽에 생긴 혹이 임신을 방해하기도 한다. 최근 2040대 여성의 자궁근종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자궁근종이 가임력에 미치는 파괴력도 커지고 있다. 가임기 여성이라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자궁근종의 위험성과 대응법을 짚어본다.

권선미 기자

✕ 모든 자궁근종은 수정란 착상을 방해한다

자궁근종이 생긴 위치에 따라 다르다. 자궁근종은 ▶자궁의 바깥쪽에 생기는 장막하근종, ▶두꺼운 자궁 근육층 안에 파묻혀 있는 근막내근종, ▶자궁 내막 아래에 생기는 점막하근종 등으로 구분한다. 이 중 난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궁근종은 수정란 착상을 방해하는 점막하근종이다. 점자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착상하는 곳인 자궁내막 바로 아래 생긴다. 노원을지대병원 산부인과 권소정 교수는 “점막하근종은 전체 자궁근종 중 약 5%로 비율은 낮은 편이지만, 자궁근종이 자라면서 자궁내막의 구조가 울퉁불퉁하게 변해 착상을 어렵게 하는 등 생식능력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점막하근종이 임신율을 70%나 감소시킨다는 메타 분석 결과도 있다. 자궁내 염증 반응으로 유산, 조기 출산 위험이 높아지는 등 임신 유지에도 부정적이다. 점막하근종이라면 자궁근종 치료 후 임신 성공률이 높일 수 있다.

○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피임해야 한다

그렇다. 수술적 방식으로 자궁근종을 떼어 낸 직후 임신을 시도하면 자

궁 파열 위험이 존재해서다. 자궁근종 수술 후 상처가 나을 때까지 최소 3~6개월 정도 피임하면서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자궁근종 수술에서는 정교한 봉합은 특히 중요하다. 자궁근종을 제거하고 벌어진 부위를 봉합하는 상처가 완전히 낫기 전에 임신하면 태아가 자라면서 그에 맞춰 자궁이 부풀어 오르다가 털 아문 수술 부위가 터질 수 있다. 건국대병원 산부인과 소경아 교수는 “미세한 손 떨림이 없고 자유로운 각도 조절로 빈틈없이 자궁내막, 자궁근육층, 자궁외막 등 3개 근육층의 결을 맞춰 탄탄하게 봉합할 수 있는 로봇 수술이 안정적 임신·출산에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로봇 수술이 복강경보다 난소 기능 유지에 유리했다는 임상 연구도 있다.

○ 자궁근종은 치료해도 재발할 수 있다

혹이 생기는 자궁을 제거하지 않는 이상 언제든 자궁근종은 재발할 수 있다. 자궁근종을 치료한 환자의 40~50%는 치료 5년 후 자궁 어딘가에 자궁근종이 또 생기는 것으로 보고된다. 없던 부위에 새로 생긴 것일 수도 있고 치료 당시 너무 작아 제거하지 못한 자궁근종이 자란 것일 수도 있다. 민트병원 여성의



“자궁근종 위치에 따라 난임 영향 환자 40~50%는 치료 5년 후 재발 수술 후엔 최소 3~6개월 피임해야

학센터 기경도 대표원장은 “자궁근종이 하혈·통증 등 임상적 증상을 유발하거나, 현재는 작더라도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임신에 방해되거나, 폐경인데도 자궁근종이 계속 자라는 등 문제가 되는 것을 우선 제거하는 방식으로 치료한다”고 말했다. 임신·출산·폐경 등 여성 생애 주기와 자궁근종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나에게 맞는 치료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산차병원 산부인과 김의혁 교수는 “작은 근종까지 다 제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재발을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6~12개월 간격으로 자궁근종의 상태를 추적·관찰하면서 주치의와 상담한다. 임상적 증상으로 문제가 될 때 치료하면 된다.

○ 임파자궁근종이면 딸도 자궁근종일 가능성이 있다

자궁근종은 유전적 연관성이 존재한다. 임파나 자매·이모 등 직계 가족에게 근종이 있다면 자신에게도 자궁근종이 생길 가능성이 약 2.5~3배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기적 하혈이 있거나 생

리량이 늘었거나 복부·허리·골반 통증이 심하다면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좁은 공간에 자궁근종이 거대하게 자리면서 장·방광 등 주변 장기를 압박해 속이 더부룩하거나 빈뇨·변비 등 배변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다. 기경도 대표원장은 “직계 가족 중 자궁근종으로 치료한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빨리 정기적으로 자궁 건강 상태를 살피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와 별개로 자궁근종은 에스트로겐 등 여성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권소정 교수는 “초경이 10세 이전으로 빠를 때 에스트로겐 노출 기간이 길어져 자궁근종 발생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 출산하면 자궁근종이 커진다

출산은 자궁근종 위험을 줄인다. 출산 이후 임신으로 커졌던 자궁이 본래 크기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자궁의 근육층이 리모델링되면서 자궁근종이 위축되고, 자궁근종에 공급되는 혈관이 소실돼 자궁근종의 크기가 줄어든다고 알려졌다. 임신 초기 초음파에서 발견된 40%의 자궁근종은 출산 3~6

개월 후에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다. 출산 경험이 3회 이상일 경우 자궁근종의 발생 위험도가 5배 낮다는 보고도 있다. 다만 임신하면 자궁근종의 크기가 변할 수 있다. 본래 크기보다 커지거나 변화가 없거나 작아지는 등 다양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 소경아 교수는 “임신으로 자궁근종의 상태는 임신 초기 호르몬 변화 등으로 어떻게 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자궁근종이 있으면 산후 출혈 위험이 높다

자궁근종이 있어도 임신이 잘 유지되고 자연분만도 가능하다. 다만 임신 동안 자궁근종이 있으면 아이를 낳을 때 태반의 만출 단계에 영향을 줘 산후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궁근종의 크기가 3cm 이상으로 크고, 근종이 태반 뒤쪽에 위치하거나 아래쪽에 있을 때 산후 출혈 위험이 높다. 김의혁 교수는 “자궁근종의 크기가 크면 분만 후 자연스러운 자궁 수축을 방해해 자궁무력증을 유발하면서 산후 출혈 위험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기고 백만중 고려대구로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교수

퇴행성 심장질환 ‘대동맥판막 협착증’, 12년새 4배 증가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퇴행성 질환인 대동맥판막 협착증 환자가 늘고 있다. 국내 환자 수는 2022년 기준 2만1000여 명으로 2010년 대비 4배 이상 늘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심장의 좌심실과 대동맥 사이에서 대문 역할을 하는 대동맥판막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거나 굳으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질병이다. 몸 전체에 피를 순환시키는 심장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좁아진 구멍으로 혈액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심부전 등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대동맥판막 협착증의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노화다. 심장을 구성하는 4개의 방과 방 사이에 문 역할을 하는 판막은 혈액순환 과정에서 계속 여닫힘을 반복한다. 근대 세월이 흘러 노후돼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다.

경증일 때는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다. 다른 질환 때문에 병원을 찾거나 건강검진을 받다가 청진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하는 게 보통이다. 병이 좀 더 진행하면 호흡곤란과 피로, 가슴 통증 등이 생길 수 있다. 방치하면 2~5년 안에 사망

할 확률이 높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심장판막 질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환자의 판막 상태, 심장 기능 및 증상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각각의 특성에 맞춰 약물치료와 수술적 치료 중 더 좋은 방향을 선택할 수 있다. 약물치료는 혈압 조절약과 이뇨제를 투여해 심장의 기능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불편 증상을 줄이고, 비대해진 심장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술이 필요하다. 특히 심한 협

착증이나 폐쇄부전증으로 발전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야 한다.

심장판막 수술 방법은 판막성형술과 판막치환술 두 가지로 나뉜다. 판막성형술은 환자 본인의 심장판막을 성형해 보존하는 수술이다. 두꺼워진 판막 조직을 얇게 깎아 피가 잘 지나갈 수 있게 한다. 판막성형술은 가임기 여성이나 항응고제를 투여할 수 없는 환자에게 매우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협착이 심하면 인공판막으로 치환해야 한다. 수술 위험도가 큰 80세 이상 고령자, 폐 또는 신장 기능이 현저히 나쁜 환자, 전신 상태가 매우 불량한 일부 퇴행성 대동

맥 협착증 환자에게는 허벅지 동맥을 통해 인공판막을 체내에 삽입하는 경피적 대동맥판막 치환술(TAVI)을 적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중장년층은 만성적인 음주나 흡연, 노화 등의 이유로 퇴행성 심뇌혈관 질환을 앓는 경우가 많다. 평소 혈액순환이 잘되지 않거나 심뇌혈관 질환에 걸린 경험이 있다면 생활 습관을 개선해 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또 건강검진을 할 때 심장 초음파검사를 받을 것을 권한다.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고, 고지방 식사를 지양하며 금연 및 금주하는 것이 좋다.



혜민한의의원

동서의학의 결합 침 없이 ring과 clip을 손에 압착하여 치유함으로써 침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혈관건강 검사, 자율신경/스트레스, 체성분, 혈관나이 검사

4단계부터 혈관 건강에 유의하세요.

1	2	3	4	5	6	7
0.9%	0.6%	0.6%	13.3%	42.9%	2.3%	0.0%
매우좋음	양호	노화시작	주의	나쁨	매우나쁨	

GUT-BRAIN CONNECTION

- ◆ 뇌와 위장관 문제 예방 및 개선 (가역성, 공황증, 소화, 변비, IBS)
- ◆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 예방/개선
- ◆ 북부비만 분해, 신진대사 활성화

생활습관의학 및 인체정화 프로그램
(미생물 생태계 향상으로 장, 두뇌, 혈관 개선)
Doctor in You !!
피를 맑게!!
당신안의 의사가 해결하도록 돕겠습니다

팔
뒤로 들어올리지 못함

팔목
힘없다
찌릿찌릿
바닥 못누움

허리
엎드리면 통증
누우면 통증

오래
앉아있지 못함

75°
구부러기 힘들다

30°
뒤로 피기 힘들다

손가락
Spasm of finger

toes
cramps 발가락
toes

발목
오래된 것
쉽게 해결 됨

plantar
aches

발바닥
통증

뒤꿈치

힘이
없어 잡지 못함

방아쇠
피지 않음

sciatica
좌골신경통

영치
포리백

개인 건강보험 받습니다.

Nerve Control
SNC
Scientific Nerve Control
뇌신경조절의학

혜민한의의원
301-922-9239 / 443-878-4637
mylovesnc@gmail.com / NerveControlSNC.com
주소: 4 Professional Dr., #110, Gaithersburg, MD 20879
전화: 5550 Sterrett Pl., #303, Columbia, MD 21044

뇌신경 조절
한의사 권진열

발목·종아리·눈 잘 붓는다면... 장기 기능 점검해봐야 할 신호

부종으로 살피는 건강 이슈 부종(부기)은 누구나 한 번쯤 겪는 흔한 증상이다. 혈관 안의 체액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가 신체의 세포와 세포 사이에 과다하게 축적되는 현상이다. 신체가 전반적으로 붓거나 때때로 얼굴·눈·팔·다리처럼 특정 부위가 붓는 식이다. 대부분 특별한 원인 없이 발생하지만, 때론 체질이 아닌 주요 장기 기능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부종의 양상과 동반 증상, 기저 질환을 살펴 건강 문제를 확인하고 적절한 대응에 나서자.

김선영 기자

정맥 질환
하지 부종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하지 정맥의 이상이다. 크게 만성 정맥 부전증과 급성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구분한다. 다리가 반복해서 붓는 만성 정맥 부전증은 서 있는 상태에서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계속 올라가지 못하고 순간순간 아래로 역류하는 현상이다. 증상이 심해지면 다리에 머무르는 혈액이 증가해 외관상 발목 주변의 피부가 탱탱하게 붓고 종아리가 터져 나갈 듯한 느낌을 받는다. 보통 자고 일어나면 증상이 나아지지만, 수년간 지속하면 2차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급성 심부정맥 혈전증은 혈전 탓에 정맥이 막히면서 다리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해 붓는 경우다. 혈전은 피부 근처에 있는 표피 정맥에 발생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근육 속에 있는 심부정맥에 발생하면 다리가 갑자기 심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특히 정맥에 달라붙어 있던 혈전이 떨어져 나가면서 심장을 거쳐 폐로 가는 동맥을 막으면 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대전유지대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진호 교수는 “급성 심부정맥 혈전증은 항응고제를 복용하면 부종이 호전되

고 재발과 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다”며 “만성 정맥 부전증은 수술 가능한 역류증과 정맥류가 있다면 수술을 통한 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사구체 질환

신장은 몸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5% 정도가 신장을 지난다. 사구체는 꾸불꾸불 뭉쳐 있는 신장 조직의 혈관으로 신장 내 노폐물을 거르는 기능을 담당한다. 사구체신염·사구체경화증 같은 사구체 질환이 악화하면 몸의 노폐물과 수분이 잘 걸러지지 않는 상태가 된다.

사구체 질환이 있을 땐 소변에서 단백질을 검출된다. 정상인은 소변으로 혈액을 구성하는 단백질을 미량 나오지만, 사구체 질환자는 훨씬 많은 양의 단백질을, 특히 알부민이 나온다. 소변에 피가 나오는 혈뇨도 나타날 수 있다. 물이 차 있는 병기에 소변을 보면 콜라처럼 암갈색 부분이 아래로 가라앉는 현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부종이다. 주로 중력 탓에 혈액이 물리는 부위에 더욱 심하게 나타나므로 저녁엔 다리 그중에서도 발목 주변, 아침 기상 시엔 얼굴, 특히 눈 주변이 잘 붓는다.

사구체 질환은 치료 시기를 놓칠 경

우 만성 콩팥병으로 악화할 수 있어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적 간단한 혈액검사만으로 진단할 수 있으므로 앞선 증상이 있다면 병원을 찾아 진료받는 게 좋다.

심장 질환

심부전은 심장이 신체 조직이나 기관에서 필요한 혈액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다. 심장 질환의 마지막 단계로 본다. 급성으로 진행할 경우 몇 시간 또는 며칠 안에 급격하게 악화해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급성 심부전이 발생하면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 기침 증상을 유발하고 때론 식욕과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하지에 부종이 발생할 수 있는데 왼발, 오른발에 모두 생긴 경우 심부전일 가능성이 크다.

급성 심부전은 간·뇌·폐 등 다른 장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선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원인과 증상 정도에 따라 약물치료를 적용하고 산소를 투여하며 구조적인 문제일 땐 중재 시술이나 수술로 심장 기능의 회복을 기대한다.

림프계 질환

림프계는 조직 속의 노폐물을 수거해 정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혈관과 달리 말초부터 중심까지 일정한 방향성

을 갖고 순환한다. 림프액은 모세혈관의 얇은 벽을 통해 조직에 스며들고 소화관에서 받은 영양분을 각 조직에 공급한다. 조직에 있는 세균이나 암세포, 손상된 세포를 림프관을 통해 림프절로 보낸다.

림프절은 전신에 분포해 있는데 그중에서도 외부에 노출된 곳이나 연결 부위에 많다. 머리와 몸을 연결하는 목이나 팔과 몸이 연결된 겨드랑이, 다리와 몸이 연결된 사타구니가 대표적이다. 한림대성심병원 신장내과 김성균 교수는 “림프절은 모세혈관의 수분 분포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몸에 발생하는 암세포가 퍼지는 것을 막는 면역 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림프구들의 움직이는 통로이기도 하다”며 “암세포가 퍼지면서 림프절을 막거나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퍼진 림프절을 제거하면 수분의 통로가 막혀 부종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림프액이 제대로 배출되지 않아 팔다리에 극심한 부종을 일으키는데 심한 경우 코끼리처럼 통통 부어오른다. 이런 림프부종이 발생했을 땐 일단 물리치료를 하고 6개월 이상 해도 효과가 없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한다. 주로 팔이나 다리를 지나가는 림프관을 정맥과 연결해 막혀 있는 림프액이 빠져나갈도록 유도한다.



부기 완화에 도움되는 생활습관

부종은 원인 질환 치료가 기본이다. 증상 완화를 위해 생활 습관 개선을 병행하는 게 좋다. 특별한 이유 없이 자주 붓는 사람도 부종을 악화하는 생활 행태를 교정함으로써 충분히 호전될 수 있다.

김선영 기자

1 저염식하고 칼륨 식품 섭취
짠 음식은 부종 악화의 주범이다. 혈액에 소금기가 많으면 체내 염분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끌어들이 부기를 유발한다. 체내 수분을 줄이기 위해 반드시 저염식을 실천한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10g 미만으로 줄이고 해조류나 사과, 버섯, 콩 등 나트륨 배출에 도움되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즐긴다.

2 오래 서거나 앉을 땐 스트레칭

하지 부종을 예방하려면 장시간 가만히 서 있거나 앉아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가능한 한 30분마다 발목 돌리기, 발뒤꿈치 대고 발가락만 올리기, 다리 구부렸다가 펴기 같은 스트레칭을 수시로 해준다. 잘 때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고 활동 중엔 하지 압박스타킹을 착용하면 부기 완화에 도움된다.

3 꾸준히 근력 운동하고 마사지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의 수축·이완 작용이 활발해져 림프액 순환을 돕는다. 전문가로부터 원하는 방향으로 림프액의 흐름을 유도하는 도수 림프 배출법을 배워 꾸준히 실천한다. 수술을 받은 후 부종이 온 경우라면 과도한 육체노동이나 장시간의 햇빛 노출, 급격한 기온·수온 변화 노출을 피하는 게 좋다.

4 무리한 식이요법은 역효과
비만하면 혈액·림프계 순환에 어려움을 겪어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체중을 감량한다. 지방과 나트륨이 적고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꾸준히 운동한다. 이때 무리하게 식사량을 줄이면 몸에선 수분과 염분만이라도 쌓아두려는 시스템이 작동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5 이노제 임의 복용은 금물
부기를 빼고자 임의로 이노제를 복용하는 행동은 위험하다. 과다·장기 복용하면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해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 반드시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복용한다.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부신피질 호르몬제와 같은 약물은 부종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 약력**
- 대한민국 한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치매
- ◆ 뇌졸중(중풍)
- ◆ 파킨슨병
- ◆ 두통
- ◆ 어지럼증
- ◆ 이명
- ◆ 불면증
- ◆ 수면질환
- ◆ 손발 저림
- ◆ 감각이상
- ◆ 보톡스
- ◆ 통증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예촌 앞 7700 건물 6층**

“AZ, 국내사와 함께 글로벌 진출... 바이오헬스 강국 도약 위해 R&D 선순환 중요”

인터뷰 실비아 바렐라 아시아 지역 총괄사장 생명을 연장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혁신 신약은 중증·희귀 질환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다. 전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바이오헬스 산업은 보건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도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 국가 도약을 목표로 혁신 신약 연구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실비아 바렐라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아 지역 총괄사장에게 혁신 신약의 적정 가치 보상 중요성에 대해 들었다. 과감한 R&D 투자로 빠르게 성장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AZ)는 오픈이노베이션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과 다양한 연구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권선미 기자

-글로벌 제약사인 AZ가 어떻게 한국의 혁신 신약 개발을 지원하나.

“AZ의 R&D 핵심 전략은 파트너십이다. 한국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혁신적 K신약의 글로벌 상업화를 도우면서, 한국 연구진의 초기 단계 연구 아이디어도 지원한다. AZ는 SK케미칼과 약 4년간 협업으로 2형 당뇨병 복합제를 공동 개발해 현재 글로벌 공급을 추진 중이다. 대응제약이 자체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도 AZ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시아 지역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초기 단계 연구 지원을 위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파트너십도 10년 이상이나 됐다. 현재까지 차세대 블록버스터가 될 수 있는 프로젝트 48개를 지원했다.”

-면역항암제 최초로 담도암 적응증을 받은 임핀지는 한국인 의료진이 연구를 제안해 시작됐다고 들었다.

“그렇다. 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오도연 교수가 처음 제안한 담도암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은 수술이 어려운 진행 병기 담도암의 치료적 대안이 됐다. 담도암은 초기 자각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암 발견이 늦은 데다 수술 후 재발률도 높아 예후가 불확실한 편이다. 전 세계 담도암 사망률 1위인 한국에서 한국인 연구자가 12년 만에 담도암 신약을 만들어 냈고 더 나아가 담도암 글로벌 표준 진료지침까지 바꿨다. AZ 내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연구진, 고도로 발달한 의료 인프라 등 임상 강국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실비아 바렐라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아 지역 총괄사장은 “아스트라제네카는 R&D 파트너십 전략으로 한국에서 차세대 블록버스터 제품이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AZ는 글로벌 제약회사 중 이례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혁신형 제약 기업에 3차례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 내 혁신 신약 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해 온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한국 AZ는 지난해 한국 내 모든 제약사를 통틀어 보건 당국으로부터 신규 임상 연구를 가장 많이 승인받았다. 현재 한국에서 암·희귀 질환 등에서 130건 이상의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또 2023년에 연구개발을 포함한 한국 투자액을 33% 증액해 한국의 R&D 활성화를 지원했다.”

-최근 항암·호흡기 분야 외에도 희귀 질환 신약 공급에도 집중하고 있다.

“현재 혁신 치료제가 가장 필요한 분야 중 하나가 바로 희귀 질환이다. AZ의 희귀 질환 치료제는 한국 내 환자 수가 2명부터 시작해 많아야 수백 명 정도인 극소 희귀 질환을 대상으로 한다. 대부분의 약제가 해당 환자에게는 유일한 치료제다. 희귀 질환은 환자 발견부터 진단·치료에 이르는 과정이 쉽지 않다. 일반적인 질환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AZ는 희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한 환자 중심의 의료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겠다.”

-얼마 전 폐암 대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배경이 궁금하다.

“다른 장기로 전이된 4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약 10%다. 반면에 수술이 가능한 1기 폐암의 5년 생존율은 80%까지 올라간다. AZ에서 조기 폐암 진단을 위해 행동하는 이유다. 세계폐암학회(WCLC)에서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폐암 전문가와 함께 폐암 조기 진단을 위한 권고 사항을 담은 합의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AZ는 폐암 조기 검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한국에서는 폐암 조기 검진을 위한 여러 연구를 진행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비흡연 여성 폐암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시작했다. 우리의 목표는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에서 폐암을 없애는 것이다. 폐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서는 AZ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 한국에서도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

-글로벌 제약기업 입장에서 한국의 신약 접근성은 어느 정도로 보나.

“어려운 부분이다. 한국의 의료보험 체계는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 미국 제약협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최초 허가 기준으로 한국에 1년 내 출시되는 신약은 5%에 불과했다. 미국(78%), 독일(44%), 영국(38%)과 비교해 차이가 있다. AZ를 포함해 많은 글로벌 제약기업이 한국에 신약 출시를 앞두고 고민이 많다. 글로벌 무대에서 활약하는 한국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약가 정책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도 연결된다. 약제의 적정 가치 보상을 위해 유연하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신약 가치에 기반을 둔 논의가 확대되길 바란다.”

-한국에서의 향후 계획이 궁금하다.

“AZ는 혁신 신약 개발부터 생산·공급에 이르기까지 다각적 협력을 추구한다. 한국 의료진이 제시한 담도암 면역항암제는 인건 송도에 위치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공장에서 생산돼 전 세계로 수출된다. 생명을 연장하는 혁신 신약은 환자뿐 아니라 한국의 임상 역량과 산업적 측면에도 기여한다. 혁신 신약의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이 나온다면 그 효과는 R&D 선순환을 활성화하는 기폭제가 될 것이다. AZ는 한국에서 R&D 선순환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협력을 모색하겠다.”

▶ 1면 ‘목뼈 신경’에서 이어집니다

한의학에서는 침·약침 치료, 추나요법, 한약처방을 비롯한 한의통합치료로 목디스크를 해결한다. 먼저 견정(肩井)·풍지(風池)·대추혈(大椎穴) 등 주요 혈자리에 침 치료를 해 경직된 경추 조직의 긴장과 통증을 완화한다. 이후 한약재의 유효 성분을 함유한 약침을 병변 부위에 직접 주입하면 빠른 염증 제거 효과를 볼 수 있다. 더불어 뼈와 근육 등 조직 강화와 신경 재생에 탁월한 한약 처방을 병행하면 더욱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성 SCI(E)급 국제학술지 ‘임상의학 저널(Journal of Clinical Medicine)’에도 소개된 바 있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의 해당 연구에 따르면 약침 치료는 물리치료보다 뛰어난 목 통증 개선 효과를 보였다. 연구팀은 약침 치료군과 물리치료군으로 목 통증 환자를 나눠 치료 효과의 차이를 분석했다. 그 결과, 약침 치료군의 통증 숫자평가척도(NRS)가 심한 통증 정도(6.4점)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3.2점)까지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물리치료군은 6.6점에서 4.9점으로 감소 폭이 비교적 작게 나타났다. NRS는 환자가 느끼는 통증 정

도를 0~10 사이 숫자로 표현한 지표이며 숫자가 높을수록 통증이 강함을 의미한다.

모니터 화면 눈높이에 맞춰 올려줘야

약침 치료는 효과뿐만 아니라 비용면에서도 효율적이다. SCI(E)급 국제학술지 ‘BMC 건강 서비스 연구(BMC Health Services Research)’에 소개된 한 논문 따르면 보건의료체계 관점과 사회적 관점에서 약침 치료군의 비용이 물리치료군과 비교해 각각 26달러, 1157달러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침 치료가 삶의 질과 보건의료체계·사회적 관점에서 일반 물리치료보다 비용 효율적인 치료

법으로 확인된 것이다.

최근에는 한의 치료를 받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줄 보건복지부의 한약(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 사업도 시작했다. 4월부터 허리디스크, 비염, 소화불량 등 일부 질환 한약 처방에 적용 중이며 환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으면 전체 부담 비용에서 30%만 지출하면 된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예방하는 것이 훨씬 더 경제적이다. 예방이 야말로 최선의 건강 관리방법인 것이다. 디스크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과도한 PC·스마트폰의 사용을 피하고 모니터 등 화면을 눈높이에 맞

춰 올려주자. 또한 에어컨은 실내 적정 온도에 맞춰 작동하기를 권장한다. 찬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지 않도록 바람막이 등을 설치하거나 날개 각도를 조정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도 효과적인 목디스크 예방법이다.

작더라도 매일, 또는 주기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나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면 질환이 악화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 오늘 하루는 나의 몸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며 보내는 것이 어떤가.

왕호호 목동자생한방병원 병원장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엔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료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여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invisalign

Science in Every Smile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MD, DC, VA

Sung Hwang & Kim 합동 법률 사무소

의료진 과실 혹은 부주의로 인해 중대한 부작용, 상해
혹은 예기지 못한 사망에 이르는 일을 겪으셨나요?

잘못 제조된 의약품으로 고통 받고 계신가요?

의료기관에 호소해도 과오를 부인하거나 무시되고 있나요?

그 고통에 비할 바는 못되지만, 저희 의료사고 변호사가 해당분야 전문의와 협업하여
의료기관을 상대로 보상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 변호사

출산 분만시 오류로 인한 외상, 뇌손상 혹은 질병

수술 과실, 수술 후 마비 및 부작용

응급처치, 진료 및 치료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질병과 부상

병원시설 내 낙상사고, 의료기기 오류로 인한 상해

잘못된 약처방, 약물 과다 처방, 위험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심한 부작용 혹은 사망

오진 및 치료지연 과실

성형수술 부작용 및 의료사고



첫 미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410-772-2324

“성황앤김 변호사 사무실의 찰리 성 변호사를 찾아 주십시오.”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JD

약력
Cleary Gottlieb Steen & Hamilton, LLP
DLA Piper, LLP (세계 2위 로펌)
Gilbert & Randolph, LLP
전, 하워드 한인회 회장
Maryland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District of Columbia Court of Appeals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College of Law, JD

약력
Dickstein Shapiro, LLP
Baker Botts, LLP
New York Court of Appeals
Maryland Court of Appeals



폴 김 변호사

- Johns Hopkins University, BA
-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Law, JD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Public Health, MPH

약력
Cole Schotz, P.C.
Ober Kaler, PC
Blank Rome LLP
Gardner Carton & Douglas LLC
MD, DC

Sung Hwang & Kim | LLP
www.shkfirm.com



Columbia,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Annandale, VA

T. 703.436.1444

Toll Free: 888.772.3001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Wheaton, MD

T. 410.772.2324

Toll Free: 888.772.3001

11262 Georgia Ave., 2nd Fl.
Wheaton, MD 20902

의학 칼럼

손저림의 가장 흔한 원인

59세 여성이 손이 저리다는 이유로 팔자를 찾아왔다. 여성은 양손 모두에서 첫째와 둘째 손가락 부위로 저리고 자주 마비가 오는 듯한 느낌을 말하였다. 환자는 오른손 잡이였는데, 손을 많이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은 보통 하루 중 7-8시간 정도 일을 한다고 하였다. 환자는 또한 손가락의 통증도 호소하였는데 이는 몇 달 전부터 서서히 시작되었다. 특이할 사항으로 환자의 증상은 주로 밤에 시작되어서 자다가 손이 저려서 깨어나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환자는 보통 손목을 주무르거나 털게 되면 통증이 덜해졌고, 최근 몇 주 전부터는 저린 증상이 밤낮으로 생기

기 시작하면서 손을 사용하거나 물건을 들 때 심해졌다고 하였다. 요즘엔 또 한 손의 힘이 많이 떨어져서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거나 손을 제대로 사용하기 힘들어졌다. 팔자의 진찰시 환자는 양손의 쥐는 힘과 손가락의 근력이 떨어져 있으며 손가락의 감각도 감소되어 있었다. 특히 환자의 양쪽 손목을 꺾은 채로 손등을 마주 대고 약 1분 정도 유지했을 때 저린 증상이 유발되었고, 손목을 진찰 해머로 두드렸을 때도 전기가 통하는 느낌이 손바닥에 생기기도 하였다.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환자는 신경전도검사를 시행받았고, 그 결과 환자의 손목 부위를 지나는 정중신경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진단명은 '수근관 증후군'이었다.

이나 폐경과 같은 호르몬의 변화, 갑상선 질환이나 당뇨병과 같은 대사이상, 스테로이드 복용, 퇴행성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 등이 수근관 증후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본 환자의 경우 정중 신경의 손상이 심하지 않았으므로, 비 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를 시작하였으며, 치료 후 상태가 완치될 수 있었다. 또한 궁극적으로는 환자의 직장에서나 일상에서 병의 원인 될 만한 손의 잘못된 사용을 바로 잡아줄 수 있음으로써, 효과적으로 수근관 증후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었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건강 칼럼

양극성 장애의 관리

조울증으로 불리던 양극성 장애는 기분의 장애다. 전형적인 경우는 조증이나 경조증이 있었느냐의 차이이다. 그런데 전형적인 경우보다는 비전형적으로 다양한 임상 상황에서 더 자주, 다양하게 관찰된다. ▶알코올, 담배, 마리화나 등 약물남용의 영향 ▶노년기 치매 발현 전후에 동반 ▶조현증과 동반되어 나타나는 경우 등이다.



김자성 전문의
LA 김자성 정신과

기본장애 원인은 유전적 소인이 있지만, 다양한 요인들 또 환경적인 스트레스들이 촉발하는데 관여한다. 원인은 불확실하더라도 적절한 치료로 증상은 잘 다룰 수 있다.

치료에서는 우선 증상을 잘 다스리는 것이 목표다. 결국은 전반적으로 환자의 기능이 더 좋아지는 것이 궁극적 치료의 목표라 하겠다. 여러 감정조절제를 적절히 쓰면 증상은 웬만하면 잘 다스려진다.

문제는 치료에 비협조적인 경우다. 그 저변에는 적절한 병식이 없는 것이 치료를 저해하는 가장 큰 문제이다. 진단을 받아들이는 것이 환자의 자존심에 중대한 도전으로 느껴지기에 문제를 부정하고 회피하기 때문이다. 소위 '미친 사람' 취급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이다. 그런 경우에는 '짜증이 잘 난다, 또는 화를 잘 못 참는다' 등 감정조절에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환자의 동의를 얻어내기 수월한 것 같다.

전형적인 조증 상태는 에너지가 넘쳐나고, 기분도 최고로 좋은 상태다. 자신감이 넘치고 지나친 낙관적 생각에 무리한 투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거나, 지나친 소비 등으로 경제적인 손해를 보기도 한다. 반면 에너지는 넘치나 기분은 우울한 혼재된 형태의 경우에는 특히 분노조절이 어렵고 파괴적인 힘도 크다. 경찰과 대처하여 소동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우울증은 비교적 진단이 간단하다. 양극성 장애의 발견과 치료는 정신과 의사로서 꽤 오랜 경험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작업이다. 단순 우울증 치료에서도 양극성 장애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울증의 치료 중 (경)조증이 발현되는 경우도 있다. 치료가 더디거나, 항우울제에 이상 반응으로 자살 충동이 이는 경우도 양극성 장애일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대표적인 약물은 데파코트, 리튬 등 주로 조증을 다스리는 기분 조절제다. 라모트리진 등은 양극성 장애의 우울기에 주로 항우울제 격으로 쓰이는 약물이다. 이세대항정신증 약물들도 자주 사용된다. 증상의 통제는 비교적 수월하나 장기적 부작용, 특히 체중 증가 등은 미리미리 주의를 주고 관리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특히 한 달에 한번 맞는 주사는 지속적인 감정 조절에 아주 유용하여 더 이용될 여지가 많다. 무엇보다 매일 유산소 운동, 섭식관리를 통해 적절한 체중 유지, 건강한 수면 습관 확립, 철저한 금주, 담배·마리화나 끊기, 약물남용 금지 등 기본적 생활습관을 건강한 쪽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매번 만남에서 확인하고 격려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일이 임상에서의 주 임무가 된다. 최고로 건강한 생활방식을 확립하면 증상은 현저히 좋아지고 기능적으로도 최고로 좋게 유지할 수 있다. 약물의 비중도 현저히 줄어드는 쪽으로 갈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방 칼럼

병을 부르는 '냉적' 한방치료가 효과적

먹은 것도 별로 없는데 소화 안 되고, 명치 부근이 딱 막힌 것 같고, 종일 속이 더부룩한 적이 있는가? 약을 먹으면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하고,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고, 기온이 떨어진 이후 유독 아랫배가 얼음처럼 차다면 '냉적'을 의심해 볼 수 있다.



박언정 원장
LA 해성한방병원

냉적이란 차가운 기운이 뭉쳐 있다는 뜻으로, 원래 따뜻해야 할 곳이 도리어 차가워져 병적 상태로 진행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단순히 추위를 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수족냉증, 장 기능의 약화, 전신의 혈액순환 저하로 면역력을 떨어뜨려 암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냉적은 배꼽을 중심으로 상하좌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명치와 배꼽 중간 지점, 배꼽 양옆으로 손가락 두마디 부위와 배꼽 아래 손가락을 4개 겹친 부위에 주로 발생한다.

한방에서는 몸통을 상중하 3부분 즉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다. 한의학에서 건강한 신체 상태는 '수습화강' 즉, 상초는 물처럼 시원하고, 하초는 불처럼 따뜻한 기운을 유지하며, 중초는 상초와 하초의 기운이 원활하게 교류하도록 하는 것을 건강한 상태로 본다. 만약 이와 반대로 '상열하한'인 경우는 위장이 위치한 중초에 순환장애를 초래하여 소화불량, 만성 피로, 설사, 변비와 같이 몸의 여러 가지 적신호를 나타낸다. 냉적은 위장 장애 이외에도 비만, 피부 트러블, 성 기능 장애, 허리 통증을 동반한 생리통, 무월경과 암을 유발한다.

냉적을 유발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운동 부족으로 인한 근육 약화다. 근육은 체온을 결정짓는 요소이자 몸 안에서 열을 발생시키는 핵심적인 기관이므로 근육이 많을수록 체온이 높게 유지된다. 둘째, 밤낮이 바뀐 생활이다. 황제내경의 양생

법에는 낮에 활동을 많이 하고 해가 떨어지면 잠을 충분히 잘 것을 권한다. 낮에 양기를 쌓고 밤 동안의 숙면을 통해 혈액, 체액, 수분과 같은 음기를 쌓으라는 의미다.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는 경우 몸의 수분 부족으로 '상열하한'과같이 열이 열과 가슴으로만 오르는 경우가 많다.

셋째, 과도한 스트레스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체내 긴장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혈관이 수축되 혈액순환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체온이 내려간다.

넷째, 과식이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체내 혈액 40%가 위장으로 집중된다. 과식을 하게 되면 몸 곳곳에 퍼져야 하는 혈액이 장시간 소화 기관에 머무르게 되어 전신의 혈액순환이 저하되고, 음식물의 과한 영양분이 지방으로 저장되므로 몸이 열을 낼 수 있는 기능을 막는다.

냉적에 좋은 혈자리혈자리를 소개한다. ▶중완혈: 배꼽과 명치의 중간 지점. ▶천추혈: 배꼽 양옆에 나란히 위치하는 혈자리로, 배꼽에서 손가락 두마디 정도 옆에 위치한다. 변비와 설사에 효과적인 혈자리다. ▶관원혈: 배꼽을 기준으로 네 손가락을 합한 넓이만큼 아랫부분에 위치한다. 마사지 방법은 혈자리를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손가락 3개로 지그시 누르면서 혈자리 주위에 작은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준다. 3개의 혈자리를 주기적으로 마사지하면 소화기능에 좋은 뿐 아니라 원기회복에도 좋다.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 아침! 좋은 신문! 중앙일보

임마누엘 홈헬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상주), 마사지체어실, 영화관람실, 노래방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활기차고 재미있는 맞춤형 액티비티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288-6677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443-828-7777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하늘나라 간 엄마·남친 화상전화 걸어온다면

내일 개봉하는 영화 '원더랜드'
AI로 세상 떠난 가족·연인 복원
배수지·박보검 커플 로맨스도
김태용·탕웨이 부부 13년만에 뭉쳐
"아내 많이 성장" "김, 딸바보의 극치"

"아내(탕웨이)는 '만추'(2011) 때보다 더 섬세하고 용감해졌어요."(김태용)

"우리 둘 다 '일 중독'이고 섬세한 스타일이라 같이 작업한 건 행운이었죠."(탕웨이)

영화감독 김태용(54), 중국 배우 탕웨이(44) 부부가 13년 만에 함께한 영화 '원더랜드'가 5일 개봉한다. 영화 '만추'로 처음 만난 둘은 2014년 결혼해 올해 10주년을 맞는다. 2016년 얻은 딸 셋째도 오는 8월 여덟 살이 된다.

지난달 31일 언론에 공개된 '원더랜드'는 세상을 떠난 연인·가족을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해 동명의 화상통화 서비스로 만난다는 내용이다. 배수지·박보검의 커플 로맨스와 함께 탕웨이의 모녀 3대 이야기가 목직하게 감정을 이끈다.

영화 '만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2022)으로 각각 백상예술대상과 청룡영화상에서 외국인 최초 여우주연상을 거머쥔 탕웨이의 세 번째 한국 영화다.

탕웨이가 연기한 중국인 워킹맘 바이리는 한국에서 노모(니나 파우)와 함께 어린 딸 지아(여가원)를 키운다. 자신의 죽음을 지아에게 감추기 위해 원더랜드 서비스를 의뢰한다. 지아는 자신의 장래희망인 고고학자 모습으로 전화를 걸어오는 엄마가 반갑지만, 노모는 이미 죽은 딸처럼 구는 AI가 혼란스럽기만 하다.

공동 각본을 겸한 김태용 감독은 언론시사회에서 바이리와 탕웨이의 닮은 점을 "하는 일에 대한 용감함, 무모함"이라 꼽았다. 또 "바이리는 엄마로서의 책임감이 극 초반 많이 부각되는데, 실질적으로 더 고민한 부분은 딸로서의 바이리"라며 "탕웨이는 (두 정체성의) 극과 극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배우라고 생



영화에서 바이리(탕웨이, 1)는 가족(2)과 화상전화로 대화한다. 3 정인(배수지, 왼쪽)과 연인 태주(박보검)의 AI.

[사진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김태용

각했다"고 말했다.

3일 서울 삼청동에서 따로 만난 탕웨이도 "'원더랜드' 속 모녀에 친엄마와 내 모습이 많다"고 인정했다. 올 2월 가수 아이유의

'Shh..' 뮤직비디오 출연 당시 그는 "그녀와 눈동자가 닮은 그녀의 엄마"란 사가 마음을 울렸으며 아이유에게 한글 손편지로 감사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도 "중국에서 경극 배우였던 어머니는 젊을 적 나보다 예뻐다고 아

버지가 그러더라. 이번 영화에 나온 홍콩 배우 니나 파우는 실제 우리 엄마 눈빛, 선량하고 발랄한 모습까지 빼닮았다"고 각별한 마음을 전했다. 영화 '크로싱 헤네시'(2010)에서 호흡을 맞춘 파우를 이번 영화에 출연 섭

외한 것도 탕웨이였다.

극 중 그의 '엄마' 연기도 결혼 전 찍은 '시절인연'(2014) 때보다 성숙해졌다. '원더랜드'가 데뷔작인 아역 여가원을, 촬영 내내 집에서 딸처럼 데리고 살다시피 했다고 한다.

이런 준비 과정 덕분일까. 화상통화 설정 탓에 상대배우가 아닌 휴대전화를 보고 연기하는 장면이 많았음에도 감정 몰입이 어렵지 않았다고 했다.

'원더랜드'는 김 감독이 2016년 실제 영상통화 중 착안한 작품이다. 그는 "어머니께 로봇 청소기를 사드렸더니 '너, 거기 들어가면 안 돼' 라며 사람처럼 대화하더라. '원더랜드'의 AI도 남겨진 이들의 바램처럼 사람처럼(표현)해야 하나, 많이 생각했다"고 했다.

김 감독은 "아내가 10여년 간 좋은 감독을 만나며 '만추' 때보다 배우로서 더 많이 성장했다"고 신뢰를 내비쳤다. 탕웨이는 "내 능력을 잘 집어내 주는 감독들을 만나 한 걸음씩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또 "감독·작가의 이야기는 본인의 생활과 평행선 안에 있다. 깊이 생각하고 파고들게 만드는 영화를 좋아하는 데 김태용 감독의 영화는 따뜻하다"고 했다.

한때 '분당맥'이란 애칭까지 붙은 그는 "중국의 한 자녀 정책 때문에 못 느꼈던 대가족을 한국에서 김태용 감독과 살면서 처음 느꼈다"고도 말했다. "시댁은 굉장히 화목하고 끈끈하다. 다 같이 성묘도 간다. 이렇게 많은 가족이 한꺼번에 친하게 어울릴 수 있다는 걸 경험했다"면서다. 이어 "감독 김태용은 너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사람, 아빠 김태용은 딸바보의 극치"라며 웃었다.

만약 원더랜드 같은 서비스가 나온다면 부부는 어떻게 할까.

김 감독이 "저도 보고 싶은 사람이 몇몇 있다. 제가 세상을 떠날 때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살아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하자 탕웨이는 "원더랜드는 일종의 치료 약이다. 남겨진 사람이 스스로 상실감을 치료할 수 있는 에너지가 몸 안에 생기면 딱 끊어야 한다. 약효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나원정 기자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간병이 필요하신 모든 분들을 퍼스트로 모십니다.

퍼스트 홈케어,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편의를 위한 종합 간병서비스!

- ♥ 약 챙겨드리기
- ♥ 이동 보조 산책 또는 운동 도와드리기
- ♥ 간단한 집안일 도와드리기
- ♥ 식사 도와드리기
- ♥ 청결 유지 및 침상 정리
- ♥ 병원 예약 및 동행(필요시) 해드리기
- ♥ 말 동무 해드리기
- ♥ 우편물 정리 및 각종 고지서 납부 도와드리기
- ♥ 정기 간호사 방문 및 건강상태 확인 등등

룸팀케어, 푸드스탬프, 메디케이드 상담 및 신청 도와드립니다

직 원 모 집

퍼스트 홈케어에서는 어르신을 진심으로 섬기며, 내 가족처럼 대할 수 있는 분들을 찾고 있습니다.

간병인:00명 / 코디네이터:00명

퍼스트 홈케어에서 본인 능력을 무한대로 펼치며,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 보세요.
퍼스트 홈케어가 있습니다.

*퍼스트 홈케어 위치: 센터빌 스파월드 건너편 3층 메디컬 빌딩

Main Office 13890 Braddock Road, #304A, Centreville, VA 20121 T. 571-549-6789 / F. 571-300-7005 / E. homecare@firsthco.com

4시간39분 혈투... 37세 조코비치 '메이저 370승' 대기록

“노박 조코비치가 무릎 부상을 받고 ‘테니스 황제’ 로저 페더러의 기록을 넘었다.”

영국 더선은 4일(한국시간) 조코비치(37·세계랭킹 1위·세르비아)가 2024 프랑스오픈 8강에 진출한 소식을 이렇게 전했다. 조코비치는 이날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열린 대회 남자 단식 16강전에서 프란치스코 세룬돌로(26·27위·아르헨티나)와 4시간 39분간의 풀세트 혈투 끝에 3-2(6-1, 5-7, 3-6, 7-5, 6-3)로 승리했다. 조코비치가 메이저 대회 단식 경기에서 거둔 통산 370번째 승리다.

이로써 조코비치는 369승의 페더러(43·은퇴·스위스)를 제치고 이 부문 역대 1위로 올라섰다. 그는 또 통산 59번째로 메이저 대회 8강에 올라 이 부문에서도 페더러를 제치고 역대 1위가 됐다. 조코비치는 이미 메이저 대회 최다 우승(24회)·결승 진출(36회)·4강 진출(48회) 등의 부문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메이저 대회에서 남자 최다인 24승을 거둔 조코비치는 앞으로 1승만 추가하면 남자를 통틀어 최다인 메이저 25승 고지에 올라서게 된다.

1987년생으로 만 37세인 조코비치의 투혼이 빛난 경기였다. 그는 직전 경기인 32강전에서도 풀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로렌초 무세티(22·30위·이탈리아)를 3-2로 제압했다. 이 경기는 현지시간으로 1일 밤 10시 30분쯤 시작해 다음 날 새벽 3시 7분에 끝났다. 4시간

‘메이저 대회 기록 제조기’ 노박 조코비치

- 24** 최다 우승
2위 라파엘 나달 22회
- 36회** 최다 결승 진출
2위 로저 페더러 31회
- 48** 최다 4강 진출
2위 페더러 46회
- 59** 최다 8강 진출
2위 페더러 58회
- 370** 최다 승
2위 페더러 369승



노박 조코비치가 4일(한국시간) 프랑스 파리의 스타드 롤랑가로스에서 벌어진 프랑스오픈 16강전 프란치스코 세룬돌로와의 경기에서 득점한 후 기뻐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무릎통증 딛고 프랑스오픈 8강에 경기 도중 뼈끗, 응급처치 뒤 역전승 32강전도 4시간29분 ‘마라톤 승부’ 최다우승 등 이어 기록 5개 달성



조코비치가 16강전 경기 중 메디컬 타임 아웃을 요청해 치료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29분간의 ‘무박 2일’ 혈투였다. 그런데 이날 승부는 이보다 10분이 더 긴 무려 4시간 39분 동안 이어졌다. 프랑스오픈 최장 경기시간 기록을 갈아치웠다. 조코비치는 2005년 이 대회에 처음 출전한 이후 지금까지 총 108경기(92승16패)를 치렀다.

두 경기 연속으로 4시간이 넘는 장기전을 펼친 조코비치는 3세트가 끝난 뒤 무릎 통증을 호소하며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한 뒤 치료를 받았다. 이때까지 조코비치는 세트스코어 1-2로 뒤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한 승부욕을 가진 조코비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섰다.

오히려 열 한살이나 어린 세룬돌로를 체력 면에서도 앞섰다. 조코비치는 결국 내리 두 세트를 따내면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조코비치는 경기가 끝난 뒤 “2세트에서 여러 번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그게 무릎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경기를 계속해도 될지 고민했다”고 털어놨다. 영국 BBC는 “조코비치가 두 차례 마라톤을 방불케 하는 장시간의 경기를 펼치면서도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다. 몸 상태와 집중력에서 모두 상대를 압도했다”고 소개했다.

조코비치는 테일러 프리츠(27·12위·미국)를 3-1(7-6(8-6), 3-6, 6-4, 6-2)로 물리치고 올라온 ‘특급 신예’ 카스페

르 루드(26·7위·노르웨이)와 5일 준결승 진출을 다룬다. 루드는 지난해 프랑스오픈 결승에서 조코비치에 져 준우승을 차지했고, 2022년 결승에서는 ‘황신’ 라파엘 나달(38·27위·스페인)에게 져 아깝게 우승 목전에서 물러났던 선수다. 조코비치는 루드와의 통산 전적에서도 5승 1패로 앞선다. 그러나 가장 최근 맞대결인 지난 4월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준결승에서는 루드가 2-1로 이겼다. 결국 37세 조코비치와 26세 루드의 8강전은 조코비치가 얼마나 체력을 회복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주영 기자

“손흥민 보러 가자” 싱가포르 현지 암표값 8배 뛰었다

한국, 내일 싱가포르서 월드컵 예선 5만석 규모 경기 입장권 조기매진 3만원짜리 티켓, 25만원에 거래도

선장 없이 4개월째 표류 중인 한국 축구대표팀이 이번엔 제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까.

김도훈 임시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6일 오후 9시(한국시간)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에서 싱가포르와 2026 북중미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차전을 치른다. 한국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3위, 싱가포르는 155위다. 4차전까지 3승 1무(승점 10)를 거둔 한국은 중국(승점 7), 태국(승점 4), 싱가포르(승점 1)를 제치고 조 1위를 달리고 있다. 싱가포르전에서 비기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3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비산 스타디움에서 훈련하고 있다. 한국은 6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에서 싱가포르와 경기한다. [연합뉴스]

기만 해도 중국과의 최종 6차전 결과와 상관없이 3차 예선 진출을 확정한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지난

2월 물러난 뒤 축구대표팀은 감독 대행 체제로 A매치를 치르고 있다. 지난 4월 황선홍 임시 감독 체제로 A매치를 치

른 대한축구협회는 이번 싱가포르전을 앞두고 정식 감독을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김도훈 감독에게 또다시 임시로 대표팀 지휘봉을 맡긴 상황이다. 선수들끼리 발을 맞출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한 수 아래 싱가포르를 상대로는 핑계에 불과하다는 게 축구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싱가포르에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 ‘캡틴’ 손흥민(토트넘)의 인기는 폭발적이다. 그래서 5만석 규모의 싱가포르 내셔널 스타디움의 입장권은 지난달 26일 일찌감치 매진됐다. 손흥민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3일 밤 싱가포르 창이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 밤늦은 시간에도 수백명의 싱가포르 팬이 공항에 몰려들어

주변 교통이 마비될 정도였다.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축구 경기로는 보기 드물게 암표도 등장했다. 싱가포르 CNA는 지난 2일 “한국과 싱가포르의 경기 티켓이 온라인상에서 높은 가격에 재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한국전 경기 입장권 가격은 10싱가포르달러(약 1만원)~40싱가포르달러(약 4만원)다.


CNA에 따르면 20싱가포르달러(약 2만원)인 입장권이 원래 가격의 3배가 넘는 75싱가포르달러(약 7만6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5000석이 배정된 원정팀 응원 좌석 티켓은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30싱가포르달러(약 3만원) 짜리 표를 8배를 넘는 250싱가포르달러(약 25만원)에 판매하는 경도 있다.

피주영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고법원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파산 : 한미는 연방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입니다.
이혼 : 합의 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일방 이혼, 배우자 실종 이혼
상속 : 유언장, 트러스트, 가디언, 상속 분쟁
소송 : 오버타임, 항소, 계약위반, 부도수표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리치몬드 페닌슬라 상담환영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컬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먹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케어

교통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예약환자 에 의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 유경험자 우대
-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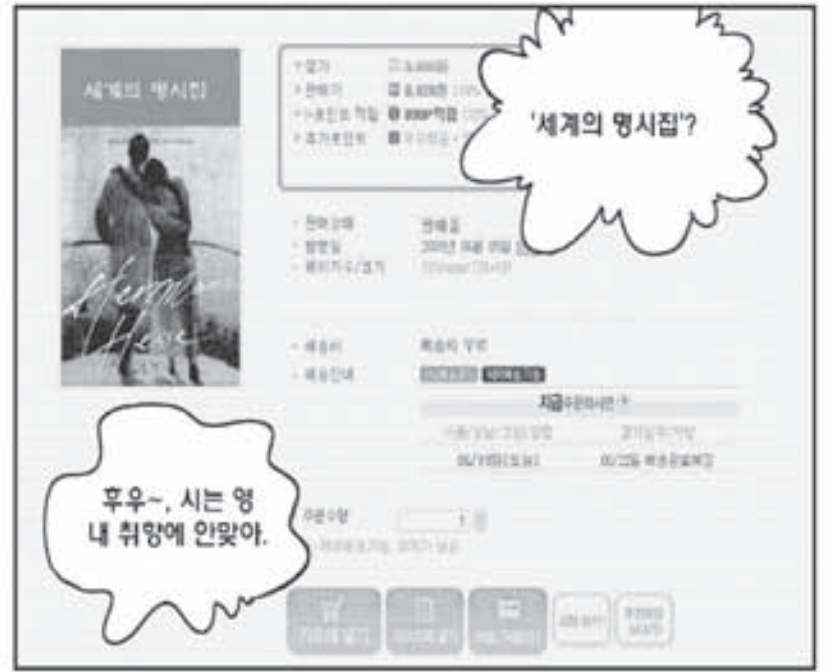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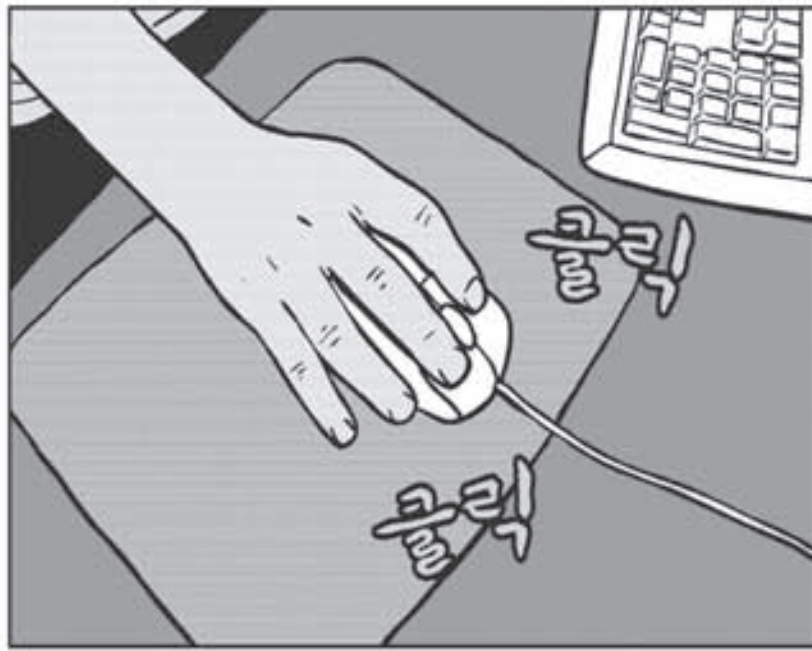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식스센스**

THE SIXTH SENSE

오늘의 주제 **책**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장우혁



바른 정보 · 빠른 신문 중앙일보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L & B UNIVERS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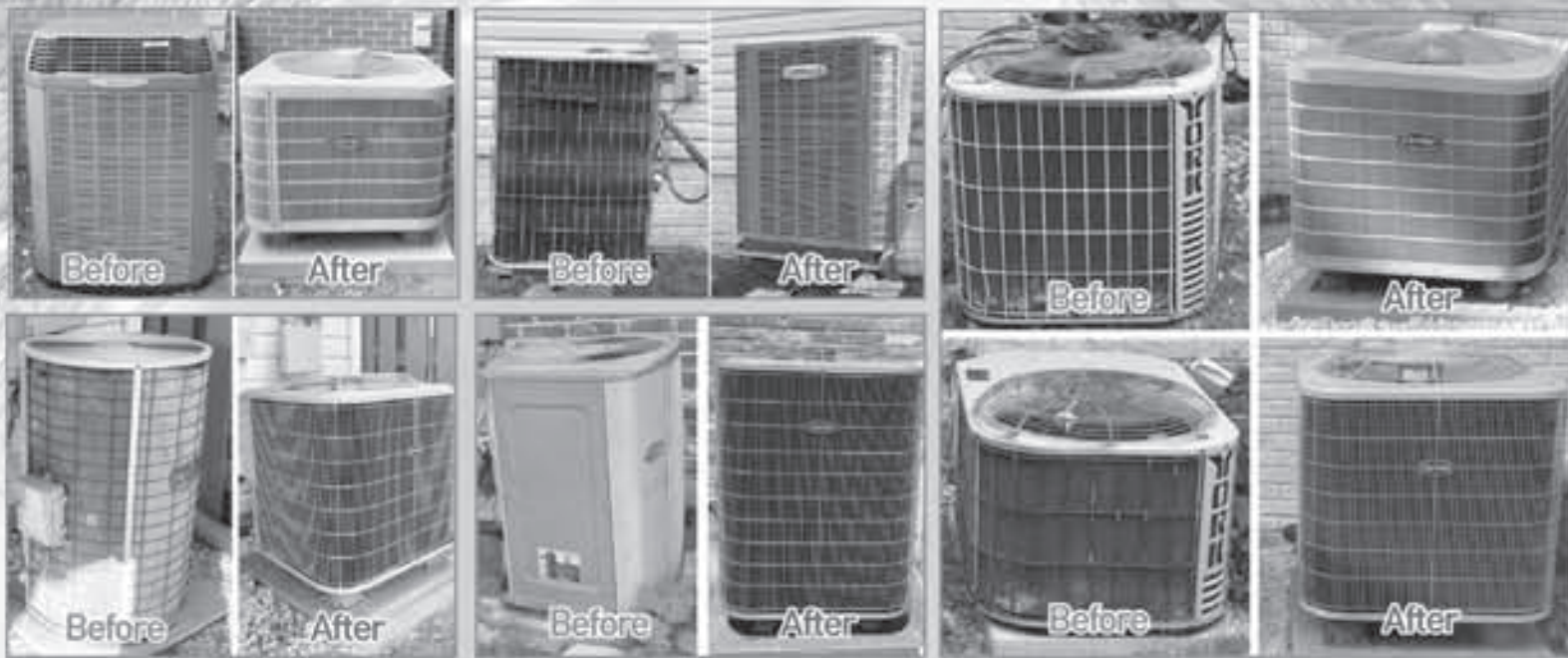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오래되고 잦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L&B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AIR CLEANER AND HUMIDIFIER
- INDOOR AIR QUALITY PROBLEMS
- FURNACES & AIR HANDLERS
- NEW FURNACE INSTALLATION
- FURNACE REPAIR SERVICE
- AIR CONDITIONERS & HEAT PUMPS
- AC INSTALLATION
- AC REPAIR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못 믿으시겠죠?



덕트 클리닝

Air에 관한 모든 것! L&B Universal 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합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iversal

6월
구
인
광
고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 모집분야 ◀
사무직 (월-금)

▶ 대우 ◀
유급휴가 / 건강보험
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Resume to:
hr@worldbankcard.net
▶ 문의: 703-225-5500 ◀

지휘자 청빙
연합감리회 워싱턴교회에서
지휘자님을 모십니다

자격
• 음악 전공자
• 지휘경력자 우대

제출 서류
• 이력서
• 신앙고백이 들어간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2181 Baltimore Rd, Rockville, MD 20851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 풀타임 & 파트타임
▶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 이중언어 우대
▶ 무경력자 환영

◆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회계직원 구함
Assistant Accounting Manager

Gov't contracting firm
(FULL TIME)

1년이상 회계업무
(Quickbooks경험)

좋은 인성과 세밀함/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
Starting \$55,000

703-691-2852
www.visitlod.com
admin@visitlod.com

LÓ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텔링점(VA) 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 풀타임/파트타임
* 영어/컴퓨터 사용
* Annandale 지역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나투라 치과

직원 모집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 파트타임 (월/화/목/금)
• 영어 가능하신 분
• Ent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애난데일 회계사무소

직원 모집

▶ 풀타임 가능하신 분

▶ 영어와 컴퓨터
사용가능하신 분

▶ 무경력자도 성실히
함께 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topcpainfo@gmail.com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택시**

볼티모어 지역 환영
장거리 특별 요금
어느 곳이든 24시간 OK

TAXI

회사 위치:
볼티모어 롯데 마켓 근처

OK 택시
240-796-0093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업성 광고는 출광료로 무료게재하지 않습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유쾌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큰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센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주방, 상가 페인트 전문 닥터

벽, 마루, 캐비닛 샌딩 보수

플로잉, 핸디맨 서비스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2위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미국 15채중 1채는 문제가 심각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꼭 **검사**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십시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83-208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 귀국, 해외 이사
- 타주, 시내 이사
- 귀국, 타주 차량운송
-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 신속
- 안전
- 신용
- 저렴
-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Movers LLC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 ◆ 백금(Platinum)
- ◆ K14, K18, Setting 전문
- ◆ G.I.A. E.G.L.다이아몬드 판매
-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 각종 보석 감정수리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 ◆ 각종 집수리 일체
- ◆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 ◆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Dishwashers,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럭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음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폴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 라이어빌리티, 워커스컴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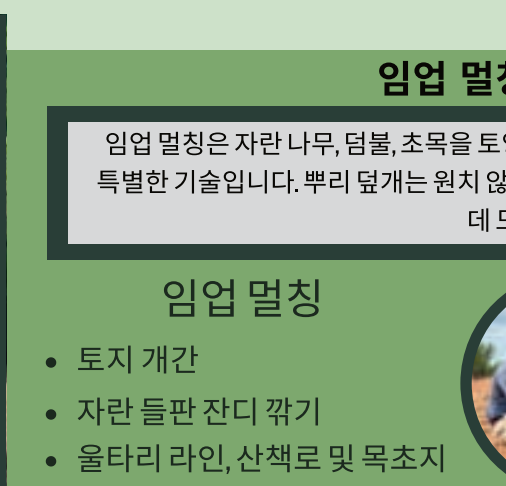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올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올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후 

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break the news to (somebody); 안 좋은 소식을 알리다, 전하다

(Two friends are having lunch...)

(친구 둘이 점심을 먹고 있다...)

Alicia: I really don't know how to break the news to you.
알리샤: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어.
Kelly: Just tell the truth. I won't take it personally.
켈리: 그냥 사실대로 말해. 사적으로 듣지 않을게.
Alicia: Well, I'm afraid you'll lose control of yourself.
알리샤: 네가 완전히 흥분할까봐 걱정돼.
Kelly: Sometimes it's wise to be direct. Come on don't beat around the bush!
켈리: 어떨 때는 직선적인게 더 현명한 거야. 자

빙빙 돌리지 말고!
Alicia: Since you want an honest answer I'll tell you the truth.
알리샤: 네가 솔직한 답을 원하니까 그럼 사실대로 말할게.
Kelly: All right. What is the truth?
켈리: 알았어. 뭔데?
Alicia: We've won two free tickets to Hawaii for a seven-day vacation.
알리샤: 하와이에서 7일동안 휴가받는 공짜 티켓

을 우리가 봤어.
Kelly: What? Are you serious?
켈리: 뭐? 정말이야?
Alicia: I'm serious. I got a letter today.
알리샤: 정말이야. 오늘 편지 받았어.
Kelly: You had me worried. I'm happy you were putting me on.
켈리: 너 날 걱정시키더니. 날 잘도 속여서 오히려 기쁘다.

기억할만한 표현
▶ lose control of (oneself): 흥분하다 자제력을 잃다.
"She lost control of herself and cried for hours."
(그녀는 견딜 수 없이 몇시간을 울었습니다.)
▶ beat around the bush: 본론을 피하고 빙빙 돌리다.
"If you think he's beating around the bush tell him."
(그 사람이 말을 빙빙 돌리는 것 같으면 그렇다고 말 해버리세요.)

날말퀴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가로열쇠

(1)검정 혹은 회색 삼베로 길이는 길고 소매는 넓게 만든 승려의 옷 (3)이른 새벽에 길은 우물물. 정성을 들이거나 약을 달이는 데 쓰죠 (5)갑자기 세계 부는 바람 (7)아무런 탈 없이 아주 오래 삶 (8)목직지에 닿기 전에 차에서 내림 (9)돈을 빌려 쓴 대가로 치르는 일정한 비율의 돈 (11)육류와 해산물을 가늘게 채 썰어 볶은 중국 요리 (13)밀림 (15)행문으로부터 방출되는 가스체 (17)여름에 낮이 가장 긴 날 (19)소송을 당한 측의 당사자 (21)오누이 (23)가축의 먹이를 받아 주는 그릇 (25)떠들썩하게 기세를 올려 지르는 소리 (27)땀줄이 떨어지면서 배의 한가운데에 생긴 자리 (29)자나 깨나 잊지 못할 (31)누가 주모자인가를 알지 못하도록, 서명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을 동글게 뺨 돌려 가며 적은 것. □발□□ (33)나무나 돌처럼 아무런 감정도 없는 사람 (34)풀이나 나무로 담 대신에 경계를 지어 막는 물건. ~에 핀 꽃을 잡는 손이 있길래/ 꺾어 가나 했더니/꽃~ 너머로 지나가던 나그네/ 향내 맡고 있었네(윤석중) (35)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돌길을 파는 사람

세로열쇠

(1)사거나 만들거나 하여 갖춤 (2)우리나라에서 가장 험한 산골로, 조선 시대의 귀양지. 함경도 맨 꼭대기, 백두산 아래쪽에 있다. ~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3)무릎 아래에서 앞 뼈가 있는 부분 (4)올란바토르, 하노이, 테헤란, 암스테르담, 캔버라, 카이로, 오타와, 산티아고... (5)제주도에서 안녕과 질서를 수호하여 준다고 믿는 수호 석신 (6)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동력을 얻는 기계. 네덜란드에서 발달하였다 (10)밤 12시 (11)아내가 있는 남자 (12)무릎의 아래. 어머니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 부모의 보호를 받는 테두리 안 (14)모래의 다음 날 (16)귀신의 울음소리 (18)이 천체에 77억 명의 인간이 살고 있지요 (20)부모를 여의고 홀로된 아이 (22)물건을 몰아서 사들인 후 비싼 값을 받기 위해 팔기를 꺼림. □점□□ (24)죄인을 귀양 보내던 일 (26)길을 갈 때에 오른쪽으로 감 (28)남이 노는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 ~를 까다 (29)5개를 나란히 놓는 사람이 이기는 바둑놀이 (30)아직 피지 아니한 어린 꽃봉오리 (32)남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며 상주(喪主)를 위문함

스도쿠

7		3			6	8		2
		2			5			
4	8		3				6	9
5	3	4			8	7	9	1
		8				5		6
6		1	9				8	
	5	7			9	6		8
2			6	8			4	
				3		9	2	7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2	7	6	1	8	5	9	4	3
5	4	8	2	9	6	1	2	7
8	1	9	6	2	4	7	5	3
4	8	2	3	5	6	1	7	9
9	3	5	4	1	7	8	2	6
1	6	2	8	9	2	4	3	5
6	9	1	2	7	3	5	8	4
3	7	4	5	6	8	2	9	1
2	5	8	9	4	1	3	6	7

① 위싱턴 중영일보

정기구독 신청 1년 (\$120) 및 가판대 무료배포

1년 정기 구독료 \$120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의 유일한 종합일간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발행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료로 매일 배포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도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무료로 게재



① 위싱턴 중영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2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광고문의 213-368-2525**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L.A **애틀랜타** **기타 지역**

매매 매매 구인

성업중인 옷수선가게
 토렌스 PV지역가 3만5천
 년매 8만 (310)995-8925

한식당 매매
 한국 BBQ 식당
 테네시 주 위치
 매매가 69만불
 텍스트로 먼저 연락 오망
 (949)422-8332

죽/죽헬퍼
 성실하신분 환영
 중식당, 숙식제공
 알라스카 주도지역
 (907)209-1920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차별화된 한국제품이 많은~
미주 최대 한인 온라인 쇼핑몰
 Hotdeal.Koreadaily.com

HOT DEAL LA KTown **213.368.2611**
 690 Wilshire Place Los Angeles, CA 90005

꿈 을 위한 약속
중앙안내광고가 함께 합니다.
(213)368-2525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리

개인 / 비즈니스 / 용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용자상담환영
- ▶ 비즈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용자, 카드용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험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용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스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용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용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오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퍼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80~90대 · 비아그라 효과 없는 남성도 30분 전에,
1알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강직도 · 지속성 · 전립선 비대증 · 한 번에 해결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 바로고 하면 끝내주는, 남녀공용 성욕과
 성감 개선제, 율활유 젤 #10 남성발기 O 링
 #12 천연 그대로, 오리지널 닥터 속눈썹 링
1-213-210-9720 (제품 상담 및 주문)

미주 중앙일보 스마트폰 App

미주 최대 **+** 뉴스 통합
 한인 업소록 **+** 모바일 App

리스트 광고 문의 **(213)368-2532**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미라클치로 **Up to 40% 혜택**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건강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 · 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치로 발기 능력 속속
 향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향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치로 벅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중풍 · 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닙니다.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히스패닉 **중풍환자**
 2개월 치료받고
 "이제 웃을 수 있어요"

10여일 만에 **뼈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사례

환자와 가족 모두 놀라는 중풍환자 실제 치료사례
 [사진왼쪽, 서영수 한의학박사와 델취호씨]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사진 오른쪽 치료전, 치료후]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주 전지역의 광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술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술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술 직접가열식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멜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4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